



울주세계산악영화제
 1s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2016. 9. 30 – 10. 4

주최 울주군
 Presented by Ulju Gun

주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Supervised by Ulju Mountain Film Festival



후원
 Supported by



협찬
 Sponsored by



3	인사말 및 축사	Message & Greetings
6	공식 포스터	Official Poster
7	공식 트레일러	Official Trailer
8	홍보대사 옴피니스트	UMFFinist
9	조직 및 스태프	Organization & Staff
10	자원활동가 옴트리	Volunteer UMFFtree
12	행사 공간	Festival Map
13	셔틀버스 및 교통정보	Shuttle Bus & Traffic Information
14	상영 및 티켓안내	Screening & Ticket Information
16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21	시상내역 및 심사위원	Awards & Jury
25	개막작	Opening Film
26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44	알피니즘	Alpinism
48	클라이밍	Climbing
56	모험과 탐험	Adventure & Exploration
66	자연과 사람	Nature & People
72	울주비전: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	Ulju Vision: Beyond the Limit
76	울주서밋 2016	Ulju Summit 2016
80	우리들의 영화	We Make UMFF
86	참여행사	Festival Events
99	도움주신 분들	Acknowledgements
100	상영본제공처	Film Sources
104	색인	Index



신장열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조직위원장

SHIN Jangyul
Chairm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영남알프스의 가을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단풍과 억새의 고운 빛에 산으로 내달려가고 싶은 이 아름다운 계절,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열게 돼서 정말 설레고 기쁩니다.

산과 영화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찾아주신 국내·외 관계자와 관객 여러분, 준비에 열정을 쏟아주신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영화제를 통해 한국을 처음 방문하신 '살아있는 산악 전설' 라인홀트 메스너씨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문화로 행복하고, 문화로 잘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군은 울산시와 함께 '영남알프스'를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만드는데 많은 힘을 쏟아왔습니다. 2010년 시작한 간월재 '울주오디세이'의 성공에 힘입어 산악영화제 개최를 기획했고, 밴프월드투어 울주상영회와 지난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 등 7년 넘는 준비 끝에 드디어 제1회 개최의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날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림만큼 많이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화제가 열리는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 오시면 쏟아지는 별빛에 풀벌레 소리 들으며 최고의 산악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멋진 가을 낭만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Autumn of Yeongnam Alps is calling out to us. In this beautiful season when we want to rush to the mountains to take in the lovely colors of maple leaves and flame grass, I am truly excited and pleased to host the 1s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the people concerned and audience from home and abroad who are joining us with profound love for mountains and movies and all those who have put their efforts into preparing for this festival. Specially, I would like to offer my warm welcome and sincere gratitude to Reinhold Messner, a 'living mountain legend', who is visiting Korea for the first time to join us at UMFF.

This is a day and age when people find happiness and live better lives through culture. In this regard, Ulju-gun has been committed to develop Yeongnam Alps into global cultural content in collaboration with Ulsan-si. On the basis of successful 'Ulju Odyssey' in Ganwoljae which started in 2010, we planned to hold a mountain film festival, and after seven years, during which we held the Banff Mountain Film Festival World Tour screening in Ulju and last year's Ulju Mountain Film Pre-Festival, we are finally holding the 1st UMFF. We have waited for this day for a long time. We did our best to make this festival a success.

In Yeongnam Alps Complex Welcome Center where UMFF takes place, you can appreciate the best mountain films in the dazzling starlight in the company of chirping crickets. Please do not miss this great opportunity to enjoy this splendid romance of autumn, and show your love to UMFF.

Thank you.



박재동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추진위원장

PARK Jaedong
Director
Ulju Mountain Film Festival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본격 시작을 알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산악영화제,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찾아 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악스포츠, 산악문화, 자연을 주제로 한 세계각국의 다양한 영화를 선보이는 영화제이자, 산악 문화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으로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광경과 함께 영화제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통해 한국을 첫 방문하는 세계적인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더욱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화제는 '다함께 만드는 영화제! Be Together, UMFF!'라는 슬로건처럼 제작되어진 좋은 산악영화들을 소개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세대를 뛰어넘어 어린이부터 청소년, 중·장년층을 비롯한 일반인들도 영화를 만들고 영화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산과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첫 시작을 함께할 여러분과 고생하신 많은 스태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6년 가을, 영화로 물들 울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ool and refreshing autumn breezes are welcoming us.

This autumn, we are going to launch the first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in Korea and it is pleasure to see you all visiting the first edition of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s a festival to present diverse films with different themes including mountain sports, mountain culture and nature, and also a place where mountain culture is thoroughly covered, so please be ready to immerse yourselves in the beauty of Yeongnam Alps and the charm of the festival. In particular, world widely renowned mountaineer Reinhold Messner is going to make his first ever visit to Korea to take part in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o do not miss the chances to be with him at various events.

As the slogan 'Be Together, UMFF!' says, we do not simply introduce well made mountain films, but also offer opportunities for all generations including children, teenagers,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to make films and participate in the festival. We will draw a rough sketch of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with everyone who loves mountains and films. I appreciate all of you who are with us to meet the beginning of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I am grateful for the hard work of the entire staff.

Welcome to Ulju filled with films, in the fall of 2016!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KIM Gihyeon
Mayor
Ulsan Metropolitan City

반갑습니다. 어느새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입니다.

산과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 페스티벌 개최에 이어, 오늘 대망의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영화제가 개최되기까지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추진위원과 영화제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는 산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늘 산의 정기를 받아 산기슭에 살다가 산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만큼 산은 우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이러한 산의 가치를 영화와 접목하여 만국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감동의 무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영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동경은 우리를 희망과 감동으로 이끌어 상상의 나라를 퍼게 합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영남알프스의 매력과 우리 울산이 세계 어느 도시보다 아름다운 곳임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영화제를 준비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남알프스의 매력과 영화의 감동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ice to meet you. Before we knew it, autumn has approached us.

Thanks to the commitment of those who love mountains and movies, we held Ulju Mountain Film Pre-festival last year, and today, I heartily congratulate on the opening of The 1s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 am grateful to all the people who have spared no pains to hold the festival, including the Executive Committee of UMFF and chairman Shin Jangyul.

What kind of significance mountains may have to us? We live at the foot of mountains, receiving the vital force of mountains all the time, and go back to mountains. This may also be true for people in other countries. Like this, mountains are interrelated with our lives and they are very much like our nurturing mothers as well.

I am certain tha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will offer a touching stage by incorporating such value of mountains with movies to unite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Movies have the power to move the heart of humans. Our love for movies stretches our imagination as it touches and gives us hope.

I hope UMFF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the beauty of Yeongnam Alps and our city, Ulsan, to be widely known. I also hope UMFF will become a world-class film festival and I want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prepared for the festival.

Lastly, I hope for the charms of Yeongnam Alps and deep impressions made by movies to be kept for long in your heart. Thank you.



울주, 줌 인 & 아웃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포스터는 울주 소재의 영남알프스의 산세와 영화제를 상징하는 스크린을 교차, 배치해 산악영화제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2종의 포스터는 프레임의 변화에 따라 같은 피사체에서 서로 다른 것을 이끌어내는 영화매체의 특성에 주목해 디자인됐다.

먼저 좌측의 '줌 인' 포스터는 가까이 다가가 바라본 산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각 스크린은 울주 영남알프스의 대표적인 명소들을 담았다. 좌측 상단부터 간월재, 억새평원, 쌀바위, 파래소 폭포를 의미하는데, 마치 사진을 보듯 생생하다. 스크린을 통해 구체화된 산의 다양한 모습은 영화가 사람과 산을 더욱 가깝게 매개한다는 산악영화제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스크린 속 산의 모습은 산악영화제의 다양한 얼굴을 나타내기도 한다.

우측의 '줌 아웃' 포스터는 스크린을 통해 먼 발치에서 본 산을 표현했다. 명시적인 산의 풍경으로 채워진 우측의 '줌 인' 포스터와 달리, '줌 아웃'은 산의 구체적 이미지를 비워내 보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먼 곳에서 보이는 추상화된 산의 모습과, 산을 둘러싼 흰 바탕은 관객의 상상력에 힘입어 그 풍요로움을 더한다. 이는 관객 없는 영화제는 있을 수 없다는 영화 축제의 정신을 시사하고 있다.



Ulju, Zoom In & Out

The poster of the 1s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emphasizes on the identity of a mountain film festival by overlapping the feet of Yeongnam Alps at Ulju with screens symbolizing the film festival. Two posters also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in film media which drags out different things from an object along the alteration of frames.

The 'Zoom In' poster on the left shows the mountain from a close distance, and there are famous spots of Yeongnam Alps in each screen. From the top left, there are Ganwoljae, Eoksae Plain, Ssalbawi, Paraeso, which all are as vivid as in pictures. Various shapes of the mountain materialized through screens implicatively express that films make people and mountains close to each other. Mountains alternating in screens over time stand for various faces of Mountain Film Festival.

The 'Zoom Out' poster on the right expresses the mountain from a distance. Different from the 'Zoom In' Poster filled with explicit landscapes of the mountain, this one misses specific images of the mountain, which stimulates imagination of viewers. The abstract image of the mountain from a distance on top of the white background is enriched with the imagination of viewers. This implies the spirit of film festival: no film festival stands without viewers.

아트 디렉팅
Studio fnt

일러스트
윤미원

Art Direction
Studio fnt

Illustrator
YOON Miwon



공식 트레일러

일렁이는 산의 이미지와 운동하는 산세들의 조각들이 영화를 상징하는 스크린을 사이사이에 품고 나서야 제자리를 찾는 과정을 담았다. 이는 영화를 통해 산을 만나며 산의 진정한 모습과 조우하기 위한 우리의 여정이기도 하다. 여정은 키 텍스트인 '산', '느끼고', '즐거고', '함께하라'를 통해 구체화한다. 트레일러의 끝에서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산세와 스크린은 영화제의 공식 포스터 이미지를 띠며,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산과 영화, 영화와 사람을 매개하는 장임을 선언한다.

Official Trailer

It shows the process that waving images of a mountain and pieces of foot of the mountain bare screens symbolizing films and finally complete the proper shape. This is also our journey of meeting mountains through films to encounter the true figure of mountains. The journey is materialized with key texts, 'mountain', 'feel', 'enjoy', and 'share'. At the end of the trailer, the foot of the mountain and screens are put in place to show the image of the official poster of the festival. Then the whole thing indicates that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s the medium place between mountains and films, and at the same time, films and people.

제작총괄
나우플러스레이터

General Producer
NOW+LATER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홍보대사는 '윌피니스트(UMFFinist)'라고 불린다. 영화제의 영문 이니셜인 'UMFF'와 산에 대한 전통을 지키는 산악인들의 명예로운 호칭 '알피니스트(Alpinist)'의 합성어다.

윌피니스트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과 소통하며 축제의 열기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 보다 크게는 산악영화 활성화와 건전한 산악문화 정착을 위해 힘쓴다. 윌피니스트로는 매년 전문산악인 1인과 영화인 1인을 선정한다.

2016년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윌피니스트는 세계 최고의 여성 클라이머 김자인 선수와 안정적인 연기로 배우로서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배우 서준영이 선정되었다. 김자인은 국제스포츠헤럴리밍연맹(IFSC)에서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여성 클라이밍 선수다. 선수로서 성적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스포츠 클라이밍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우 서준영은 영화 <파수꾼>(2010)에서 인상적인 연기로 이름을 알린 이후, 영화와 TV를 넘나들며 활발한 연기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제작지원 프로젝트 울주서밋 2016 선정작인 이송희일 감독의 <미행>에서 열연을 펼칠 예정으로, 영화제와의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있다.

An honorary ambassador of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s called an 'UMFFinist'. It is the mix of 'UMFF', an acronym for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Alpinist', an honorary name for mountaineers abiding by the traditions for mountains.

An UMFFinist makes the festival known wider and heightens the excitement of the festival by communicating with visitors. On top of that, he/she is expected to make efforts for invigoration of mountain films and settlement of sound mountain culture. A professional mountaineer and a cineaste are invited as UMFFinists every year.

The UMFFinists of the 1s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re Kim Jain, the best female climber in the world, and Seo Junyoung, an actor who establishes a solid foothold with stable acting. Kim Jain, taking the top position at the rank of the IFSC, is definitely the best female climber. She doesn't only keeps training for herself, but also struggles to popularize sport climbing through multiple routes. Since Seo Junyoung was known to the world when he did his role quite well in *Bleak Night*(2010), he has been active on both screen and TV. He appears in Leesong Hee-il's *Following*, made with support of the Ulju Summit 2016, and he is going to make a new connection with the film festival.



조직위원장

신장열

추진위원장

박재동

추진위원

강동진

권영호

김달출

김성일

김세원

김은영

김인수

김인철

박만영

신영철

이상호

이춘근

이형조

임치원

장영은

정일근

채윤희

허령

허철

사무국장

오만석

프로그램

최선희

부국장

박해우

프로그램팀

유정화

유선아

이서하

최희진

이나경

신지숙

김혜원

홍보팀

김진희

김용진

전민영

최다슬

사업팀

하주

공지훈

김의중

운영팀

박동우

방소현

최혜미

기술

진미디어

씨네랜드

스크리닝 매니저

박성림

박종호

최수훈

최길용

자막가

김빈

김진숙

송혜원

오윤지

오혜선

윤보라

번역가

김연진

김영지

김화영

박서진

박재인

배은미

이다희

이보경

이선화

이성희

이시라

임재영

사진/영상

나우플러스레이터

트라이앵글픽처스

애드진 프로덕션

다뷰스튜디오

Chairman of Organizing Committee
SHIN Jangyul

Festival Director
PARK Jaedong

Committee Members
KANG Dongjin
KWON Youngho
KIM Daljul
KIM Sungil
KIM Sewon
KIM Eunyong
KIM Insoo
KIM Inchul
PARK Manyong
SHIN Youngchul
LEE Sangho
LEE Choonken
LEE Hyungjo
IM Chiwon
JANG Youngeun
JUNG Ilgeun
CHAI Yoonhee
HEO Ryung
HEO Chul

Technical Team
JINMEDIA
Cine Land

Screening Manager
PARK Seonglim
PARK Jonghyo
CHOI Soohoon
CHOI Gilyong

Subtitle Spotter
KIM Bin
KIM Jinsook
SONG Hyewon
OH Yunji
OH Hyesun
YUN Bora

Subtitle Translator
KIM Younjin
KIM Youngji
KIM Hwayoung
PARK Seojin
PARK Jaein
BAE Eunmi
LEE Dahee
LEE Bokyoung
LEE Sunhwa
LEE Sunghae
LEE Syra
LIM Jaeyoung

Program Team
RYOO Jeonghwa
YU Seonah
LEE Seoha
Iveta COHI
LEE Nagyeong
Jisook Gemma SHIN
KIM Hyewon

Publicity Team
KIM Jinhee
KIM Yongjin
JEON Minyoung
CHOI Dasle

자원활동가 옴트리 Volunteer UMFFtree

프로그램	Program Team		
강도위	KANG Dowee	우세훈	WOO Saecheon
강미선	KANG Miseon	유시온	YOU Sion
강서영	KANG Seoyoung	윤성준	YUN Sungjun
고봉준	KO Bongjun	윤수정	YUN Soojung
공혜림	KONG Hyeelim	윤창식	YUN Changsik
구도현	KOO Dohyeon	윤태규	YUN Taekyu
권기호	KWON Giho	이다경	LEE Dakyung
권보라	KWON Bora	이도우	LEE Dowoo
김경민	KIM Kyungmin	이동준	LEE Dongjun
김경은	KIM Kyungeun	이선혜	LEE Seonhye
김규리	KIM Kyuri	이세인	LEE Saein
김민규	KIM Minkyu	이소명	LEE Somyeong
김연옥	KIM Yunok	이송희	LEE Songhee
김윤석	KIM Yunsuk	이수경	LEE Sookyung
김은정	KIM Eunjung	이수빈	LEE Soobin
김은지	KIM Eunji	이아름	LEE Ahreum
김지민	KIM Jimin	이아영	LEE Ahyoung
김지영	KIM Jiyeong	이아현	LEE Ahyeon
김지은	KIM Jieun	이유정	LEE Yujung
김지훈	KIM Jihun	이유정	LEE Youjung
김진권	KIM Jingwon	이윤지	LEE Yunji
김채윤	KIM Cheyun	이인영	LEE Inyoung
김철	KIM Chul	이지연	LEE Jiyun
김현우	KIM Hyunwoo	이지은	LEE Jieun
김홍은	KIM Hongeun	이하은	LEE Haeun
김희수	KIM Heesu	이형주	LEE Hyungju
남언수	NAM Eonsu	이호빈	LEE Hyobin
모지연	MO Jiyun	이희리	LEE Heeri
문재원	MOON Jaewon	임대환	LIM Daehwan
문현정	MOON Hyunjoung	임우진	LIM Woojin
문형기	MOON Hyunki	임지수	LIM Jisoo
박기쁨	PARK Kippum	임지원	IM Jiwon
박남준	PARK Namjun	임지홍	LIM Jihong
박보름	PARK Boreum	임현숙	LIM Hyunsuk
박상욱	PARK Sangwook	장민정	JANG Minjeong
박선혜	PARK Sunhei	장주호	JANG Juho
박재준	PARK Jaejun	장홍로	JANG Hongro
박지효	PARK Jihyo	전성현	JEON Sunghyun
박찬영	PARK Chanyeong	전혜진	JEON Haejin
박호주	PARK Hyoju	정성욱	JUNG Seungwook
방설희	BANG Seulhee	정여원	JUNG Yeowon
백수정	BAEK Soojung	정유진	JOUNG Yujin
변희정	BYUN Heejung	정은서	JUNG Eunseo
송유림	SONG Yurim	정찬영	JUNG Chanyup
송채림	SONG Chaelim	정혜지	JUNG Hyeji
안소정	AHN Sojung	제현정	JEA Hyunjeong
안정법	AHN Jungbub	조민경	CHO Minkyung
안홍기	AHN Hongki	조성연	CHO Sungyun
양성련	YANG Sangryun	조은샘	CHO Eunsaeam
양유정	YANG Youjung	조이영	CHO Eyoung
오영훈	OH Younghoon	조창우	CHO Changwoo
오지원	OH Jiwon	조혜란	JO Hyeran
		조희수	CHO Heesoo

지혜인	Jl Hyeein
진세라	JIN Sera
진소영	JIN Soyoung
최명지	CHOI Myeongji
최수빈	CHOI Subin
최은진	CHOI Eunjin
최은혜	CHOI Eunhye
최종필	CHOI Jongpil
최지현	CHOI Jihyun
최하린	CHOI Harin
최현지	CHOI Hyeonji
추이삭	CHU Eisak
추호성	CHU Hosung
하민지	HA Minji
하지운	HA Jiwoon
하지혜	HA Jihei
한수현	HAN Suhyun
한유경	HAN Yukyung
한제환	HAN Jehwan
한주연	HAN Juyeon
한효림	HAN Hyolim
함석주	HAM Suckju
홍준혁	HONG Junhyuk
홍현빈	HONG Hyunbin
황귀현	HWANG Kwihyun
황도연	HWANG Doyun
황순하	HWANG Soonha
황영승	HWANG Yeongsung
황옥희	HWANG Okhee
황진호	HWANG Jinho

홍보팀	Publicity Team
강성구	KANG Sungkoo
강혜수	KANG Hyesoo
김민정	KIM Minjung
김연석	KIM Yunsuk
김현미	KIM Hyunmi
김혜란	KIM Hyeran
서예슬	SEO Yaeseul
송명호	SONG Myungho
안환규	AHN Hwankyuu
이은주	LEE Eunju
이정락	LEE Jungrak
이하영	LEE HaeYoung
정상빈	JUNG Sangbin
정소영	JUNG Soyeong
최윤하	CHOI Yunha
황지연	HWANG Jiyeon

사업팀	Event Team
가소연	KA Soyeon
강래현	KANG Raehyun
강수빈	KANG Soobin

자원활동가 옴트리 Volunteer UMFFtree

강예림	KANG Yelim
강지예	KANG Jiye
강혜지	KANG Hyeji
공현주	KONG Hyunju
곽동원	KWAK Dongwon
곽기정	KOO Gwiyeong
권수진	KWON Soojin
권준혁	KWON Junhyuk
권효민	KWON Hyomin
기민주	KI Minju
김가영	KIM Kayeong
김다운	KIM Dawoon
김다정	KIM Dajung
김도연	KIM Doyun
김명주	KIM Myungjoo
김명지	KIM Myungji
김미래	KIM Mirae
김민경	KIM Minkyung
김민재	KIM Minjae
김서영	KIM Seoyeong
김세영	KIM Saeyoung
김수미	KIM Sumi
김승후	KIM Seunghu
김영환	KIM Yungwan
김예림	KIM Yerim
김예림	KIM Yealim
김은령	KIM Eunryung
김은아	KIM Eunah
김은종	KIM Eunjong
김제민	KIM Jaemin
김주아	KIM Juah
김지연	KIM Jiyeon
김지은	KIM Jieyn
김지은	KIM Jieun
김지현	KIM Jihyun
김진범	KIM Jinbum
김채린	KIM Cherin
김현주	KIM Hyunju
김혜빈	KIM Hyebin
김혜은	KIM Hyeoon
노주희	NO Juhee
동예란	DONG Yeiran
박경주	PARK Kyungju
박나영	PARK Nayoung
박미나	PARK Mina
박수현	PARK Soohyun
박시형	PARK Sihyung
박신아	PARK Shinah
박은정	PARK Eunjung
박재한	PARK Jaehan
박정현	PARK Junghyun
박종원	PARK Jongwon

박지영	PARK Jiyoung
박지향	PARK Jihyang
박진희	PARK Jinhee
박희주	PARK Heeju
방한상	BANG Hansang
배수연	BAE Sooyun
배수완	BAE Soowan
복순애	BOK Soonea
서민진	SEO Minjin
서석빈	SEO Sukbin
성지혜	SUNG Jihye
손량희	SON Ryanghee
손유림	SON Yurim
손지은	SON Jieun
송다영	SONG Dayoung
송만희	SONG Manhee
송미정	JANG Minjeong
송소현	SONG Sohyeon
송승민	SONG Seongmin
신가현	SHIN Kahyun
신승욱	SHIN Sungok
신은영	SHIN Eunyong
안아연	AHN Ahyun
안예지	AHN Yeji
안은영	AHN Eunyung
안태경	AHN Taekyung
엄연진	UHM Eum
염윤희	YEOM Yunhui
오승미	OH Seongmi
오시은	OH Sieun
오우정	OH Woojung
오진선	OH Jinsun
우원철	WOO Woncheol
원다혜	WON Daehye
원정유	WON Jungyu
윤복순	YUN Boksoon
이다건	LEE Dakun
이동우	LEE Dongwoo
이동현	LEE Donghyeon
이득기	LEE Daecki
이상록	LEE Sanglok
이세정	LEE Seisung
이수진	LEE Soojin
이승호	LEE Seungho
이아진	LEE Ahjin
이유나	LEE Yuna
이유림	LEE Youlim
이윤정	LEE Yunjung
이지서	LEE Jiseo
이지유	LEE Jiyu
이지은	LEE Jieun
이혜민	LEE Hyemin
이효린	LEE Hyorin

임제영	LIM Jaeyeong
장다겸	JANG Dakyum
전미하	JEON Miha
전우진	JEON Woojin
정다정	JUNG Dajung
정소미	JUNG Somi
정수빈	JUNG Soobean
정현우	JUNG Hyunwoo
조미서	CHO Miseo
조세린	CHO Saelin
조유진	CHO Yujin
조제민	CHO Jaemin
조홍래	CHO Hongrye
주승현	JOO Seunghyun
주지혜	JU Jihye
지정민	Jl Jeongmin
채정운	CHAE Jeongyun
최규리	CHOI Kyuri
최수진	CHOI Soojin
최윤정	CHOI Yunjung
최재진	CHOI Jaejin
최혜림	CHOI Hyeelim
최혜미	CHOI Hyemi
최혜진	CHOI Hyejin
최희진	CHOI Leejin
하경화	HA Kyunghwa
하주영	HA Juyoung
한채정	HAN Chaejeong
허나균	HUH Nakyun
홍지애	HONG Jiea
홍현택	HONG Hyuntaek
황지은	HWANG Jieun
황혜영	HWANG Hye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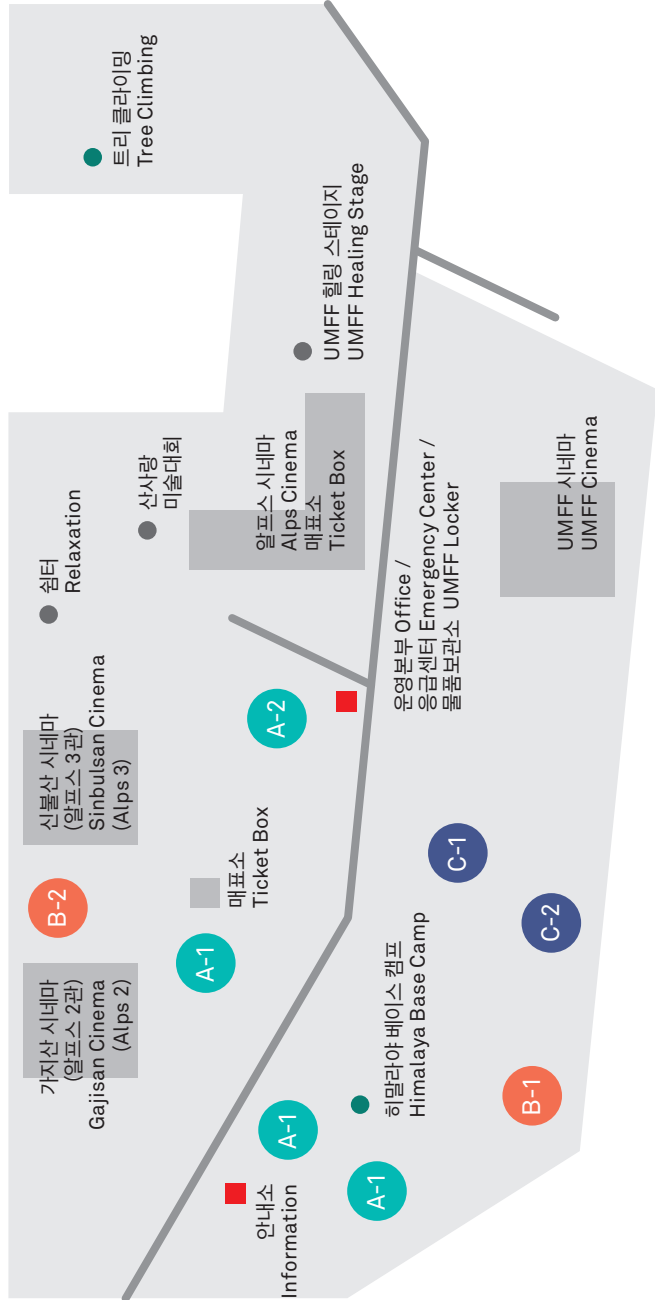
운영팀	Operation Team
김은정	KIM Eunjung
노상훈	NO Sanghoon
박예선	PARK Yeasun
성영욱	SUNG Yeongok
이소연	LEE Soyeon
이영은	LEE Yeongeun
이주홍	LEE Juhong
조광석	CHO Kwangsuik
정기영	JEON Kiyeong
정은희	JUNG Eunhee
정지은	JUNG Jieyn
조제윤	CHO Jaeyun
최순옥	CHOI Soonok
최현주	CHOI Hyunju
황미경	HWANG Mikyung

자원활동가 옴트리 VOLUNTEER UMFFTREE

자원활동가 옴트리 VOLUNTEER UMFFTREE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Yeongnam Alps Complex Welcome Center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 온천5길 103-8
Alpsoncheon 5gil 103-8, Sangbuk-myeon, Ulju-gun, Ulsan



- A-1** 플리마켓 (마거리) **Flea Market Zone** Flea Market (Food)
- A-2** 플리마켓 (채합) **Flea Market Zone** Flea Market (Experience)
- B-1** **전시존** UMFF 책마루, UMFF 미디어 교실전, 영남알프스 대추전, 라인홀트 매스너전, 세계 산악영화제 포스터전
- B-2** **전시존** UMFF 미디어 교실전, 영남알프스 대추전, 라인홀트 매스너전, 세계 산악영화제 포스터전
- C-1** **푸드존** 푸드트럭, 푸드코트
- C-2** **푸드존** 푸드트럭, 푸드코트

오시는길 Traffic Information

- 차** 서울경부고속도로 → 울산 (5시간 5분 소요)
- 버스** 동서울터미널 → 언양버스터미널 (4시간 30분 소요)
- KTX** 서울역 → 울산역 (2시간 20분 소요)
- Car** Gyeongbu Expressway → Ulsan
- Bus** Dong Seoul Terminal → Eonyang Express Bus Terminal
- KTX** Seoul Station → Ulsan Station

셔틀버스 시간표 Shuttle Bus Time Schedule

9.30 금 Fri - 10.4 화 Tue 편도 운행시간 약 20분 소요 Takes about 20 minutes each way,

작천정 입구 ↔ 복합웰컴센터(울주세계산악영화제) 09:00-22:00
Entrance of Complex Welcome Center (UMFF) (수시운행 Often)

9.30 금 Fri - 10.3 월 Mon 편도 운행시간 약 1시간 30분 소요 Takes about 1h 30m each way

출발 From	→				도착 To
복합웰컴센터(울주세계산악영화제) Complex Welcome Center(UMFF)	작천정 입구 Entrance of Jakcheonjeong	언양시외버스터미널 Eonyang Express Bus Terminal	울산역 (KTX) Ulsan Station (KTX)	태화강공원(처용문화제) Taehwa River Park (Cheoyong Culture Festival)	
11:00	11:20	11:30	11:55	12:30	
12:00	12:20	12:30	12:55	13:30	
13:00	13:20	13:30	13:55	14:30	
14:00	14:20	14:30	14:55	15:30	
15:00	15:20	15:30	15:55	16:30	
16:00	16:20	16:30	16:55	17:30	
17:00	17:20	17:30	17:55	18:30	
18:00	18:20	18:30	18:55	19:30	
19:00	19:20	19:30	19:55	20:30	
20:00	20:20	20:30	20:55	21:30	
21:00	21:20	21:30	21:55	22:30	
22:00	22:20	22:30			

9.30 금 Fri - 10.3 월 Mon 편도 운행시간 약 1시간 30분 소요 Takes about 1h 30m each way

출발 From	→				도착 To
태화강공원(처용문화제) Taehwa River Park (Cheoyong Culture Festival)	울산역 (KTX) Ulsan Station (KTX)	언양시외버스터미널 Eonyang Express Bus Terminal	작천정 입구 Entrance of Jakcheonjeong	복합웰컴센터(울주세계산악영화제) Complex Welcome Center(UMFF)	
11:00	11:35	12:00	12:10	12:30	
12:00	12:35	13:00	13:10	13:30	
13:00	13:35	14:00	14:10	14:30	
14:00	14:35	15:00	15:10	15:30	
15:00	15:35	16:00	16:10	16:30	
16:00	16:35	17:00	17:10	17:30	
17:00	17:35	18:00	18:10	18:30	
18:00	18:35	19:00	19:10	19:30	
19:00	19:35	20:00	20:10	20:30	
20:00	20:35	21:00	21:10	21:30	
21:00	21:35	22:00			
22:00		23:00			
23:00		00:00			

문의 052-248-6450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팀

상영관 운영 안내

- 모든 상영관은 티켓 소지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단, UMFF 시네마는 비지정 좌석제로 티켓 발권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 정시상영으로 입장은 상영 시작 후 5분까지 허용합니다.
- 영화 상영 중 이동 및 재입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영상 촬영은 불가합니다.
- 쾌적한 영화 관람을 위해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
- 상영작 관람등급에 따라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티켓 안내

티켓가격

무료 (온라인 예매 시 장당 500원의 예매수수료 부과)

예매안내

	온라인	매표소
장소	공식홈페이지 (www.umff.kr)	알프스시네마 가지산시네마 신불산시네마
운영기간	9. 19(월)~10. 4(화)	10. 1(토)~10. 4(화)
운영시간	24시간(예매오픈부터)	09:00~21:00
결제수단	카드(신용, 체크),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비고	예매수수료 500원	

예매취소

- 온라인예매 취소 시 예매 건당 1,000원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단, 예매당일 24시 이전에 취소하시면 취소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티켓문의

- 공식홈페이지 (www.umff.kr)
- '1:1문의' 게시판
- 전화문의 052-229-8894

Theater Information

- Tickets are required at all theaters for admission except UMFF Cinema, the outdoor venue. All seats for UMFF Cinema are on first-come first-serve basis.
- Screenings will begin on time and latecomers will not be admitted into the screening beyond the first 5 minutes of the film.
- Please refrain from moving to another seat or exiting and reentering during the screenings.
- Any and all audio, video recording and/or photography is strictly prohibited at all screenings.
- Food and drinks are not allowed in the theater.
- Ratings must be strictly observed.

Ticket Information

Ticket Price

Free (Extra 500KRW is charged per ticket for online booking)

Booking Info

	Online	Ticket Box
Venue	Official Website (www.umff.kr)	Alps Cinema Gajisan Cinema Sinbulsan Cinema
Days	Sep.19(Mon)~Oct.4(Tue)	Oct.1(Sat)~Oct.4(Tue)
Hours	24 hours (After booking starts)	09:00~21:00
Payment	Bank cards (credit, check), Bank transfer Mobile payment	
Note	500 KRW of booking fee will be charged per ticket.	

Cancelation of Booking

- 1,000KRW of cancelation fee will be charged upon each cancelation of online booking.
- If the cancelation is made before the start of the day(00:00), no cancelation fee will be charged.

For more information

- By Phone 052-229-8894

상영시간표 가이드

상영시간표 보는 법

시작시간 | 상영시간 | 등급 페이지번호
상영작 국문제목 기타
 상영작 영문제목

상영관

- UC UMFF시네마
- AC 알프스시네마 (알프스 1관)
- GC 가지산시네마 (알프스 2관)
- SC 신불산시네마 (알프스 3관)

등급

- G 전체관람가
- 12 12세이상관람가
- 15 15세이상관람가
- 18 18세이상관람가

자막

- E 영어자막
- NE 영어대사 또는 영어자막 없음
- ND 대사없음

* 모든 외국어 상영작에는 한글 자막이 지원됩니다.

기타

- GV 관객과의 대화
- SL 특별 강연

*GV 일정은 게스트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Screening Schedule Guide

How to Read

Start Time | Running Time | Rate Page
Title (Korean) Number
 Title (English) Etc

Theaters

- UC UMFF Cinema
- AC Alps Cinema (Alps 1)
- GC Gajisan Cinema (Alps 2)
- SC Sinbulsan Cinema (Alps 3)

Rate

- G General
- 12 Under 12 not admitted
- 15 Under 15 not admitted
- 18 Under 18 not admitted

Subtitle

- E English Subtitle
- NE English Dialogue or No English Subtitle
- ND No Dialogues

* All non-Korean dialogue films are subtitled in Korean

Etc

- GV Guest Visit
- SL Special Lecture

* GV schedules can be changed without prior notice depending on guest's schedules.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10.2 Sun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SC	11:00 90min 37p 골든게이트 Golden Gate	11:00 90min 53p 틀판금지 Prohibido Escalar	11:00 90min 51p 아프리카 퓨전 Africa Fusion	14:00 90min 54p 울렁도 Ullung, Island	14:00 90min 62p 다크라이트 Darklight	14:00 90min 54p 볼더링 BoulderTing	14:00 90min 62p 다큐 유어셀프 Docu Yourself Chapter 8. High	14:00 90min 35p 함께는 있다 Reach Your Limits	15:00 102min 37p 눈송이 Snowflake	15:00 102min 63p 바람의 선율 Hangers and Violin Strings in Pakistan	15:00 102min 64p 트레일 엔젤 Trail Angel	15:00 102min 39p 드날리 Denali	15:00 102min 60p 화산 속으로 Spitting Distance
	10:00 93min 40p 소중한 순간들 The Important Places	10:00 93min 28p 고독한승리 The Great Alone	12:30 86min 73p 에픽 오브 에베레스트 The Epic of Everest	14:00 90min 54p 울렁도 Ullung, Island	14:00 90min 62p 다크라이트 Darklight	14:00 90min 54p 볼더링 BoulderTing	14:00 90min 62p 다큐 유어셀프 Docu Yourself Chapter 8. High	14:00 90min 35p 함께는 있다 Reach Your Limits	15:00 102min 37p 눈송이 Snowflake	15:00 102min 63p 바람의 선율 Hangers and Violin Strings in Pakistan	15:00 102min 64p 트레일 엔젤 Trail Angel	15:00 102min 39p 드날리 Denali	15:00 102min 60p 화산 속으로 Spitting Distance
GC	10:00 93min 40p 소중한 순간들 The Important Places	10:00 93min 28p 고독한승리 The Great Alone	12:30 86min 73p 에픽 오브 에베레스트 The Epic of Everest	14:00 90min 54p 울렁도 Ullung, Island	14:00 90min 62p 다크라이트 Darklight	14:00 90min 54p 볼더링 BoulderTing	14:00 90min 62p 다큐 유어셀프 Docu Yourself Chapter 8. High	14:00 90min 35p 함께는 있다 Reach Your Limits	15:00 102min 37p 눈송이 Snowflake	15:00 102min 63p 바람의 선율 Hangers and Violin Strings in Pakistan	15:00 102min 64p 트레일 엔젤 Trail Angel	15:00 102min 39p 드날리 Denali	15:00 102min 60p 화산 속으로 Spitting Distance
	17:00 94min 53p 그리고 우리 Always above Us	17:00 94min 43p 호스슈 목장의 무법자들 Showdown at Horseshoe Hell	17:00 94min 49p 남극의 드림팀 The Last Great Climb	17:00 94min 53p 그리고 우리 Always above Us	17:00 94min 62p 다크라이트 Darklight	17:00 94min 54p 볼더링 BoulderTing	17:00 94min 62p 다큐 유어셀프 Docu Yourself Chapter 8. High	17:00 94min 35p 함께는 있다 Reach Your Limits	17:30 81min 46p 오르다 Ascension	17:30 81min 33p 유렉 Jurek			

10.3 Mon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UC	10:00 90min 41p 카스카고리 Kaxkagorri	10:00 90min 70p 모락 할매 Calleach	10:00 90min 38p 더 플레이스 The Place	10:00 90min 31p 스토리 오브 안나푸르나 Story of Annapurna	13:00 100min 71p 그림란드 Shifting Ice + Changing Tides	13:00 100min 29p 구름 위의 사무엘 Samuel in the Clouds	14:00 96min 41p 이클립스 Eclipse	14:00 96min 70p 서퍼 The Coast	14:00 96min 63p 칸츨리 바이커 Mountain Bikes and Bothy Nights	14:00 96min 58p 윙맨 Wingmen	15:00 104min 74p 운명의 산-낭가파르бат Nanga Parbat	19:30 85min 45p E.B.C. 5300m I-View I-View	19:30 85min 32p 어크로스 더 스카이 A Line Across the Sky
	10:00 90min 41p 카스카고리 Kaxkagorri	10:00 90min 70p 모락 할매 Calleach	10:00 90min 38p 더 플레이스 The Place	10:00 90min 31p 스토리 오브 안나푸르나 Story of Annapurna	13:00 100min 71p 그림란드 Shifting Ice + Changing Tides	13:00 100min 29p 구름 위의 사무엘 Samuel in the Clouds	14:00 96min 41p 이클립스 Eclipse	14:00 96min 70p 서퍼 The Coast	14:00 96min 63p 칸츨리 바이커 Mountain Bikes and Bothy Nights	14:00 96min 58p 윙맨 Wingmen	15:00 104min 74p 운명의 산-낭가파르бат Nanga Parbat	19:30 85min 45p E.B.C. 5300m I-View I-View	19:30 85min 32p 어크로스 더 스카이 A Line Across the Sky
SC	11:00 89min 42p 크리스 보닝턴의 삶과 등반 Chris Bonington - Life and Climbs	11:00 89min 34p 툼 Tom	12:30 81min 81p 우리들의 영화 We Make U.M.F.F	14:00 96min 41p 이클립스 Eclipse	14:00 96min 70p 서퍼 The Coast	14:00 96min 63p 칸츨리 바이커 Mountain Bikes and Bothy Nights	14:00 96min 58p 윙맨 Wingmen	15:00 104min 74p 운명의 산-낭가파르bat Nanga Parbat	17:00 100min 43p 파나로마 Panorama	17:00 100min 55p 하이&마이티 High&Mighty	17:00 100min 50p 빛을 따라서 Into the Light		
	11:00 89min 42p 크리스 보닝턴의 삶과 등반 Chris Bonington - Life and Climbs	11:00 89min 34p 툼 Tom	12:30 81min 81p 우리들의 영화 We Make U.M.F.F	14:00 96min 41p 이클립스 Eclipse	14:00 96min 70p 서퍼 The Coast	14:00 96min 63p 칸츨리 바이커 Mountain Bikes and Bothy Nights	14:00 96min 58p 윙맨 Wingmen	15:00 104min 74p 운명의 산-낭가파르bat Nanga Parbat	17:00 100min 43p 파나로마 Panorama	17:00 100min 55p 하이&마이티 High&Mighty	17:00 100min 50p 빛을 따라서 Into the Light		
GC	10:00 98min 57p 내 친구 나누크 The Journey Home	10:00 98min 57p 내 친구 나누크 The Journey Home	12:30 81min 81p 우리들의 영화 We Make U.M.F.F	14:00 96min 41p 이클립스 Eclipse	14:00 96min 70p 서퍼 The Coast	14:00 96min 63p 칸츨리 바이커 Mountain Bikes and Bothy Nights	14:00 96min 58p 윙맨 Wingmen	15:00 104min 74p 운명의 산-낭가파르bat Nanga Parbat	17:30 90min 25p 메루 Meru	17:30 90min 25p 메루 Meru			
	10:00 98min 57p 내 친구 나누크 The Journey Home	10:00 98min 57p 내 친구 나누크 The Journey Home	12:30 81min 81p 우리들의 영화 We Make U.M.F.F	14:00 96min 41p 이클립스 Eclipse	14:00 96min 70p 서퍼 The Coast	14:00 96min 63p 칸츨리 바이커 Mountain Bikes and Bothy Nights	14:00 96min 58p 윙맨 Wingmen	15:00 104min 74p 운명의 산-낭가파르bat Nanga Parbat	17:30 90min 25p 메루 Meru	17:30 90min 25p 메루 Meru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10.4 Tue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UC	10:00 58min 67p 맨업 Man Up	11:00 84min 53p 그리고 우리 Always above Us	13:00 106min 71p 크로거 식당 Kroger's Canteen	14:00 94min 40p 빅맨 Big Men	15:00 93min 40p 중요한 순간들 The Important Places	16:00 90min 54p 울릉,도 Ullung, Island	17:00 90min 37p 골든게이트 Golden Gate	18:00 폐막식 Closing Ceremony	19:30 폐막작 Closing Film			
	10:00 58min 67p 맨업 Man Up									11:00 84min 53p 그리고 우리 Always above Us	13:00 106min 71p 크로거 식당 Kroger's Canteen	14:00 94min 40p 빅맨 Big Men
AC	다섯 번째 계절 The Newly Coming Seasons	홀슈 목장의 무법자들 Showdown at Horseshoe Hell	호랑이 그리기 Drawing the Tiger	모팻과 나 Operation Moffat	제임스 피어슨 이야기 James Pearson Story	다크라이트 Darklight	등반금지 Prohibido Escalar					
	다섯 번째 계절 The Newly Coming Seasons	홀슈 목장의 무법자들 Showdown at Horseshoe Hell	호랑이 그리기 Drawing the Tiger	모팻과 나 Operation Moffat	제임스 피어슨 이야기 James Pearson Story	다크라이트 Darklight	등반금지 Prohibido Escalar					
SC	괴물 포포스세 An Adventure of Fear	남극의 드림팀 The Last Great Climb	13:00 92min 42p 쿠냐양 초허시 동봉 First Ascent - Kunyang Chhish East	14:00 94min 40p 빅맨 Big Men	15:00 93min 40p 중요한 순간들 The Important Places	볼더팅 BoulderTing	아프리카 퓨전 Africa Fusion					
	괴물 포포스세 An Adventure of Fear	남극의 드림팀 The Last Great Climb	13:00 92min 42p 쿠냐양 초허시 동봉 First Ascent - Kunyang Chhish East	14:00 94min 40p 빅맨 Big Men	15:00 93min 40p 중요한 순간들 The Important Places	볼더팅 BoulderTing	아프리카 퓨전 Africa Fusion					
GC	가망이 Noir	11:00 84min 53p 그리고 우리 Always above Us	13:00 106min 71p 크로거 식당 Kroger's Canteen	14:00 94min 40p 빅맨 Big Men	15:00 93min 40p 중요한 순간들 The Important Places	다큐 유아셀프 Docu Yourself. Chapter 8. High!	한계는 있다 Reach Your Limits					
	가망이 Noir	11:00 84min 53p 그리고 우리 Always above Us	13:00 106min 71p 크로거 식당 Kroger's Canteen	14:00 94min 40p 빅맨 Big Men	15:00 93min 40p 중요한 순간들 The Important Places	다큐 유아셀프 Docu Yourself. Chapter 8. High!	한계는 있다 Reach Your Limits					
GC	두 소년의 시간 The Time of Two Boys	11:00 84min 53p 그리고 우리 Always above Us	13:00 106min 71p 크로거 식당 Kroger's Canteen	14:00 94min 40p 빅맨 Big Men	15:00 93min 40p 중요한 순간들 The Important Places	고독한 승리 The Great Alone						
	두 소년의 시간 The Time of Two Boys	11:00 84min 53p 그리고 우리 Always above Us	13:00 106min 71p 크로거 식당 Kroger's Canteen	14:00 94min 40p 빅맨 Big Men	15:00 93min 40p 중요한 순간들 The Important Places	고독한 승리 The Great Alone						
GC	오르다 Ascension	11:00 84min 53p 그리고 우리 Always above Us	13:00 106min 71p 크로거 식당 Kroger's Canteen	14:00 94min 40p 빅맨 Big Men	15:00 93min 40p 중요한 순간들 The Important Places	고독한 승리 The Great Alone						
	오르다 Ascension	11:00 84min 53p 그리고 우리 Always above Us	13:00 106min 71p 크로거 식당 Kroger's Canteen	14:00 94min 40p 빅맨 Big Men	15:00 93min 40p 중요한 순간들 The Important Places	고독한 승리 The Great Alone						
GC	유렉 Jurek	11:00 84min 53p 그리고 우리 Always above Us	13:00 106min 71p 크로거 식당 Kroger's Canteen	14:00 94min 40p 빅맨 Big Men	15:00 93min 40p 중요한 순간들 The Important Places	고독한 승리 The Great Alone						
	유렉 Jurek	11:00 84min 53p 그리고 우리 Always above Us	13:00 106min 71p 크로거 식당 Kroger's Canteen	14:00 94min 40p 빅맨 Big Men	15:00 93min 40p 중요한 순간들 The Important Places	고독한 승리 The Great Alone						

국제경쟁 시상내역

- 대상
- 알피니즘 작품상
- 클라이밍 작품상
- 모험과 탐험 작품상
- 자연과 사람 작품상
- 심사위원 특별상
- 관객상

International Competition Awards

Grand Prize	20,000,000 KRW
Best Alpinism Film	5,000,000 KRW
Best Climbing Film	5,000,000 KRW
Best Adventure & Exploration Film	5,000,000 KRW
Best Nature & People Film	5,000,000 KRW
Special Jury Prize	5,000,000 KRW
Audience Award	5,000,000 KRW

국제경쟁 심사위원

버나데트 맥도날드
버나데트 맥도날드는 밴프산악문화센터의 창립자이며 산악 문화와 등산에 관련된 10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또한 그녀는 보드맨 태스카 상, 밴프 그랑프리, 미국 알파인 클럽상, 케쿠 나오로지상 등을 수상했다. 버나데트는 집필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등반, 하이킹, 스키, 카누 등을 즐긴다.

International Competition Jury

Bernadette MCDONALD
Bernadette Mcdonald is the founder of The Banff Centre for Mountain Culture and has authored ten books on mountain culture and mountaineering. Among her many awards are: Boardman Tasker, Banff Grand Prize, American Alpine Club Award and Kekoo Naoroji Award. When not writing, She climbs, hikes, skis and paddles.



하비에르 바라야사라
1961년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빌바오에서 태어난 하비에르 바라야사라는 35년 이상 경력의 열정적이고 숙련된 등반가이다. 카메라맨인 동시에 편집자이자 감독인 그는 전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등반과 알피니즘에 대한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왔다. 빌바오산악영화제의 창립자이자 집행위원장이기도 하다.

Javier BARAYAZARRA
Born in Bilbao, Basque Country, 1961. He is a skilled climber with more than 35 years of mountain experience, a passion he needs to transmit. As a cameraman, editor and director, he has produced shorts and documentaries about climbing and alpinism in all continents. He founded and is the director of Bilbao Mendi Film Festival.



마르코 프레티
1956년생 마르코 프레티는 K2 북벽을 무산소로 등정했을 정도로 한때 성공적인 등반가였다. 그의 16mm 단편영화 <오세미티 살라테월>(1978)은 대학 시절 논문으로 제출된 작품이다. 국가대표 스키 강사이자 고산 가이드였던 그는 영화제작을 위해 등반을 그만두었다. 현재 디스커버리 채널과 ESPN 등에서 일하고 있다.

Marco PRETI
Born in 1956, Marco Preti was one of the most complete climbers, topping K2 North face with no oxygen. His first short movie in 16mm *Salathè Wall, Yosemite*(1978) was also a thesis at the University. Ski National instructor and alpine guide, decided to leave the mountaineering for filmmaking. He works for Discovery Channel and ESPN.



김은영

추계예술대학교 문학영상대학 영상비즈니스과 교수이자,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추진위원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영상사업단에서 영화 사업을 기획하고 영화투자를 담당했으며, 미국 리젠시 프로덕션이 제작한 <미라>(2008)의 공동 프로듀서, <뜨거운 것이 좋아>(2007), <사랑나>(2005), <거울 속으로>(2003) 등을 제작했다. 『영화 비즈니스 입문』(2014)과 『영화 카피』(2015)의 저자이며, 『로셀리니의 이탈리아 여행』(1953 분석)(2011) 등 다수의 논문을 썼다.

KIM Eunyong

Kim Eunyong is a professor at the College of Literature and Visual Communications of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in Film and Entertainment Business and a Committee member a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he planned film business at Samsung Electronics. She co-produced *Mirrors* (2008) and produced *Hellcats, I Like It Hot*(2007), *Blossom Again*(2005) and *Into The Mirror*(2003). She authored *Introduction to Film Business*(2014) and *Cinema Copies*(2015) and wrote many theses including "Analysis of Rossellini's Journey to Italy(1953)" (2011).



조민수

1965년생, 배우 조민수는 1986년 이래 TV와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연기 활동을 해왔으며 69회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영화 <피에타>에서 열연하여, 판타스포르토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같은 해 대중상, 영화평론가협회상에 이어 올해의 영화상 등에서 여우주연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2014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심사위원, 2015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심사위원, 2016년 들꽃영화상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CHO Minsoo

Born in 1965, Cho Minsoo has constantly been active on TV and screen since 1986. She starred in *Pieta*, the winner of Leone d'oro at 69th Venice Film Festival, and won the Best Actress award at Opor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Grand Bell Awards, The Korean Association of Film Critics Awards and KOFRA Film Awards. She was a jury member at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in 2014, Jecheon International Music Film Festival in 2015 and Wild Flower Film Awards in 2016.



김인수

현재 충남영상위원회 위원장. ㈜시네마서비스의 영화산업본부 전무, 부사장,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정글스토리>, <넘버3>, <닥터K> 등을 제작하고 <살미도>와 <왕의 남자> 등 수십 편의 한국영화의 투자, 제작, 배급을 맡았다. <반지의 제왕>시리즈 등 많은 외화수입과 배급에도 참여하였다.

KIM Insoo

He is the director of Chungcheongnamdo Film Council. He was previously an executive director, the vice president and the representative of Cinema Service and worked as the executive secretary of KOFIC. He produced *Jungle Story*, *No. 3* and *Doctor K*. and was in charge of investm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ens of other films including *Silmido*, *King And The Clown* as well as distribution of foreign films such as *The Lord of the Rings*.



맹수진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다큐멘터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 「무비위크」 스태프 평론가 등을 역임했다. 전주국제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EBS국제다큐영화제 프로그래머를 거쳐 현재 서울환경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MAENG Soo-jin

She studied English education at Korea University and received a Ph.D. degree in documentary study at Dongguk University. She has served as an operation committee member of Association of Korean Independent Film & Video, an 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and a staff critic of *Movie Week*. She was a programmer of JIFF, DMZ Docs and EIDF and currently is a programmer of GFFIS.



오성윤

애니메이션 영화감독이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오돌또기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했다. 2011년 개봉한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감독 데뷔했으며 2012년 개봉한 극영화 <26년>의 애니메이션을 연출했다. 현재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언더독>을 제작 중이다.

OH Sung-yun

He is an animation director and the representative of Odolttogi Inc. He graduated from college of fine ar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Western Painting. He debuted as a director with *Leafie, A Hen into the World* in 2011 and also directed the animation part of *26 Years*. He is presently producing *Underdog*, a theatrical feature animation.



김형석

1971년생.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영화과 수료. 영화 전문지 「무비위크」 기자와 「스크린」 편집장을 거쳐 현재 영화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네이버 영화 CP(콘텐츠 프로바이더)이며, 「매거진 M」, 「맥스무비」, 「비온드」, 「일요신문」 등에 기고 중이다.

이인성

74년 서울 출생으로 울주서밋 2015 작품 <오월>의 감독이다. 2001년 단편 영화 <오후>의 각본, 연출을 맡아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필름경쟁부문 네티즌이 뽑은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각본, 연출, 촬영을 맡았던 단편 영화 <이십원>으로 무비제미로 애드무비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진숙

㈜영화사하얼빈 대표. 2000년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의 제작 책임으로 영화계에 데뷔. <여섯 개의 시선>, <요가학원> 등 다수의 작품에서 기획/프로듀서로 일했으며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을 제작했다. 현재 기획 및 공동제작을 맡은 <밀정>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최선희

동국대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전주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영화진흥위원회,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서 일했다. 2014년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준비단 기획팀을 시작으로 울주와 처음 인연을 맺었고, 현재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최유진

역사와 문화연구를 공부하였으나, 우연히 애니메이션과 인연을 맺어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및 인디애니페스트 영화제 사무국장으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독립애니메이션 배급 및 각종 상영회 프로그램 기획,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과 애니메이션 산업백서 필진 등 독립애니메이션과 관련한 활동을 꾸준히 만들고 키워나가고 있다.

KIM Hyungseok

Born in 1971, he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in history and majored film studies at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He was a writer at *Movie Week* and an editor at *Screen* and now is a film journalist. Working as a content provider at Naver Movie, he also contributes to *Magazine M*, *Max Movie*, *Beyond* and *Ilyo Sinmun*.

LEE Inseong

Born in Seoul in 1974, he is the director of *Begin Again*, screened at Ulju Summit 2015. He wrote and directed *Afternoon*, the winner of the Best Film Award chosen by netizens at the competition section of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n 2001. *20 Won*, written, directed and shot by him, won the Grand Prix at MovieZemiro AD Movie Festival.

LEE Jinsook

She is the representative of Harbin Pictures, Inc. She was in charge of production of *Die Bad* when she started her career in the movie world. She planned and produced many films including *If You Were Me* and *Yoga Class*. She also produced *Bewitching Attraction*. A new film she planned and co-produced, *The Age of Shadows*, is about to come out.

Billy CHOI

Majored in Film Studies at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she worked at JIFF, SIWFF, KOFIC and KOBAFF. She became associated with UMFF when she began to work at the TFT, the preparation party of UMFF in 2014, and now works as a programmer of UMFF.

CHOI Yu-jin

Although she studied history and culture study, she somehow got familiar with animation by chance and she has worked as the General Manager of KIAFA and Indie-AniFest since 2006. She has been very actively working on distribution of independent animation, planning of screening programs,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grams using animation and writing for animation industry white books, for invigoration of independent animation.

메루 Meru

USA | 2015 | 90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 NE | 12



메루는 히말라야에서도 기술적으로 가장 까다롭고 위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 중앙의 직벽 삭스핀은 고산등반, 빙벽등반, 암벽등반 등 모든 등반기술을 요하는 험든 루트라 많은 산악인들의 도전이 있었음에도 아직 미답봉으로 남아 있다. 2008년 세 명의 미국 산악인들이 메루 등반에 도전한다. 50대의 콘래드 앵커는 자신의 선배이자 멘토인 더그 스템프가 끝내 이루지 못했던 꿈을 대신 이뤄주고자 후배인 지미 친, 레난 오즈투르크와 함께 등반을 시작한다. 17일의 등반 끝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정상. 하지만 기상악화로 셋은 산을 내려오는 험든 결정을 내린다. 3년 후 재도전. 막내 레난이 등반 중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기가 찾아 오지만 셋은 이에 굴하지 않고 등반을 계속한다. 목숨을 건 도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선배로부터 후배에게 전수되는 것이 단지 등반기술만이 아니라 순수한 등반정신이라는 것. 세대를 잇는 강한 연대감이 웅장한 산 메루처럼 묵직한 울림을 남긴다.

Meru is known as one of the most difficult and dangerous peak in the Himalayas. Especially the vertical wall Shark's Fin requires every climbing skill including high altitude climbing, ice climbing and rock climbing, so no one has reached the top yet. In 2008, three American climbers challenged Meru. Conrad Anker in his fifties wanted to fulfill the dream that his mentor Dugs Stump never accomplished, so he starts climbing with his younger partners Jimmy Chin and Renan Ozturk. They almost reach the top after 17 days of climbing, but they are forced to turn back due to worsening of weather. They come back to the mountain three years later. Renan meets a crisis due to a stroke, but they are willing to go on. Through the film, we can see why they cannot stop life risking climbing and not only just climbing skills but also authentic alpinism is instructed from seniors to juniors. A strong connection over generation leaves a heavy echo like Meru.

지미 친

예술과 모험의 삶을 살고 있는 지미 친은 사진작가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며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탐험가들과 촬영을 진행했다. 그의 사진은 「내셔널지오그래픽」의 표지를 장식했으며 다수의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상업광고의 촬영 및 연출을 진행했다.

엘리자베스 차이 베사헬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비교문학 학사를 취득했으며 연출작으로는 트라이베카 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한 <노멀 라이프>(2003),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촬영 부문 심사위원특별상의 <투바>(2013) 등이 있다.

Jimmy CHIN

Chin combine his career as a photographer, documentary filmmaker. His photography has graced the cover of *National Geographic* and Chin has shot and directed documentaries, television and commercial projects for The North Face, Pirelli, Apple, National Geographic, Working Title and RSA Films.

Elizabeth Choi VASARHELYI

Holds a B.A. in Comparative Literature from Princeton. Vasarhelyi's films as a director include *Youssou N'Dour: I Bring What I Love*(2009) premiered at Telluride and Toronto Film Festivals; *A Normal Life*(2003); and *Touba* which won the Special Jury Prize Best Cinematography at SXSW in 2013.

UC | 9.30 | 19:30
GC | 10.3 | 17:30

Producer

Elizabeth Choi
VASARHELYI, Jimmy CHIN,
Shannon ETHRIDGE

Cinematography

Renan OZTURK, Jimmy CHIN

Editor

Bob EINSENHARDT

Music

J. RALPH

Sound

Zikali

Cast

Conrad ANKER, Jimmy CHIN, Renan OZTURK, Jon KRAKAUER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준 높은 신작 산악영화를 상영하는 섹션으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 6대주의 40개국에서 출품된 182편 가운데 총 24편이 본선에 올랐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산악인으로 치열한 삶을 살았던 폴란드의 예지 쿠쿠츠키의 등반 인생을 예리하게 포착해 낸 <유렉>, 등반이라는 공동된 주제로 세대간의 연대를 다지는 <파나로마>와 <툼>,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클라이밍을 즐기는 젊은이들을 다룬 <홀스슈 목장의 무법자들>과 <골든게이트>를 통해서 무엇이 산악인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는가를 느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산이 평생의 삶의 터전인 사람들의 느낌의 미학, 동시에 변화하는 지구 환경에 대한 깊은 우려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올해 신설된 국제경쟁부문에는 한국영화 두 편도 포함되어 있다. 산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과장 없이 보여주는 <스토리 오브 안나푸르나>와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인생을 다룬 애니메이션 <두 소년의 시간>이다.

This section screens 24 of the latest well-made mountain films selected out of 182 films submitted from 40 countries in 6 continents, including Europe, Asia, South America and Africa. *Jurek* is a sharp outlook on the life of Poland's Jerzy Kukuczka who led a fierce life as a mountaineer while *Panaroma* and *Tom* both deal with the common theme of climbing and confirm the bond between generations. *Showdown at Horseshoe Hell* depicts youngsters who enjoy climbing in their own way and *Golden Gate* shows what makes the hearts of mountain climbers beat faster. Other works deal with the aesthetics of slowness on the part of people for whom the mountains are their lives, while others express deep concern for the environment. Also, two Korean films have made it into the newly installed International Competition section. *Story of Annapurna* demonstrates pure affection for mountains without any exaggeration and *The Time of Two Boys* is an animation about living together with nature.

K2: 보이지 않는 걸음 K2 and the Invisible Footmen

Pakistan, USA | 2015 | 54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 E | ㉔



이 다큐는 한국계 브라질인인 이아라 리 감독의 신작으로 세계 2위 봉인 K2(8,611m)를 조망하고 있다. 산악인들의 정상 등정 과정 보다는 등반가들을 돕는 포터 혹은 셰르파들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무거운 짐을 베이스캠프까지 옮기는 포터들. 마지막 마을인 궁벽한 아스콜리에서부터 발토르 빙하를 거슬러 오르는 포터들의 여정. 고봉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포터들의 힘든 카라반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없다면 고산등반은 불가능할 것이다. K2봉 옆 엔젤피크에는 무수한 추모동판들이 보인다. 그러나 포터들의 희생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This documentary, a new film directed by Iara Lee, a Korean-Brazilian director, highlights the second highest peak in the world (8,611m). This film focuses on the devotion of porters and Sherpas, who help climbers, rather than the process of climbing the mountaintop. Porters have to carry heavy baggage from base camps for family living. From the last spot, a secluded village Ascoli to Baltoro glacier, the film shows the hard journey of porters on top of the beautiful landscape. Climbers wouldn't be able to climb high peaks without them. There are a number of memorial copperplates at Angel Peak next to K2. However, no one remembers their sacrifices.

이아라 리

사회운동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이아라 리는 독특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 세계 각국의 사회운동가, 교육자, 예술가 등과 협력하며 공고한 유대관계를 도모한다. 그녀는 분쟁의 방지와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한 단편 및 장편 영화들을 제작해 왔으며, 현재는 인도주의, 문화 예술, 외교 등이 그녀의 관심사다.

Iara Lee

Iara Lee, collaborates with agitators, educators and artists around the world to build global solidarity through creative resistance and nonviolent action. Iara has produced several shorts and feature documentaries to promote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and is working on a variety of humanitarian, arts and culture diplomacy projects.

AC | 10.2 | 13:00 | GV
GC | 10.4 | 12:30 | GV

Producer
Iara LEE
Cinematography
Jawad SHARIF
Editor
Jawad SHARIF
Music
Mahdyar AGHAJANI



고독한 승리 The Great Alone

USA | 2014 | 84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NE | ㉔



GC | 10.2 | 10:00
GC | 10.4 | 15:00

Producer
Jonathan HOCK, Greg KOHS
Cinematography
Ross RIEGE
Editor
Debbie McMURTRY
Music
Craig MINOWA
Cast
Lance MACKEY, Dick
MACKEY, Kathie SMITH,
Greg HEISTER

랜스 맥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썰매 레이서. 1,049마일을 달려야 하는 아이디타로드에서 네 차례 우승컵을 거머쥔 인물이다. <고독한 승리>는 랜스 맥키를 중심으로 그의 삶과 가족과 레이스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 차례 우승의 기쁨을 안으며 알래스카를 대표하는 스포츠인이 되었지만,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고 암과 사투를 벌여야 했으며 결국 손가락 하나를 잘라내야 했다. 과거의 기록 필름과 현재의 인터뷰와 아이디타로드 경기에 임하는 맥키의 모습을 능숙한 솜씨로 엮어낸 작품. 경기견들과 함께 설원을 누비며 추위와 고독에 맞서 싸워야 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가 대자연의 장관과 함께 펼쳐진다. 높은 수준의 촬영과 편집을 만날 수 있다.

Lance Mackey is globally famous dog sledge racer. He won the cup four times at the Iditarod race, as long as 1,049 miles. *The Great Alone* is the story of Lance Mackey and about his life, family and race. He won four cups and became a sportsman representing Alaska, but his life has not been smooth. He suffered from a cancer and lost a finger. This film consists of old archive footages, present day's interview and clips of Mackey in race. This is the story of a man who had to move around magnificent snowy fields and fight the chill alone with racing dogs. Viewers can meet polished shooting and editing.

그렉 코즈

영화 제작자 그렉 코즈는 영혼이 담긴 영화,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열성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후 로저 에버트는 그의 장편영화 <Song Sung Blue>를 최고라고 극찬한 바 있다.

Greg KOHS

As a filmmaker, Greg has an interest in projects with soul, and a particular passion for those of his subjects who doggedly pursue their own passions. Greg's feature films include award-winning *Song Sung Blue*, which the late Roger Ebert hailed as "Superb".



구름 위의 사무엘 Samuel in the Clouds

Belgium, Netherlands | 2016 | 7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E | ㉔



AC | 10.1 | 10:00 | GV
AC | 10.3 | 13:00 | GV

Producer
Hanne PHLYPO
Cinematography
Johan LEGRAIE
Editor
Octavio ITURBE, Danniël
DANNIEL
Music
Karim BAGGILI
Sound
Félix BLUME, Senjan
JANSEN

온난화의 증거는 지구촌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볼리비아의 차칼타야도 그 중 한 곳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스키 리조트였지만 2000년 이후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민동산이 되었다. 그 첫 목격자는 사무엘 멘도자다. 리조트의 리프트 관리인이었던 그는 이전 등산객들과 만나야 하는 상황. 그는 그들에게 눈으로 뒤덮였던 차칼타야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언젠간 다시 눈이 내릴 거라고 기대한다. 사무엘의 일상을 따라가는 이 다큐는 자연의 변화에 의해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긴 인물을 통해 경고한다. 그것은 지구가 점점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하고 있으며,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과연 그곳에 다시 눈이 내릴 수 있을까? 간절함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구름 위의 사무엘>은 보여준다.

There are evidences of global warming everywhere in the world. Chacaltaya, Bolivia is also one of the places with the evidences. It used to have the highest ski resort in the world, but it is a bare mountain as snow has melted since 2000. Samuel Mendoza is the first witness. He was a lift manager at the resort, but now he has to greet climbers not skiers. While talking about the past of Chacaltaya, which used to be covered with snow, he expects that it will snow someday again. This documentary chases Samuel and warns us through a man who lost all of his life due to the change in nature. It tells us that the earth gradually becomes an uninhabitable place and it is not only Samuel but all of us who are in danger. Will it snow there again? *Samuel in the Clouds* shows that the problem is not so simple that we can solve it just with ardent wishes.

피터르 반 에크

1975년 벨기에 출생. 피터르 반 에크는 철학과 조소를 전공했다. 그는 현재 남미에서 영화 제작자로 지내고 있다. 아이티 지진에 대한 그의 최근 다큐멘터리 <구두구두>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TV와 영화제를 통해 소개됐다. <구름 위의 사무엘>은 그의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Pieter VAN EECKE

Born in Belgium in 1975 and studied Philosophy and Sculpture. His last documentary about the earthquake in Haiti, *Goudougoudou* was featured in vari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Samuel in the Clouds* is his first feature-length documentary.



메아리 마을 Echoes

Switzerland | 2014 | 5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E | ©



로만슈어는 알프스의 깊은 산에 둘러싸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쓰이는 언어로, 스위스의 공용어 4개 중의 하나이지만 현재는 약 6만여 명만이 사용하고 있다. 누구는 로만슈어가 바람, 날씨, 자연에 대한 단어가 풍부해서 단어가 뜻하는 대상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언어라고 하고, 또 다른 누구는 로만슈어는 마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언어도 이에 대적할 수 없다고 한다. 로만슈어는 계속 사이를 흐르며 모습을 바꾸는 시냇물처럼 굽이굽이 마을마다 조금씩 변형됐다. 그럼에도 그 언어를 통해서만 깨어나는 감정과 정서가 있고, 이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본성과 철학에 깊은 울림으로 남는다.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겐 전혀 들리지 않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 고요함, 평온함, 눈 소리가 이곳에선 들리고 또 말해진다. 지역, 공간, 사람, 언어, 음악, 문화, 철학, 이 모든 것이 연결돼있다는 걸 유려하게 표현해낸 한 편의 시 같은 영화.

Rumantsch is one of the 4 official languages of Switzerland, but it is used at a small town hidden in deep hills and only about 60 thousand people speak it. Some say it is a language that explicitly transfers the meaning of each word because it has a lot of expressions about wind, weather and nature while others say it is the greatest language since it is the language of heart. It has been changed differently at every village like a stream that touches each bending. Nevertheless, there are feelings and emotions aroused only by the language and it is engraved in the human nature and philosophy of speakers of it. Sounds, silence, calmness and sound of snow, which others cannot hear at all are heard and spoken here. This film is like a poem where the fact that area, space, people, language, music, culture and philosophy are all connected to each other is elegantly expressed.

알린 슈터

알린 슈터는 1982년, 제네바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스위스와 프랑스의 여러 영화제에서 언론 담당 비서 겸 프로그램 감독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제네바 미술디자인학교 영화과에서 근무 중이다. 2013년에는 자신의 모국어인 로만슈어에 대한 애착을 담은 단편영화 <카노르타>를 감독했다.

셀린 카히드루아

1982년 파리 출생. 셀린 카히드루아는 2008년에 고향을 떠나 브뤼셀로 간 뒤, 4년 동안 첫 작품을 만드는 데 매진했다. 2012년에는 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사를 공동설립했다. 현재는 스위스 제네바의 미술디자인학교 영화과에 재직 중이다.

Aline SUTER

Aline Suter was born in Geneva in 1982. She currently works at the cinem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in Geneva. In 2013 she directed the short film *Canorta*, which describes her close relationship with her mother tongue, Romansh.

Céline CARRIROIT

Céline Carridroit was born in Paris in 1982. In 2012 she co-founded a documentary production company based in France. She currently resides in Switzerland and works at the cinem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in Geneva.



GC | 10.1 | 15:00 | GV
AC | 10.3 | 16:00 | GV

Producer

Aline SUTER,
Céline CARRIROIT
Cinematography
Céline CARRIROIT
Editor
Antonio Trullen FUNCIA
Music
FÉLIX BLUME

스토리 오브 안나푸르나 Story of Annapurna

Korea | 2016 | 43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 E | ©



해발 8,000미터가 넘는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와 2,000미터가 채 안되는 제주도의 한라산. 어떤 연유로 두 산이 한 영화에 담겨있을까? 안나푸르나가 좋아서 가명을 안나로 지은 주인공은 제주도에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며 살고 있다. 산, 바다, 여행을 즐기는 안나에게 제주도는 딱 맞는 땅이다. 제주도, 특히 한라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안나는 한라산 알리기 프로젝트를 위해 히말라야로 떠난다. 안나의 구호에 맞춰 "웰컴 투 한라산"을 기꺼이 외쳐주는 외국인 트레커들. 이들이 안나푸르나를 찾은 이유는 모두 다 다르다. 산이 아름다워서, 산의 기운을 받고 싶어서,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서.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행복해 보인다. 산이 좋아 산 밑에 살며 그 산을 널리 알리고자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산을 찾은 안나처럼. 산과 자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주인공의 순수하고 진솔한 사랑을 바이스러스처럼 전염시키는 행복한 영화.

Annapurna of the Himalayas is taller than 8,000m but Hallasan Mountain of Jeju Island is shorter than 2,000m. Then what made them put in one film? The lead character, who nicknamed herself Anna because of her love for Annapurna, manages a guest house in Jeju Island. Anna likes mountains, the sea and trip. Jeju Island is perfect for her tastes. She loves Jeju Island and especially Hallasan Mountain, so she heads for the Himalayas to publicize Hallasan Mountain. Foreign trekkers gladly repeat her as she says "Welcome to Hallasan". Each of them is visiting Annapurna for a different reason. Some are there because the mountain is beautiful. Others want to be inspired by the mountain. There are even those who simply like to meet people on the way to the mountain. One thing common among them is that they all look happy. This film transfers the protagonist's pure and sincere love for mountains, nature and people like a virus.

안나

산이 좋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찍었고 다큐 제작까지 하게 되었다. 안나푸르나를 다녀와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Annapurna의 Anna를 따서 '안나'라고 닉네임을 지었고 산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 제주에서 히말라야를 꿈꾸며 <스토리 오브 안나푸르나>를 기획, 연출하고 본인 생애 최초로 산악로드비디오투어를 제작했다.

Anna

She made video clips and made a documentary because she likes mountains. Staying on Jeju Island, she planned and directed *Story of Annapurna*, her first mountain road movie documentary.



AC | 10.1 | 19:00 | GV
AC | 10.3 | 10:00 | GV

Producer

Anna
Cinematography
Anna, Raz
Editor
KIM Yongcheon
Music
KIM Taewoo
Cast
Anna, PARK Jeongheon,
YU Bongjae, Raz

어크로스 더 스카이 A Line Across the Sky

USA | 2015 | 41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NE | ㉔



아들 이름을 피츠라고 지을 정도로 피츠로이 사람이 대탄한 미국의 클라이머 토미 콜드웰이 추위라면 질색하는 캘리포니아 클라이밍 키드 알렉스 호놀드와 본격 알파인 등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것도 무수한 산악인들이 고배를 마셨던 파타고니아의 피츠로이 트레바스 초동. 피츠로이봉을 시작으로 총 7개의 봉우리를 횡단 등반하는 것으로, 릿지 길이만 5,000미터 이상이다. 콜드웰과 호놀드는 알파인 등반 초보답게 달랑 침낭 1개, 텐트 1개, 로프 1개, 그리고 엉뚱한 크램폰을 챙겨 호기롭게 출발한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등반화와 바지는 찢어지고, 사라져 버린 손가락 대신 부러진 선글라스로 식사를 하면서도 그저 모든 게 신나고 재미있는 두 사람. 그리고 그만큼 유쾌한 영화로 연출해낸 샌더 필름즈의 능력이 한껏 발휘된 작품. 콜드웰과 호놀드는 이 등반으로 매년 그 해 최고의 등반 업적을 남긴 이에게 수여되는 산악계 최고의 상인 황금피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merican climber Tommy Caldwell, who loves Fitz Roy so much that he named his son Fitz, and Californian climber Alex Honnold, who hates cold, challenge alpine climbing together. They are going to try the first ascent of Fitz Roy traverse, which a number of climbers have failed to ascend. Starting from Fitz Roy, they are to cross 7 peaks, which are 5,000m long in total. As beginners of alpine style climbing, they embark on their journey only with a sleeping bag, a tent, a rope and wrong crampons. Not long after the beginning, their climbing boots and trousers are torn and they lose spoons, so they have to eat with broken sunglasses, but they are still excited and happy. Sender Films proves their editing ability by making this pleasant film. Caldwell and Honnold won the Piolet d'Or, which is given to the one who has accomplished the best climbing achievement in the year.

피터 모티머

샌더 영화사의 창립자 피터 모티머는 1999년에 프리 솔로 클라이밍 비디오를 제작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대학 친구인 닉 로젠을 영입하여, 장편 다큐멘터리, 첨단 TV 시리즈, 광고 등을 함께 만들어 회사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다.

Peter MORTIMER

Peter Mortimer is the founder of Sender Films, which he started as a do-it-yourself rock climbing video production project in 1999. Peter was joined at Sender by his college friend Nick Rosen in 2004, and the two have grown Sender into a global adventure film company leading in feature-length documentaries, cutting-edge television series and a variety of commercials.



조쉬 로웰

빅 업 프로덕션의 대표인 조쉬 로웰은 15년 동안 등반과 모험에 대한 영화로 각종 영화제에서 수십 편의 상을 받았다. 영화 촬영이나 편집을 하지 않을 때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암벽을 찾아 뉴욕 주의 여러 숲을 돌아다닌다.

Josh LOWELL

Josh Lowell has been making climbing and adventure films for 15 years through his company, Big UP Productions. Lowell's films have won dozens of festival awards and a Sports Emmy for cinematography. When he's not shooting or editing, he can be found prowling the woods of New York state, searching for unclimbed boulders.



SC | 10.1 | 11:00
AC | 10.3 | 19:00 | GV

Producer

Nick ROSEN, Zachary BARR

Cinematography

Tommy CALDWELL, Alex

HONNOLD

Editor

Josh LOWELL

Cast

Tommy CALDWELL, Alex
HONNOLD, Rolando 'Rolo'
GARIBOTTI, Kelly CORDES

유렉 Jurek

Poland | 2015 | 73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 E | 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유렉은 유명한 폴란드 산악인 예지 쿠쿠츠키의 애칭. 라인홀트 메스너에 이어 두 번째로 히말라야 14좌를 오른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유렉은 로체봉을 제외한 13개봉을 전부 신 루트나 동계 등반으로 올랐다. 가난한 사회주의 노동자 출신 유렉은 놀라운 등반력으로 고산등반 역사를 새로 쓴다. 메스너는 축전을 보내 '당신은 2인자가 아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말한다. 영화에는 한국인 허영호 대장의 인터뷰도 보인다. 1987년 로체 남벽 도전 중, 추락사하는 과정까지 보여주고 있다. 41년이라는 짧은 생을 불꽃처럼 살다 간 유렉의 치열했던 등반기록.

Jurek, also the film title, is the short name of a famous Polish mountaineer Jerzy Kukuczka. This is a documentary of Jurek, the second person to climb the 14 8-thousanders after Reinhold Messner. He climbed 13 of the 14 peaks through new routes or in winter, except for Lhotse. As a poor socialist labor worker, he wrote new history of high altitude climbing simply with his climbing abilities. Reinhold once said in a congratulatory message, "You are not second. You are great." There is an interview with the Korean climber Heo Youngho. The film also covers the time when he died from a fall while climbing the south face of Lhotse in 1987. It is a climbing record of Jurek, who lived the short but passionate 41 years of life.

파벨 비소크잔스키

1980년 폴란드 글래스고 출생. 그의 최근 작품인 <유렉>은 유명한 산악인 예지 쿠쿠츠키에 대한 영화로, 파벨 비소크잔스키에게 무려 50개의 상을 안겨 줬다. 현재는 빈근에 허덕이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다.

Paweł WYSOCZAŃSK

Born in 1980 in Głogów, Poland. His last work, a documentary *Jurek* about a famous mountaineer Jerzy Kukuczka, has been awarded over 50 prizes in Poland and abroad. Currently he is working on a documentary film about people helping others in the poorest parts of the world.

GC | 10.2 | 17:30 | GV
GC | 10.4 | 10:00 | GV

Cinematography

Jacek KEDZIERSKI

Editor

Adriana SŁONIEC, Grzegorz

MAZUR

Music

Michał LORENC

Sound

Katarzyna DZIDA-HAMELA

Cast

Jerzy KUKUCZKA,
Artur HAJZER, Wanda
RUTKIEWICZ, Andrzej
ZAWADA



툼 Tom

Spain, Italy | 2015 | 67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 E | ㉔



알프스 6대 북벽의 하계시즌 단독 등반에 성공한 톼의 어머니, 엘리스 하그리브스는 여성으로서선 처음으로 무산소로 에베레스트 단독 등정에 성공한 전설적인 산악인이다. 톼이 6살 때 하그리브스는 K2에서 등반 중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집도 없이 아버지의 연금으로 벤에서 캠핑 생활을 하며, 이탈리아 돌로미테 산맥 밑에 자리를 잡은 톼은 어머니와 같은 산악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최소의 장비만 가지고 알프스를 올랐던 3-40년대의 가난했던 산악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가 올랐던, 알프스 6대 북벽 동계시즌 단독 등반을 세계 최초로 도전한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은 주인공 톼과 그의 아버지가 등반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담담하게 받아들여왔던 영화도 담담하게 연출해낸 것이다. 산악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힘든 도전과 고난, 요란한 승리의 눈물 같은 드라마 없이도, 홀로 묵묵히 산을 오르는 톼의 진심과 이를 지원해주는 아버지의 속 깊은 애정이 그대로 전해진다.

Tom's mother Alison Hargreaves is a legendary mountain climber, the first female climber who topped Mt. Everest without supplementary oxygen, and succeeded in reaching the 6 Great North Faces of the Alps alone in summer. Hargreaves died in an accident while she was climbing K2 when Tom was 6. Without home, he lives on his father's pension camping around and settles down under the Dolomites. Now he lives as a climber like his mother. He attempts to be world's first person to climb solo the 6 North Faces of the Alps in winter, with minimal equipment just like his mother and other climbers in the 30s and 40s did. The best virtue of this film is the calm directing as Tom and his father calmly take climbing as a part of everyday life. Although the film is missing difficulties, hardship and tear-jerking triumph, which are typical in other mountain films, it bodily shows the support and love of his father for him while he earnestly climbs mountains by himself.

앙헬 에스테반

1976년 스페인 마드리드 출생. 영화 예술을 전공한 뒤, 1999년에 TV, 영화, 광고 카메라맨 보조로 일을 시작했다.

Angel ESTEBAN

Madrid, Spain 1976. After cinematography studies he began his career in 1999 as a camera assistant in television, cinema and advertising.



엘레나 고아텔리

1975년 이탈리아 볼자노 출생. 미국과 남미 문학을 전공한 뒤, 스페인 TV 프로그램과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

Elena GOATELLI

Bolzano, Italy, 1975. After a degree in American and Latin American Literature. She worked as documentarist in Spanish TV and documentary film productions.



AC | 10.1 | 13:00 | GV
SC | 10.3 | 11:00 | GV

Producer

Kottom Films, Ruggero ARENA

Cinematography

Ruggero ARENA, Luis VEGA

Editor

Angel ESTEBAN

Music

David ESPINOSA, RALPH

Sound

EGO, David ESPINOSA

Cast

Tom BALLARD, James BALLARD, Ruggero ARENA, Stefania PEDERIVA

한계는 있다 Reach Your Limits

Bulgaria | 2015 | 53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E | ㉔



불가리아 최고의 마운틴 러너인 키릴 니코로프는 불가리아를 동서로 횡단하는 600킬로미터 길이의 콤-에미네 루트 마운틴 러닝 신기록에 도전한다. 기존의 최단 기록은 5일 14시간. 니코로프는 이를 5일 이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코치와 의료진 그리고 페이스 조절을 위해 함께 뛰는 동료들까지 총 53명이 신기록 달성을 위해 니코로프와 함께 뛴다.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시간당 10킬로미터를 달린 출발은 순조로웠으나, 곧 발목 부상에 따른 통증이 심해지고 니코로프는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된다. 팀은 이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짜고, 니코로프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꺾고 달려가며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다. 마지막 5일, 최후의 순간까지 초인적인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휴식 지점마다 찾아와 성공을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일어나고 또 늦게 자면서 뒤처리를 하는 가족과 친구, 팀원들을 끝까지 마음에 담고 뛰었기 때문이 아닐까?

Best Bulgarian mountain runner Kiril Nikolov is going to attempt to make a new record in mountain running at Kom-emine route, which is stretched 600km from east to west. The current record is 5 days and 14 hours. Nikolov wants to finish the route within 5 days. 53 people including coaches, a medical team and co-runners are with him. In the hot weather over 30 degrees, the beginning is smooth, but as Nikolov gets his ankle hurt, he can barely continue walking. The team needs a new strategy and Nikolov goes on although he feels like giving up. What made it possible for him to not discard the plan until the last moment on day 5? Perhaps people who cheered for him every break time, family members and friends who woke up earlier than him and stayed up until he hit the sack and his team mates did.

디모 페트코프

1986년 불가리아 가브로보 출생. 불가리아의 젊은 감독 디모 페트코프는 2004년에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스노우보드를 좋아하던 그는 국립 소피아 체육대학에 입학했으나 꿈을 좇기 위해 학업을 중도에서 그만두었다. 독학으로 영화를 배운 디모는 지난 10년 동안 200편이 넘는 단편 스포츠 영상을 만들었다.

Dimo PETKOV

Born in Gabrovo, Bulgaria in 1986 and started working with video in 2004. Following his passion for snowboarding he went to a National Sports University in Sofia, but dropped out to pursue his career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As a self-made filmmaker, for the past decade Dimo has created over 200 action sport short videos.

SC | 10.2 | 14:00 | GV
AC | 10.4 | 16:00

Producer

Dimitar DIMITROV, Krastyo LAMBEV

Cinematography

Hristo PETKOV

Editor

Dimo PETKOV

Music

Georgy Strezov

Sound

Lumbomir GOSHEV

Cast

Kiril NIKOLOV, all the people



호랑이 그리기 Drawing the Tiger

Nepal, USA | 2015 | 98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 E | ㉔



네팔의 어느 시골 마을, 주민의 대부분은 가난에 허덕인다. 다르날 가족도 마찬가지다. 이때 NGO를 통해 큰 딸 산타는 장학금을 받고 집을 떠나 카트만두의 학교를 다닌다. 산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 에이미 벤슨과 스콧 스콰이어는 프로모션 영상을 찍기 위해 네팔로 간다. 하지만 산타에게 일어난 비극은 두 사람을 다시 네팔로 향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7년 동안 다르날 가족을 기록한다. 비극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나 이 다큐는 아무 대담도 내놓지 못하며 가족들조차 비극의 원인은 모른다. 대신 <호랑이 그리기>는 그들이 처한 빈곤의 삶을 묵묵히 담아낼 뿐이다. 한 가정에 닥친 불행은 통해, 희망이 불가능해진 저개발 국가의 현실을 드러내는 작품. 척박한 현실 속에서 꿈을 품었던 한 소녀를 위한 레퀴엠이기도 하다.

At a small village in Nepal, most of the villagers struggle in poverty. Darnal's family is not an exception. Shanta is lucky enough to receive a scholarship and goes to school in Kathmandu by virtue of help from an NGO. Her dream is to become a medical doctor. Amy Benson and Scott Squire go to Nepal to make a promotion film. However, what brings them to Nepal is a tragedy that happened to Shanta. There they make a video record of Darnal's family for 7 years. What is the cause of the tragedy? Neither the documentary nor the family has the answer. *Drawing the Tiger* simply shows the poverty they are suffering. This is a film that exposes the reality of an underdeveloped country where people can barely have hope through a tragedy of a family. It is also a requiem for a girl who had hope despite gloomy circumstances.

에이미 벤슨

에이미는 시애틀에 위치한 제작사 논픽션 미디어의 공동대표이다. 그동안 촬영하고 편집한 25편의 단편영화를 통해 그녀는 태평양 연안 북서부,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비영리단체들을 소개했다. 노숙자들의 삶을 다룬 그녀의 첫 작품은 시애틀 국제영화제와 「시애틀 타임즈」에서 상을 받았다.

람야타 림부

네팔 출신인 람야타 림부는 단편 다큐멘터리 <초모롱마의 꿈>과 장편 다큐멘터리 <에베레스트의 딸들>을 공동제작했다. 그녀는 6년 동안 영 아시아 텔레비전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며 네팔의 사회 문제를 다뤘다. 현재는 카트만두 국제산악영화제의 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Amy BENSON

Amy is the co-owner of Nonfiction Media. She has shot and edited over 25 short films telling the stories of nonprofits in the Pacific Northwest, Africa and Asia. Her very first short film about the life in a local homeless encampment won awards from SIFF and *The Seattle Times*.

Ramyata LIMBU

Nepal native Ramyata co-produced and shot the documentary *Dreams of Chomolungma*, and co-produced and shot the award winning feature documentary *Daughters of Everest*. For six years she was a producer for Young Asia Television, producing programs focusing on social issues in Nepal. Ramyata is also the Director of Kathmandu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AC | 10.2 | 16:00 | GV
AC | 10.4 | 13:00 | GV

Director

Amy BENSON, Ramyata LIMBU, Scott SQUIRE

Producer

Amy BENSON, Ramyata LIMBU

Cinematography

Scott SQUIRE

Editor

Fiona OTWAY

Music

Robert MILLIS

Cast

Shanta, Susila, Kumar, Rabina



골든게이트 Golden Gate

USA | 2015 | 17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NE | ㉔



SC | 10.2 | 11:00 | GV
SC | 10.4 | 17:00

트레드 클라이밍 경력 3년 차 밖에 안된 에밀리 해링턴이 야심 차게 엘 캐피탄 프리 클라이밍 완동에 도전한다.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로 유명한 그녀이지만,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골든 게이트(5.13b)는 암벽 위에서 먹고 자며 총 6일간을 쉬지 않고 등반해야만 하는 쉽지 않은 루트다. 온 몸이 멍들고 피부가 벗겨지는 부상에도 해링턴의 인생대전은 계속 된다.

Emily Harrington resolutely challenges free climbing at El Capitan despite her short 3 years of experience in trad climbing. She is a famous sport climber, yet Golden Gate (5.13b) is a very hard route because a climber has to spend 6 days eating and sleeping on the rock face. Harrington never gives up although she gets bruises and her skin is chafed all over her body.



존 글래스버그

버지니아 샬롯스빌에서 태어나고 자란 존 글래스버그는 모험 영화 제작자이자 사진가이다. 나중에 콜로라도 보울더로 이주한 그는 아웃도어 산업 관련 영화 제작사의 공동 대표로 지내고 있다.

Jon GLASSBERG

Born and raised in Virginia and transplanted to Colorado where he co-owns and operates a production company, Louder Than Eleven, focusing on film and photo work in the outdoor industry.

눈송이 Snowflake

USA | 2015 | 8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NE | ㉔



GC | 10.2 | 15:00

한 편의 뮤직비디오 같다.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닉네임의 스위스 스키어 헨리가 삶의 철학을 래퍼처럼 실 세 없이 이야기하고, 그 위에 스키 액션이 만들어내는 눈의 스펙터클이 슬로모션으로 깔린다. 배경음악으로 록 사운드와 흐르고, 빠른 편집은 적절한 리듬감을 만들어낸다. 7분 동안 숨가쁘게 흐르는, 매혹적인 눈의 이미지에 대한 동영상. 순식간에 지나간다.

This is like a music video. A Swiss skier Henry nicknamed 'Snowflake' constantly speaks like a rapper about the philosophy of life. On top of it, spectacular ski action passes in slow motion. Rock music flows on the background and fast editing forms a rhythm. This is a fast-paced 7-minute long film about the fascination of snow.



벤 스투글루스키

스터지필름의 창업자이다. 감독, 카메라맨, 편집자, 작가로서 두루 재주를 갖춘 그는 스포츠, 다큐멘터리, 서사, 상업 등 다양한 영화를 제작한다.

Ben STURGULEWSKI

Sturgefilm founder, director, cinematographer, editor, and writer. He's worked in definitely nasty and awe-inspiring conditions around the world—all while bringing a unique and critical cinematic perspective to action sports, documentary, narrative, and commercial pursuits.

더 플레이스 The Place

Poland | 2015 | 14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E | ©



AC | 10.1 | 19:00 | GV
AC | 10.3 | 10:00 | GV

까만 밤, 무섭게 휘몰아치는 눈바람. 사람이 살 수 없는 외계 행성 어디인 것 같은 이곳은 폴란드의 산꼭대기에 위치한 기상관측소. 1938년부터 매 시간 기상 관측을 전송하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홀로 좁은 관측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반복적 일상과 제한된 공간을 다양한 앵글과 몽환적 분위기로 잘 그려낸 작품. 공간에 대한 색다른 이미지와 사운드를 제공한다.

At a dark night, a fierce snowstorm blows. This strange area looks like a place at an uninhabitable alien planet is the weather station on top of a mountain in Poland. The station has provided with weather information every hour since 1938. This film portrays the repeated routine of people isolated at the weather station with various angles and dreamlike atmosphere. It gives unusual images and sounds of space.



율리아 포플랍스카
다큐멘터리 제작자 겸 TV 저널리스트. 2012년에는 멕시코 다큐멘터리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최우수 각본상을 받았다.

Julia POPŁAWSKA
Documentary filmmaker and TV journalist. In 2012, she won the competition for the best script about the old town of Mexico City announced by Docs Festival in Mexico DF.

두 소년의 시간 The Time of Two Boys

Korea | 2015 | 9min | color | Animation | ND | ©



AC | 10.2 | 10:00 | GV
AC | 10.4 | 10:00 | GV

언제나 앞을 향해 달리고 있는 소년이 있다. 무엇이든 뛰어넘어 달리던 소년은 어느덧 높은 건물에 도착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씩 높은 곳으로 오르면 그는 창가에서 비행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현대인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는 작품으로, 두 소년을 통해 그 동안 잊고 있던 삶의 여유를 돌아보게 하는 인형애니메이션이다.

There is a boy running forward all the time. He jumps over whatever is in front of him to finally reach a high building. He goes up little by little this time until he finds an airplane by the window and sinks in thoughts. This is a stop motion animation that quietly moves modern people, who always think how to win competitions, and gives them a chance to relax and look back on their life.



전승배
1979년 부산 출생. 중앙대학교 졸업. 현재 토이빌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다.

JEON Seungbae
Born in 1979 in Nonsan, Korea. He graduated from Chungang University. He runs Toyville Studio, where he is currently working on a stop motion animation.

드날리 Dena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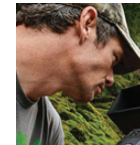
USA | 2015 | 8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NE | ©



GC | 10.2 | 15:00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 세상을 떠난 반려견을 추억하는 이 영화는, 드날리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보이소버 내레이션을 통해 그도 인간만큼 삶과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 관점의 역전이 만들어내는 감동은 거대한 울림을 주며, 뛰어난 촬영에 의해 포착된 이미지들은 관객에게 정갈한 아름다움의 풍경을 선사한다.

Life and death do not matter only to humans. This film is to cherish a pet dog. Through a voice over narration and Denali's point of view, this film shows a dog might take the issue about life and death as serious as human beings. This twist in point of view deeply moves and images shot with great skills bring audiences neat and beautiful scenery.



벤 나이트
영화 제작자. 2014년에 만든 댐과 강의 환경에 대한 영화 <댐네이션>은 SXSW커파런스 영화제에서 초연됐다.

Ben KNIGHT
Ben Knight is a filmmaker and once-Telluride local who was inspired to make films because of Telluride Mountainfilm. In 2014, *DamNation* premiered at the South by Southwest Film Conference.

모팻과 나 Operation Moffat

UK | 2015 | 21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NE | ©



AC | 10.2 | 19:00 | GV
SC | 10.4 | 14:00 | GV

91세를 맞이한 영국 최초 여성 산악 가이드 그웬 모팻은 살아있는 전설이다. 21살 젊은 시절부터 아름다운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산군에서 맨발 클라이밍과 리딩을 펼쳐나간다. 클라이머이자 작가, 군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모팻의 자서전에서 영감을 받은 젊은 클레어는 그녀의 등반을 재현하면서 점점 그녀의 등반과 철학에 빠져들며 모팻작전을 펼쳐나간다.

91-year old Gwen Moffat, the UK's first female mountain guide, is a living legend. She has continued bare foot climbing and leading at mountains of Wales, Scotland since when she was 21. As young Claire, inspired by the autobiography of Moffat, a climber, writer and soldier, chases her climbing routes, she sinks deep in her climbing and philosophy and conducts Operation Moffat.



젠 랜들
시간 기반 미술을 전공한 후 밴쿠버 영화 학교에서 영화 제작을 공부했다. 현재 라이트셰드 영화 제작사를 운영중이다.

Jen RANDALL
Studied Time Based Art and Film Production at Vancouver Film School. She is now running a production company Light Shed Pictures.



클레어 카터
아웃도어 영화계에서 작가 겸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로 활약하면서 동시에 독립 산악 예술 문학 행사를 주관하기도 한다.

Claire CARTER
Writer and creative consultant in the outdoor industry and runs independent mountain arts and literary events.

빅맨 Big Men

Spain | 2015 | 20min | color+b&w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E | ©



AC | 10.2 | 19:00 | GV
SC | 10.4 | 14:00 | GV

스페인 마요르카의 암벽 루트 빅맨을 등반하는 클라이머 듀오 포우 형제. 어려운 크릭스 구간을 성공하기 위해 수십 번을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홀드를 잡으려는 클라이머의 거친 손이 흙 반죽을 하고, 나무를 조각하고 배를 만드는 예술가와 장인의 손과 교차된다. 상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과감한 도전, 훈련과 기술의 단련 등 창작과 암벽등반의 공통점을 유머러스하게 조화시킨 영화.

Pou brothers climb Big Men, a rock climbing route at Mallorca in Spain. Rough hand of a climber trying to grab holds to climb difficult Crux route even after tens of failures and hands of an artist and a craftsman carving woods and building a ship are overlapped. In this film, common things in between creation and climbing such as bold challenge, exercise and skill training for actualization of imagination are harmonized in a humorous way.



조르디 까니귀에탈
영화 제작자이자 카메라맨. 카탈루냐 TV, TVE 등에서 영상 송출 담당으로 일하며 레드불, 노스페이스 등 등산 관련 제품 광고를 제작한다.

Jordi CANYIGUERAL
Filmmaker and Vertical Camera man. He has worked as operator of image in Catalan Television and TVE. Currently, through the Filmut brand, produces films climbing for brands such as Redbull and North Face.

소중한 순간들 The Important Places

USA | 2015 | 9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NE | ©



GC | 10.2 | 10:00 | GV
GC | 10.4 | 15:00 | GV

평생을 콜로라도와 그랜드 캐년의 강에서 카야킹과 래프팅 등을 즐기며 살아왔으나 이젠 70대 노인이 된 아버지. 도시로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콜로라도 카야킹을 제안한다. 43년 전 아버지가 갔었던 28일간의 그 여정 그대로. 물결이 세질수록 힘을 되찾는 아버지의 거친 손과 생동감으로 빛나는 눈동자. 젊음과 나이 들, 자연의 순리와 삶의 깨달음이 시나브로 스며든다.

Father enjoyed his whole life kayaking and rafting at the Grand Canyon and rivers in Colorado, but he is too old in his 70s now. Son, who left to the city comes back to ask his father for kayaking in Colorado. He wants to repeat the 28 days of journey that his father made 43 years ago. As the wave becomes stronger, father gains more power and his eyes shine brighter. Youth and aging, and enlightenment of the flow of nature and life slowly emerge.



포레스트 우드워드
모험 사진가. 서핑, 등산 등에 조예가 깊으며 아주 노동자나 거리의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많다.

Forest WOODWARD
Born and raised in North Carolina. His career has seen him log many miles of travel across the globe as he has captured the beauty of sports.



널리 베이
로드아일랜드의 웨스털리에 있는 소규모 영화 제작사.

Gnarly Bay
A small yet mighty video production collective hidden in a basement in Westerly, RI. Since setting out into the wilderness of video over a decade ago, they've created content.

이클립스 Eclipse

Canada | 2015 | 31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NE | ©



UC | 10.2 | 19:30 | GV
SC | 10.3 | 14:00 | GV

평생에 한번 포착 가능하다는 완벽한 개기일식의 순간, 인생 사진을 찍겠다는 일념으로 전문 스키어들을 모아 북극으로 그것도 한 겨울에 무작정 향한 촬영팀. 개기 일식이 끝나기 전 태양의 실루엣 가운데로 지나가는 스키어를 찍는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 고생한 그 모든 시간을 보상하고도 남을 일생의 샷. 그리고 숨막히도록 환상적인 그 순간.

It is said that the total eclipse of the sun can be photographed once in a lifetime, and there is a group of people with professional skiers who went to the Arctic with the sole intention to take a super rare picture. The picture of skiers passing in the middle of the silhouette of the sun before the eclipse ends is good enough to pay for all the hardship. Then finally there comes a breathtakingly fantastic moment.



안소니 보넬로
b4apres 미디어의 창립자. 그가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제작한 영화들은 30개국에서 상영되고 세계 각국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Anthony BONELLO
The founder of b4apres Media, he independently directed and produced the documentaries AZADI: Freedom and STAND. Anthony is also a published freelance writer and photographer.

카스카고리 Kaxkagorri

Spain | 2015 | 19min | color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 ND | ©



AC | 10.1 | 19:00 | GV
AC | 10.3 | 10:00 | GV

산바람 소리에 실려 들려오는 양들의 울음소리, 빗소리처럼 내리는 나뭇잎거리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저 멀리 산등성이의 검은 실루엣 너머로 붉게 지는 저녁 노을과 그 위를 흘러가는 구름, 그리고 발을 가는 곡괭이 소리.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산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주인공이 보고 느끼는 그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이 내는 소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작품.

There are the sound of lamb in the wind over mountain, the sound of rustling leaves falling like rain drops and clouds flying around the glow of sunset behind the dark silhouette of hills. There is also the sound of plowing the fields. This film shows the intact landscape and sound of nature as well as what the main character has seen and felt at Basque of Spain for 30 years.



호세 라몬 아귀레
항상 산을 가까이하며 살았다. 1995년 이래로 그는 여행과 산에 관한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왔다.

Jose Ramón AGIRRE
Agirre has been connected with the mountain. In 1995, he began working in the audiovisual world and installed solar panels for school and homes.

쿠냥 츠히시 동봉 First Ascent – Kunyang Chhish East

Italy | 2014 | 38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 E | ©



AC | 10.2 | 13:00 | GV
GC | 10.4 | 12:30 | GV

아직 그 누구도 오르지 못한 파키스탄의 쿠냥 츠히시 동봉. 초등 성공을 위해 꼬박 일년을 함께 준비해온 세 명의 청년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부터 비자부터 부상까지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들이 속속 발생한다. 세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다 같이 오르 정상. 긴 시간 노력하고 준비한 등반이자 인생의 목표를 동료와 함께 이뤄내는 순수한 알피니즘 정신이 돋보이는 영화.

No one has ascended Kunyang Chish East yet. Three young men have prepared one full year for the first ascent of the summit. Even before they start however, they encounter unpredictable obstacles such as visa issue and injury. At the third try, they meet the summit altogether. This film shows pure alpinism of the three young mountaineers who practice and prepare for a long time to finally achieve the goal of life.



마테오 비토렐
경제학자 마테오 비토렐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특이한 진로를 택했다. 몇 년 전 스토리텔러 밥을 설립했다.

Matteo VETTOREL
An economist by formation. Vettorel founded Storyteller-Labs out of their passion for photography, filming and outdoor sports, but above all for emotional stories.

크리스 보닝턴의 삶과 등반 Chris Bonington - Life and Climbs

Italy | 2015 | 22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NE | ©



AC | 10.1 | 13:00 | GV
SC | 10.3 | 11:00 | GV

4번의 시도. 50세의 나이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 크리스 보닝턴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벅찬 영광의 기쁨이 아니라 그동안 원정을 같이 했었으나 먼저 가버린 동료 산악인이었다. 50여 년간 한결같이 남들이 한번도 가지 않은 미답봉만 골라서 도전해온 진정한 알피니스트, 보닝턴. 겸손한 태도와 진심 가득한 눈빛에서 그의 삶과 등반에 대한 철학이 그대로 묻어난다.

To Chris Bonington, who summited Mt. Everest in 4 attempts at the age of 50, what first comes to mind is not the glory and delight of the success but his partners who died. Bonington is a true alpinist who has challenged peaks no others had ever tried for nearly 50 years. His modest attitude and honest eyes show his philosophy about life and climbing.



비니치오 스테파넬로
등산과 산악 관련 포털 사이트 플래닛 마운틴의 공동 창업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트렌토영화제 웹 TV를 감독했으며 황금피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Vinicio STEFANELLO
Editor and co-founder, in 2000, of the web magazine PlanetMountain.com. From 2008 - 2010 he directed the Trento Film Festival WebTV. From 2011 to 2015 he produced the videos and directed the award's ceremony of the Piolet d'Or for Comune di Courmayeur.

파나로마 Panar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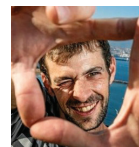
Spain | 2015 | 28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 E | ©



UC | 10.1 | 19:30 | GV
SC | 10.3 | 17:00 | GV

60세가 넘는 나이에 또 고난도 등반을 하는 노바토. 클라이머인 아들 에두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루트로 꼽히는 돌로미테의 파나로마에 오른다. 자신이 직접 클라이밍을 가르쳤던 아들과 함께 30년 만에 파나로마에 도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버지는 가슴이 벅차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암벽을 오르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한편으로 또 아려온다.

At an age over 60, Novato still challenges difficult routes. Along with his son Edu, who is also a climber, he climbs Panaroma at Dolomites, one of the hardest routes in the world. Simply climbing with his son, who he taught climbing, 30 years after last time, he is filled with emotion. On the other hand, looking at his own son taking a risk to climb a rock face makes the father's heart heavy.



온 에랑스
1980년, 스페인 빌바오 출생. 그의 스포츠 다큐멘터리 <파나로마>는 여러 영화제에서 9개의 상을 받았다.

Jon HERRANZ
Born in Bilbao, Spain in 1980, and has directed several climbing and outdoor sports short films. His latest documentary, *Panaroma*, has won 9 different Film Awards at various film festivals.

홀스슈 목장의 무법자들 Showdown at Horseshoe Hell

USA | 2015 | 21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NE | ©



SC | 10.2 | 17:00 | GV
SC | 10.4 | 11:00

미국 아칸소주 시골의 한적한 홀스슈 목장에서 매년 지역의 클라이밍 레이스가 펼쳐진다. 바로 2인 1조로 진행되는 24시간 논스톱 암벽등반. 기상천외한 복장을 하고 전국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클라이머들. 이중엔 세계 최강 알렉스 호놀드를 꺾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은 닉과 메이슨이 있었으니, 과연 대회 한번 나가본 적이 없는 생초짜 커플이 호놀드를 이길 수 있을까?

At Horseshoe Hell in Arkansas state of the States, a hell climbing race is held every year. A non-stop rock climbing for 24 hours. Hundreds of climbers in weird costumes gather here from all over the nation. Nik and Mason have an ambition to beat world's best climber Alex Honnold. Will the first-timers be able to kick his butt?



닉 로젠
작가 겸 제작자. 콜로라도 단과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Nick ROSEN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Colorado College and MA at Columbia's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Rosen is now a partner, writer, and producer at Sender Films.



재커리 바
처음 찾아가던 에베레스트 산에서 촬영한 <하이 텐션>으로 여러 개의 상을 받았다. 이후 그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 제작 등을 맡아 활동했다.

Zachary BARR
Studied at Lewis and Clark College and Barr began his career shooting multiple-award winning film *High Tension* in Mt. Everest.

알피니즘 ALPINISM

전문 산악인들의 등반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를 보여주는 섹션으로, 알피니즘은 단순한 고산등반이라는 정의를 벗어나 등정 자체 그리고 등반 과정을 중요시하는 윤리적 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알피니즘의 정신을 이어가며 등반을 하는 현재 산악인들의 등반기를 다룬 영화들이 올해는 국제경쟁부문에 주로 포함되면서, 알피니즘 섹션에서 소개되는 영화는 세 편으로 조금 적은 편이다. 하지만 끊임없는 신 루트 개척과 동계 초등의 신화를 이룬 이탈리아의 산악인 시모네 모로의 새로운 인생도전을 보여주는 <I-View>, 마치 달의 이면인 듯 그 동안 세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해발 5,300미터에 위치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의 구석구석을 카메라로 잡아낸 <E.B.C. 5300M>는 오히려 알피니즘의 본 모습과 그늘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오름'이라는 행위의 본질을 짚지만 재치 있게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오르다>도 놓치지 마시길.

This section demonstrates the infinite challenging spirit and courage of expert mountain climbers toward mountaineering. The term 'Alpinism' is more than the simple definition of climbing a high mountain; it means the ethical attitude of considering reaching the summit as well as the climbing process important. Films that deal with contemporary mountaineers who climb in the spirit of Alpinism are mostly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section, so only three are being introduced in the Alpinism section. *I-View* shows the new life challenges of Simone Moro, the Italian mountaineer, who continues to pioneer new routes and established the legend of the first ascent of winter season while *E.B.C. 5300M*, which captures all the aspects of the Everest Base Camp located at 5,300m above sea level with a landscape resembling the other side of the moon that has never been seen before, makes it possible to see and feel the true face of Alpinism and its shadow. *Ascension*, a short, witty animation about the basic action of 'ascending', is also a must see.

E.B.C. 5300M

E.B.C. 5300M

Switzerland | 2015 | 15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ND | ©



SC | 10.1 | 11:00
AC | 10.3 | 19:00

E.B.C.란 해발 5,300미터 빙하에 건설되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말한다. 봄과 가을엔 에베레스트에 거대한 천막도시가 형성된다. 전 세계 산악인들이 등반에 나서는 시즌이기 때문. 두 달 정도 지나 시즌이 끝나면 복잡거렸던 베이스캠프는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이 영상은 캠프의 밤과 낮, 그리고 온통 하얀 세상에서 등반에 임하는 산악인을 조명하고 있다.

E.B.C. stands for Everest Base Camps on the glacier at 5,300m above sea level. A big tent city is formed at Mt. Everest in spring and autumn. Those are times when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limb the mountain. In about two months, all the camps disappear like a mirage. This film shows climbers going up the hills covered with snow as well as days and nights of the camps.



레오나드 콜리
스위스의 로잔 예술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졸업작품으로 첫 번째 영화 <E.B.C. 5300M>를 만들었다.

Léonard KOHLI
studied photography at ECAL in Switzerland. He made his first film *E.B.C. 5300M* for diploma project.

I-View

I-View

Italy | 2015 | 31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E | ©



SC | 10.1 | 11:00
AC | 10.3 | 19:00

히말라야 14좌 등반은 겨울이 훨씬 위험하다. 이탈리아인 시모네 모로는 동계등반을 개척하고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등반가 중 한 명이다. 모로는 자신이 직접 헬리콥터 조종을 배웠고 히말라야에서 조난자를 구조한다. 헬기 역시 히말라야에서의 비행은 위험하다. 양력과 기압 차이 때문. 시모네 모로가 출연하고 직접 내레이션까지 한 이 다크에서 시중 박진감 넘치는 영상을 만날 수 있다. 모로의 겨울등반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인 데니스 우루코도 보인다. 그는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아시아 황금피클링 주인공이다.

Climbing is far more dangerous in winter especially when it is an 8-thousander. Simone Moro, one of the greatest active climbers, is Italian. He learned how to pilot helicopter by himself and now rescues sufferers. Piloting a chopper is also very dangerous at Himalaya due to strong lifting force and difference in air pressure. In this documentary, featured and narrated by Moro himself, is full of thrilling scenes. His Kazakhstani climbing partner, Denis Urubko also appears in the film. He visits Korea quite often and once won the Piolet d'Or Asia.



클라우디오 로소니
1981년 이탈리아 출생. 열 여섯 살부터 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2014년 산악인 자포코 라셔가 출연하는 다크멘터리 <진화>를 만들었다.

Claudio ROSSONI
Born in Bergamo, Italy in 1981. He started making video when he was 16. He directed *Evolve*, a documentary starring climber Japoco Larcher in 2014.

오르다 Ascension

France | 2013 | 8min | color | Animation | ND | ©



GC | 10.2 | 17:30

GC | 10.4 | 10:00

웅장한 산의 모습을 훑는 카메라를 따라 이동하면, 성모마리아 동상을 지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오르는 두 남자. 화면을 압도하는 산의 풍경에 놀라고 있을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해프닝에 웃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이게 웃을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을 오르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몇 번이고 다시 오르는 게 산이 아닌가. 그게 바로 알피니즘이다.

As the camera pans along splendid mountains, two men are climbing a steep cliff with a statue of the Virgin Marie on the back. While the audience might be overwhelmed by the landscape, something funny happens. One might ask if it is actually laughable, but what reason would they need to climb? They will climb over and over anyway. That's what alpinism is about.



마르탱 드 쿠덴호프, 토마 부르디
《오르다》는 MOPA의 다섯 명의 학생들이 졸업작품으로 만든 영화이다. 이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공을 들였다.

**Martin De COUDENHOVE,
Thomas BOURDIS**

Ascension has been made by 5 students of Supinfocom Arles, now MOPA, as their graduation project. Five directors spent more than one year working on this fully animated short.



클라이밍 CLIMBING

암벽등반, 스포츠 클라이밍, 빙벽등반 등 다양한 분야의 등반영화를 즐길 수 있는 섹션. 인간의 한계라는 5.15급 루트를 세계 최초로 성공한 암벽등반계의 전설 크리스 샤마가 오만의 동굴 암벽 초등에 도전하는 <빛을 따라서>. 세계 최고의 프리 솔로 클라이머인 알렉스 호놀드가 친구들과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역을 돌며 암벽등반을 하는 <아프리카 퓨전>은 신기에 가까운 호놀드의 등반 실력과 더불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매력에 흠뻑 취해볼 수 있다. 또한 선배 등반인의 발자취를 따라 믹스드 클라이밍으로 빙벽등반 새 루트 초등에 성공하는 콘래드 앵커의 <그리고 우리>. 그리고 <울렁, 도>와 <볼더팅>이라는 수준 높은 한국의 클라이밍 영화 두 편은 올해의 발견. 위의 작품들이 클라이머들의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준다면, 암벽 주변의 자연보호를 위해 팽팽히 맞서게 된 스페인의 환경운동가들과 클라이머를 다룬 <등반금지>는 그 동안 잘 말해지지 않은 그러나 깊게 고민해야 할 화두를 던진다.

This is the section where you can enjoy all kinds of climbing films, such as rock climbing, sports climbing, and ice climbing. *Into the Light* is about the legendary Chris Sharma, who was the first in the world to succeed in climbing a 5.15 level route, considered the extreme human limit, attempting a first climb of the rock cave in Oman. *Africa Fusion* gives you the opportunity to be mesmerized by the South African Republic as Alex Honnold, the greatest free solo climber in the world, shows off his unbelievable skills as he goes rock climbing around the nation with his friends. *Always above Us* features Conrad Anker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an earlier climber and succeeding in pioneering a new route in ice climbing by doing mixed climbing, *Ullung, Island and Boulder Ting* are two well-made Korean climbing films that are the find of the year. While these films show the unlimited passion of climbers, *Prohibido Escalar*, which deals with the tense conflict between Spanish environmentalists and climbers over the issue of nature preservation, poses the question that has not been discussed but needs to be contemplated on.

남극의 드림팀 The Last Great Climb

UK | 2013 | 60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 NE | 12



영국의 레오 홀딩을 비롯한 세계적인 거벽등반가 4명이 뭉쳐 남극의 울베타나봉(2,931m)에 도전장을 냈다. 얼음위로 솟은 거대한 바윗덩어리로 보이는 이곳의 최대변수는 극권의 추위와 고립이지만 대규모 원정에 가까운 식량과 장비수송도 복병이다.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을 출발한 일행은 남극 퀸 모드랜드에 도착한 뒤 다시 1,600킬로그램에 달하는 짐을 싣고 울베타나 베이스캠프로 향하는 경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1,750미터에 달하는 북동릿지를 등반해야만 본격적인 헤드월등반이 가능한 이곳은 총 35피치에 달하는 전인미답의 루트로, 노르웨이 탐험가들이 서벽과 북벽을, 그리고 후버형제팀에 의해 남서릿지가 등반되었다. 가장 어렵고 긴 고난이도의 북동릿지는 시작부터 수직의 벽을 오를 뒤 다시 길고 위험한 긴 릿지를 통과해 수직의 헤드월을 등반해야만 정상에 오를 수 있는 험난한 봉우리로 이들은 30여 일을 투쟁해 정상 등정에 성공한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남극의 빙하 위로 우뚝 솟은 화강암에 개미처럼 붙어 등반하는 세계적인 클라이머들의 투혼이 감동적이다.

Leo Holding and other 3 great big wall climbers get together to challenge Ulvetanna summit (2,931 m) at the Antarctic area. In this area looking like a lump or rock protruding above ice surface, the biggest variables are cold, isolation, food supply and equipment transportation. The team loads 1,600kg of luggage on a light aircraft and takes off. There is an untouched route consisting of 35 pitches, whose headwall can be topped only by climbing the Northeast ridge as long as 1,750m. A Norwegian climber group climbed the west face in 1774 and Huber brothers reached the top through the southwest ridge in 2008. The team struggled for over 30 days to climb the North ridge, which is the hardest and longest route because it has a vertical cliff from the beginning and there are dangerous and long ridges as well as a vertical headwall just below the top. Climbers on the granite wall above breathtakingly beautiful icebergs of the Arctic area look impressive.

앨라스터 리

아웃도어 전문 감독 겸 카메라맨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20년 동안 경력을 쌓은 베테랑으로서, 아름다운 장관과 인간미를 결합한 뛰어난 영화와 TV 광고를 통해 약 90 차례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이름을 널리 떨치기도 했다.

Alastair LEE

Director and camera man specialising in the outdoor world. Producing award winning films and TV commercials with stunning photography his special talent for combining the spectacular with the human have made him one of the leading forces in his industry with over 90 international awards to his name.



SC | 10.2 | 17:00
SC | 10.4 | 11:00

Music

Dean MCGINNESS

Cast

Chris BONINGTON, Leo HOULDING, Sean LEARY, Jason PICKLES

빛을 따라서 Into the Light

Austria, Germany, Oman | 2014 | 52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 NE | ㉔



세계적인 등반가 스테판 글로바츠와 크리스 샤마는 오만의 술탄, 셸마 플라토지역에 위치한 세계 최대 지하 동굴 중 하나인 마즐리스 알 진을 최초로 등반하기 위해 의기투합한다. 선수와 코치라고 생각할 정도의 나이차를 뛰어넘어, 두 사람은 등반에 대한 꿈을 실현시킬 완벽한 장소를 향해 출발한다. 평평한 평원에 뚫린 1미터 정도의 구멍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아래로 가로 300미터 세로 200미터의 거대한 돔 같은 동굴이 펼쳐지는데, 밑바닥에서 천장까지의 고도는 160미터. 2014년 2월 두 사람은 거대한 루프등반을 위해 포타렛까지 설치하며 12일간 이 동굴 안에서 오버행과 사투를 벌이며 등반을 펼쳐나간다. 빅월등반과 스포츠 클라이밍에 뛰어난 클라이머들이 벌이는 한판승부는 크릭스구간을 극복할 때마다 재미를 더해간다.

World class climbers Stefan Glowacz and Chris Sharma compose a team to be the first to climb Majlis al Jinn, world's biggest underground cave located in Oman. Despite the age gap big enough to make them look like a climber and a coach, they head for the perfect place together to make their climbing dream come true. As soon as they look into a hole with a diameter of 1m on the plain, there is a dome-like cave, which is 300m by 200m wide and 160m high from the bottom to the ceiling. In February of 2014, they desperately climb installing portaledge and struggling with overhangs for 12 days. As climbers talented in big wall climbing and sport climbing cope with crux zones, the film gets more interesting.

요겐 슈몰

영화 제작자, 감독, 촬영감독인 요겐 슈몰은 독일 루드비히부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는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광고 영상을 통해 스포츠 영화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다.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촬영감독으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Jochen SCHMOLL

Jochen is a filmmaker, director and DOP. Born in Ludwigburg Germany, he has become known in the sports filming scene for his numerous documentaries and commercials. He has directed various documentaries where his skill as an extreme sport DOP and director are essential.



UC | 10.1 | 19:30
SC | 10.3 | 17:00

Producer

Martin BRÜCKNER,
Florian RUTH
Cinematography
Franz HINTERBRANDNER
(DoP), Sebastian TISCHLER
Editor
Oliver SZYMCAK

아프리카 퓨전 Africa Fusion

South Africa | 2014 | 52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NE | ㉔



프리 솔로 클라이밍으로 유명한 알렉스 호놀드와 친구들의 남아프리카 클라이밍 여행기. 남아프리카 출신 클라이머들이 호놀드와 짝을 이루어 선명한 오렌지 색으로 빛나는 아프리카 곳곳의 숨겨졌던 거대 암벽을 등반한다.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고루 펼쳐져 있는 자연 암벽과 이를 오르는 클라이머들의 고난도 등반 모습은 물론 시원한 산과 바다의 풍경, 흥겨운 음악과 문화가 마치 아프리카 중합선물세트처럼 주르르 펼쳐진다. 더불어 위험천만해 보이는 프리 솔로를 하는 이유, 프로 클라이머로서의 삶,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과 암벽 클라이밍에 대한 호놀드의 자유로운 태도도 엿볼 수 있다. 또 등반하기 전에 앞으로 오를 루트에 대한 정보를 서로 알려주고, 등반 후엔 방금 마친 루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클라이머들의 모습도 정겹다. 아프리카의 흥겨운 매력에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호놀드의 인간적 매력과 함께 넘글째 끌려 나온 듯한 영화.

A famous free solo climber Alex Honnold along with his friends goes to South Africa to climb. South African climbers cooperate with Honnold to visit great rock walls glowing in vivid orange hidden at different corners of South Africa. This film is like a full package of Africa presenting natural rock walls scattered in Namibia and South Africa, highly skilled climbers going up the walls, fair landscape of mountains and the sea and cheerful music and culture. It also shows why Honnold enjoys dangerous free solo climbing, what it is like to live as a professional climber and what he thinks about sport climbing and rock climbing. It looks friendly when climbers share information about routes they are going to take and opinions about routes they just finished. Joyous charm of Africa and humanity of Honnold are well blended in the film.

닉 굿

닉 굿은 스튜디오 촬영만큼이나 물 안, 하늘 위, 혹은 바다나 암벽에 매달려 하는 촬영을 편안하게 여긴다. 명망 높은 국제 어드벤처 행사와 트렌토 산악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을 포함,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촬영했다.

Nic GOOD

Nic Good is a directing cameraman who is as comfortable in a studio as he is underwater, in the sky, on the sea or hanging on a rock face. Nic develops and films numerous prestigious international adventure events.



SC | 10.2 | 11:00
SC | 10.4 | 17:00

Producer

Robert BREYER
Cinematography
Nic GOOD
Editor
Luke WILLIAMSON
Sound
Henau MARAIS
Cast
Alex HONNOLD, Hazel FINDLAY

제임스 피어슨 이야기 **Redemption: The James Pearson Story**

UK | 2014 | 53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NE | 12



세 살 때부터 모험적인 스포츠를 좋아해 공중 매달리기, 아크로바틱 동작, 클라이밍 등을 두루 즐겼던 피어슨은 10대에 접어들면서 스폰서가 있는 프로선수들을 부러워하며 클라이밍에 본격 입문하게 되고 전통 클라이밍의 매력에 빠진다. 또래 학생들처럼 TV나 게임에 빠지지 않고 숲 속 걷기나 암벽등반 등 자연을 즐기는 생활을 통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블랙록에서 클라이밍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가 완등한 수많은 루트들이 소개되면서 세 손가락 끝마디에 온몸을 의지한 채 고도의 밸런스로 동작을 연결해가는 피어슨의 힘있는 등반들이 후원업체가 촬영한 옛 필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영국 전역과 스코틀랜드의 암장의 예전 모습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으며 클라이머의 심장박동소리를 들으며 함께 클라이밍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어린 시절 클라이밍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느낄 수 있고, 영국 최고의 클라이머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1998년부터 촬영해온 영상과 함께 재미를 더한다.

James Pearson, who has been into adventurous sports and has enjoyed mid air hanging, acrobatic moves and climbing since he was three, starts learning climbing and is fascinated by the charm of climbing. While others at his age enjoy TV viewing and video game play, he spends time doing natural activities like forest hiking and rock climbing, especially at Blackrock. A number of routes he conquered are introduced. In old footages filmed by the supporting company, Pearson uses the tips of three fingers to proficiently control balance. As he climbs all over the UK and Scotland, viewers can hear the heartbeat of the climber and will think as if they were climbing with him. The film shows the pure passion for climbing of childhood and the process of becoming the best British climber adds to the footages that have been taken since 1998.

크리스 프레스콧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사진가 겸 음향 디자이너 크리스 프레스콧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거주 중이다. 그의 작품들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BBC, 가디언, 텔레그래프, 디스커버리 채널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핫 에이크스에서 일을 한 크리스는, 다크 스카이 미디어를 직접 차렸다.

폴 디플리

모험 영화로 여러 차례 수상한 바가 있는 폴 디플리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영화 제작사 핫 에이크스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카메라맨, 감독, 편집자 등의 신분으로 프리랜서 업무를 맡기도 한다. 폴은 영화적인 관심 외에도 암벽등반, 아웃도어 스포츠를 오랫동안 즐겨왔다.

Chris PRESCOTT

Chris Prescott is a multi-award winning adventure filmmaker, photographer and sound designer living in Edinburgh, Scotland. His images have been published by National Geographic, the BBC, Guardian, Telegraph, and the Discovery Channel. Chris worked for Hot Aches Productions from 2013 until the end of 2015 before starting his own production company Dark Sky Media.

Paul DIFFLEY

Paul is a multi-award winning adventure film maker, based in Edinburgh, Scotland. As well as creating his own productions under his Hot Aches label, Paul also works as a freelance cameraman, director and editor. Aside from his professional interest in adventure sports as a film maker, Paul is a lifelong rock climber and general outdoor enthusiast.

AC | 10.2 | 19:00
SC | 10.4 | 14:00

Producer

Paul DIFFLEY

Cinematography

Chris PRESCOTT

Editor

Paul DIFFLEY

Music

Chris PRESCOTT

Sound

Chris PRESCOTT

Cast

James PEARSON,
Caroline CIAVALDINI



그리고 우리 **Always above Us**

Canada | 2014 | 13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 NE | 12



SC | 10.2 | 17:00
SC | 10.4 | 11:00

1999년 히말라야에서 눈사태로 목숨을 잃은 미국의 산악인 알렉스 로우.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인 콘라드 앵커와 크리스 에릭슨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나 둘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다. 앵커와 에릭슨은 선배를 기리고자 로우가 첫 등반을 한 빙벽 윈터댄스 루트에 약간의 변주를 더해 새 루트 넛크래커를 개척한다. 한 겨울 팡팡 얼어붙은 폭포와 등반 모습을 항공으로 촬영한 영상이 웅장하게 펼쳐진다.

American climber Alex Lowe died from an avalanche at the Himalayas in 1999. His close friends and climbing partners Conrad Anker and Chris Ericson were there too, but they were lucky enough to barely survive. In memory of Lowe, Anker and Ericson add variety to Winter Dance route, which Lowe first climbed, and pioneer a new route Nutcracker. Hard frozen waterfalls and climbers shot from the air are magnificently presented.



데이브 모쇼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영화학과 인류학을 전공하고 2004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곳에서 만난 브라이언 헨드릭스 교수는 영화에 대한 예술적인 접근을 위한 기반을 잡아 줬다.

Dave MOSSOP

David graduated with honours from the University of Victoria in Film Studies and Anthropology in 2004, where film professor Brian Hendricks had set the groundwork for David's artistic filmmaking approach.

등반금지 **Prohibido Escalar**

Spain | 2014 | 21min | b&w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E | 12



SC | 10.2 | 11:00
SC | 10.4 | 17:00

수십 년 동안 클라이머들이 등반해온 스페인의 몬세라 국립공원 암장, 친퀘테레, 마요르카해벽, 무니스팔 국립공원 등이 환경보존의 문제로 매년 등반제한 및 금지지역을 늘려려 하고 있다. 아름다운 스페인 산군에서의 등반 모습을 감상하며 클라이머, 지자체, 국립공원생태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

Spain tries to forbid more areas at Montserrat National Park, Cinque Terre, Mallorca cliff and Municipal Park every year for conservation of the nature. The film shows mountaineers climb at mountains in beautiful Spain and makes us look back at ourselves through various opinions from climber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ecologists at national parks.

대니 카스티요 비구리

제작자 겸 사진가인 대니 카스티요 비구리는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그의 작품들은 미술관에 전시되기도 했다. 2009년에는 사진가, 영화 제작자, 산악인들을 모아 산과 등산에 관한 시청각 멀티미디어 자료를 만들었다.

Dani CASTILLO VIGURI

A producer and photographer, Viguri's works have been exhibited in galleries and set up Ctownclimbing: A group of photographers, producers and climbers creates audiovisual and multimedia contents about climbing and mountain.



볼더팅 BoulderTing

Korea | 2014 | 6min | color | Documentary | NE | ©



SC | 10.2 | 14:00 | GV
AC | 10.4 | 16:00

암스트롱, 바위바위보, 더오르다, 볼더왕. 모두 볼더팅이 좋아 모인 사람들이 만든 팀의 이름이다. 낮에는 맘껏 볼더팅을 즐기고, 밤에는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노는 젊은 클라이머들. 바위가 있는 곳이라면 산과 계곡을 가리지 않고 모이는 이들.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운동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볼더팅의 매력에 빠져보자.

Armstrong, Rock-rock-paper, Theorda and Boulder King are the names of teams consisting of those who fonder bouldering. These young climbers enjoy bouldering as much as they like during the day and talk and laugh around bonfire at night. As long as there are rocks, they can gather together whether it is a mountain or a valley. Why don't you experience the charm of bouldering because it makes even strangers get along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이성재

디렉터와 카메라맨으로서 아웃도어 활동 특히, 클라이밍 분야의 사진과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다루고 있다. 클라이밍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클라이머와 공감하고 감성적인 부분을 담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LEE Sungjae

As director and cameraman, Lee takes pictures, shoots and edits films to make contents about outdoor activities including climbing. With his deep understanding about climbing, he focuses on empathize with climber.

울릉, 도 Ullung, Island

Korea | 2015 | 10min | color | Documentary | E | ©



SC | 10.2 | 14:00 | GV
AC | 10.4 | 16:00

파랗게 빛나는 바다와 깊은 산과 계곡, 그리고 그 바다 바로 옆에서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암벽까지 모든 것을 갖춘 천국. 어딜까? 바로 한국의 섬 울릉도다. 울릉도의 숨겨졌던 매력이 암벽등반을 하고, 새로운 암벽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 울릉도를 찾은 클라이머들의 눈을 통해 펼쳐진다. 감독의 진한 울릉도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영화.

If there is a heavenly place that has everything including shiny blue sea, hills, deep valleys and a rock face next to them, where would it be? It is Ulleung-do, a Korean island. The unseen charm of Ulleung-do is spread in front of the eyes of climbers who visit the island to climb rock faces and find new routes. Viewers can see how big the director's love for Ulleung-do is.



이성재

디렉터와 카메라맨으로서 아웃도어 활동 특히, 클라이밍 분야의 사진과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다루고 있다. 클라이밍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클라이머와 공감하고 감성적인 부분을 담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LEE Sungjae

As director and cameraman, Lee takes pictures, shoots and edits films to make contents about outdoor activities including climbing. With his deep understanding about climbing, he focuses on empathize with climber.

하이 & 마이티 High & Mighty

USA | 2015 | 2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NE | ©



UC | 10.1 | 19:30
SC | 10.3 | 17:00 | GV

세계 최고의 볼더 클라이머들이 볼더의 고장 비숍을 찾아 가장 어렵고 높은 하이볼 볼더링에 도전한다. 확보 없이 추락하면 부상을 동반하는 볼더링의 세계에서 손가락 끝으로 작은 홀드를 잡고 고도의 밸런스를 요구하며 오르는 볼더링 기술은 경이롭기만 하다. 다니엘 우드는 공포를 극복하고 섬세한 동작으로 드디어 새로운 볼더 루트 더 프로세스를 완성한다.

World's best boulder climbers go to Bishop, to challenge the hardest and highest bouldering. It looks just marvelous that a climber uses finger tips to grab small holds and control balance to go up, in the world of bouldering, where a fall without a secured route can cause injury. Daniel Woods copes with fear and gets used to minute moves to complete The Process, a new boulder route.



피터 모티머

센더 영화사의 창립자. 장편 다큐멘터리, 첨단 TV 시리즈, 광고 등을 만든다.

Peter MORTIMER

Founder of Sender Films. He and his partner enlisted an amazing team to help grow Sender into a leading global adventure film.



닉 로젠

작가 겸 제작자. 콜로라도 단과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Nick ROSEN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Colorado College and MA at Columbia's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Rosen is now a partner, writer, and producer at Sender Films.

모험과 탐험 ADVENTURE & EXPLORATION

다양한 산악 스포츠와 스릴 넘치는 모험과 탐험 그리고 가슴 설레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을 소개하는 섹션. 용암의 한가운데 서보고 싶은 사람들의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대한 도전을 담은 <화산속으로>, 프로 카야커가 나이아가라 폭포 하강을 준비하는 3년간의 기록을 담은 <체이싱 나이아가라>, 윈슈트를 입고 중국과 알프스의 고산에서부터 도심 빌딩까지 베이스 점핑을 하는 인간 새인 점퍼들의 가슴 뭉클한 동료애를 그린 <윙맨>, 환상적인 조명 아래 야간 라이딩을 펼치는 프로 산악자전거 선수들의 모기에 가까운 실력을 엿볼 수 있는 <다크라이트>까지 그야말로 산악 스포츠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길 잃은 아기 북극곰의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 갖은 고생을 무릅쓰는 소년의 모험담을 다룬 <내 친구 나누크>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영화이다.

This section introduces the stories of people who set off on exciting journeys of diverse mountain sports, thrilling adventures and explorations. *Spitting Distance* contains the pursuit of the seemingly impossible dream of people who want to stand in the middle of lava, *Chasing Niagara* covers a pro kayaker preparing for 3 years to go downstream on the Niagara Falls, *Wingmen* shows the touching camaraderie of base jumpers in wing suits who turn into human birds when they jump from high mountains in China and the Alps or skyscrapers, and *Darklight* gives us a glimpse of the remarkable skills of pro mountain bike riders who ride at night under fantastic lighting. And then there is *The Journey Home*, a heartwarming movie for the entire family about a boy's adventures as he goes through various ups and downs to reunite a lost baby polar bear with its mother.

내 친구 나누크 The Journey Home

Italy | 2014 | 98min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 E | ㉔



한 소년과 아기 곰의 어드벤처. 엄마와 떨어진 아기 곰을 살던 곳에 데려다 주려는 소년 루크는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게 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하지만 결국 역경을 뚫고 아기 곰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며, 다행히 소년도 무사히 돌아온다. 자연을 통해 성장하는 소년의 이야기가 중심이지만, 이 영화의 진짜 의도는 북극권의 경이로운 자연을 최대한 다양하고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 지역의 각종 동물들을 비롯해 폭풍이나 우박 같은 돌발적인 기상 상황과 빙하가 갈라지는 모습 등은 아름다우면서도 인상적인 스펙터클이다. 루크 역의 다코타 고요는 <리얼 스틸>(2011)의 주인공 소년으로 잘 알려진 배우. 아기 곰 피주의 리얼한 연기도 영화의 재미에 한몫한다.

This is an adventure of a boy and a little bear. Luke unexpectedly meets with an accident while he is taking a baby bear far from mom to where he lives. He somehow manages to cope with the situation and comes home after succeeding in taking the bear home. The story is mainly about a boy growing up in the nature, but the actual intention is to show as much of the impression of the beautiful landscape around the Arctic Circle as possible. It seems successful because the film is very spectacular as it shows diverse kinds of animals, sudden weather situations like storms and hails and the crack of icebergs. Dakota Goyo as Luke is well known as the protagonist of *Real Steel*(2011). The real acting of Pezoo, the little bear, adds to the interest of the film.

GC | 10.1 | 17:30 | GV
GC | 10.3 | 10:00 | GV

Producer
Brando QUILICI
Cinematography
Peter WUNSTORF
Editor
Pia Di CIAULA
Music
Lawrence SHRAGGE
Sound
Lawrence SHRAGGE
Cast
Dakota GOYO, Goran VISNJIC, Bridget MOYNAHAN

로저 스포티스우드

1945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태어났다. 감독이자 편집자로 활동한 그의 대표작으로는 <007 네버 다이>(1997), <6번째 날>(2000), <터너와 후치>(1989) 등이 있다.

Roger SPOTTISWOODE

Born in Ottawa, Ontario, Canada in 1945. He is a director and editor, known for *Tomorrow Never Dies*(1997), *The 6th Day*(2000) and *Turner & Hooch*(1989).



브란도 퀴리치

독립영화 제작자 브란도 퀴리치는 20여 년간 영화계에 몸담으며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PBS 노바 등 여러 미국 방송사를 비롯해 채널 4, ZDF, 프랑스 5 채널, Rai 등 유럽 방송사와 함께 일했다. 여러 차례 수상 경력도 보유한 영화인.

Brando QUILICI

Independent Italian filmmaker Brando Quilici's career spans over two decades, during which he has worked on many specials for American networks including the National Geographic Channel, Discovery Channel, PBS [NOVA] and European networks including Channel 4, ZDF, France 5, Rai. He has won many awards.



윙맨 Wingmen

Norway | 2015 | 52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 E | 12



UC | 10.2 | 19:30 | GV
SC | 10.3 | 14:00 | GV

Producer
Christen ROEDE
Cast
Jokke SOMMER, Ludovic
WOERTH, Espen FADNESS

당신의 삶을 이끄는 가장 큰 추진력은 무엇인가? 어렸을 때부터 하늘을 나는 꿈을 꾀은 요케, 에스펜, 루도에게 윙슈트 베이스 점핑은 그들을 살아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삶의 이유이다. 2013년 이들은 요케의 버킷 리스트를 실현시키기 위해 힘을 합친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 팔 밑 통과, 알프스 샤모니 꼭대기의 폭이 좁은 다리 밑 통과,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중국 천문산의 케이블카 근접 비행, 태국 도심의 고층 빌딩에서의 낙하까지. 빈틈없는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한다 생각했었지만 리스트가 하나씩 채워짐에 따라 작은 사고가 잇따르기 시작하고 급기야 한 명은 목숨까지 잃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프를 멈출 수 없는 그들. 윙슈트 베이스 점퍼 자신들의 입을 통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What is the driving force of your life? Jokke, Espen and Ludo have dreamt of flying since childhood and wing suit B.A.S.E. jumping is the strongest force and the reason for life to them. They get together in 2013 to help fulfill Jokke's bucket list. Their perfect teamwork leads them to Christ the redeemer in Rio of Brazil, a narrow bridge at the top of Chamonix at the Alps, Tianmen Mountain, the background of Avatar and a sky scraper at a Thai city. However, as the journey continues, they encounter problems and one of them even dies. Nevertheless, they cannot stop jumping down. This is a documentary that shows why wing suit B.A.S.E. jumpers risk their life.



좌 Left
크리스텐 로에드
Christen ROEDE

우 Right
토마스 크리스텐센
Thomas O. CHRISTENSEN

체이싱 나이아가라 Chasing Niagara

USA | 2015 | 76min | color+b&w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 NE | 12



GC | 10.1 | 10:00
UC | 10.3 | 19:30

Producer
Matt BAKER,
Troy BEAYCHAMP
Editor
Rush STURGES, Troy
BEAUCHAMP
Cast
Rafa ORTIZ, Evan GARCIA,
Gerd SERRASOLSES, Aniol
SERRASOLSES

세계 3대 폭포 중의 하나인 나이아가라는 높이 53미터, 너비 790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폭포이다. 예로부터 이 폭포를 뛰어내리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고, 많은 모험가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멕시코 출신 프로 카야커인 라파 오르티즈도 그 꿈을 좇는 모험가의 대열에 합류한다. 카약을 타고 나이아가라를 하강하는 목표를 세운 오르티즈는 세계 최고의 카야커 친구들을 불러 모은다. 나이아가라와 비슷한 폭포를 찾아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전역을 누비며 3년간의 훈련을 마친다. 그 사이 목숨이 위태로운 사고도 있었지만 D-1일, 하강 속도, 하강 지점, 사고를 대비한 의료진, 하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발각됐을 때를 대비한 비상퇴로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당일 새벽 홀로 낙하지점을 둘러본 오르티즈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결정을 한다. 한 발자국만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돌아서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포기했기에 더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 낸 영화.

The Niagara, one of three greatest waterfalls in the world, is 53m high and 790m wide. Since the old days, adventurer have attempted to jump down from it and a lot of them lost their lives. Rafa Ortiz, a pro kayaker from Mexico, is another adventurer chasing the dream. With the goal to go down the Niagara he gathers everything including a medical team in case of an accident and retreat route because going down the stream is illegal and they can be caught. In the early morning of the day, Ortiz looks down on the landing spot and makes a decision that surprises everyone. Turning back just one step behind the goal sometimes needs bigger courage. His withdrawal made a better ending for this film.

러쉬 스테이지스
카약을 위해 태어난 남자 러쉬 스테이지스는 캘리포니아 새만강 인근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1980년대 초에 그의 부모는 카약 학교를 직접 설립했다. 그는 10살 때 처음 카약에 대한 흥미를 느꼈고 17살까지 빠르게 기술을 연마했고, 이후 각종 대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Rush STURGES
Raised in a tiny town on the banks of California's Salmon River. In the early 1980s, his parents founded the Otter Bar Lodge Kayak School, which is now considered one of the nation's top paddling schools. Rush became interested in the sport at the age of 10 and his skills were further honed by age 17.



화산속으로 Spitting Distance

Austria, Vanuatu | 2015 | 52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 E | ©



등반가 올라 로만, 세바스찬 호프만 그리고 토마스 보이어는 남태평양 바누아투 군도에 위치한 암브림 섬으로 간다. 이 섬은 파이어벨트라고 불리는 화산대에 속하며 마룸, 벤보라는 두 개의 칼데라가 위치한다. 그리고 용암호에 접근하기 위해 벤보를 내려가야만 한다. 이 시도는 고도의 등반기술을 요구하며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에 굉장히 위험하다. 나쁜 날씨와 엄청난 가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번째 테라스를 향해 계속해서 내려간다. 그들은 화산이 자신들의 한계와 갈망을 시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까스로 용암호로부터 6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내려갔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다. 어떠한 최상의 표현들도 그 순간을 표현하기에 부족했다.

Rock climbers Ulla Lohmann, Sebastian Hofmann and Thomas Boyer go to Ambrym island located in Vanuatu archipelago, South Pacific to see a volcano. It belongs to a range of volcanoes called Fire belt. In Ambrym island, there is a caldera, an ash plain having two active volcanoes named Marum and Benbow. The climbers should descend the crater of Benbow to approach the lava lake. It is a very dangerous attempt because the volcano can explode at any moment and is placed so low that extremely professional climbing skill is needed for. Despite bad weather and much gas from the volcano, they try to descend deeper toward the third terrace. They feel like that the volcano tests their limitation and desire. They manage to approach the place sixty meters away from the lava lake and can see it very close up. No superlative expressions are sufficient to describe it.

요겐 슈울
영화 제작자, 감독, 촬영감독인 요겐 슈울은 독일 루드비히부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는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광고 영상을 통해 스포츠 영화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다.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촬영감독으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Jochen SCHMOLL
Jochen is a filmmaker, director and DOP. Born in Ludwigburg Germany, he has become known in the sports filming scene for his numerous documentaries and commercials. He has directed various documentaries where his skill as an extreme sport DOP and director are essential.



GC | 10.2 | 15:00

Producer
Jochen SCHMOLL
Cinematography
Pablo DURANA,
Jochen SCHMOLL
Editor
Oliver SZYMCZAK,
Mar Clapés GUTIERREZ
Cast
Ulla LOHMANN, Sebastian
HOFMANN, Thomas BOYER,
Jimmy MANU

괴물 포포스씨 An Adventure of Fear

Spain | 2015 | 11min | color+b&w | Animation | E | ©



AC | 10.2 | 10:00
AC | 10.4 | 10:00

한밤중에 갑자기 괴물이 나타났다. 두려움은 잠시, 금방 친구가 된 소년은 괴물의 집을 찾아주기 위해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단순할 수 있는 둘의 여정을 공간과 소년의 심리에 따라 애니메이션만의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재미있게 살려낸 작품이다. 인형에서 흑백 드로잉이나 평면적인 입체로의 변화와 인형에 쓰인 다양한 재료의 질감이 작품에 독특함을 더했다.

In the middle of the night, a monster appears in front of a boy out of nowhere. Even before relieving the fear, the boy starts the journey to look for a house for the monster. The journey of the two, which can look simple, is well animated along the alteration of space and the psychology of the boy with different techniques in this film. The shift from dolls to monochrome drawings or flat 3-dimensional objects and various textures of materials add uniqueness to the film.



크리스티나 빌체스 에스텔라
스페인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애니메이션 작가. 폰테베드라의 미술과정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책과 오디오 비주얼 애니메이션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Cristina VILCHES ESTELLA
Spanish illustrator and animator, Cristina was born in 1991. She holds Master's degree in illustrated Book and Audiovisual Animation at Faculty of Fine Arts Pontevedra.

끝없는 발견 Keep Exploring

France | 2014 | 9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 E | ©



GC | 10.1 | 10:00
UC | 10.3 | 19:30

프랑스 다큐멘터리 사진가 브라이스 포트라노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시도하는 3주간의 짧은 탐험. 평온하면서 거친 대자연은 언제나 그에게 형언할 수 없는 자유와 에너지와 기쁨과 영감을 준다. 그곳에서 그는 오직 걷고 먹고 모닥불을 피우고 잠을 자고 셔터를 누를 뿐이다. 자연을 건디고 자연에 경탄할 뿐이다. 그리고 6일간의 하이킹 끝에 산의 정상에 순 순간...

A French photographer Brice Portolano's short 3-week exploration attempt in British Columbia, Canada. As always, he showcases unspeakable freedom, energy, happiness and inspiration in the pleasant yet rough setting of Mother Nature. There, Portolano only walks, eats, builds campfires, sleeps, and presses the shutter. He simply endures and admires nature. And the moment he stands on top of the mountain after 6 days of hiking...



마티유 르 레이
대학 졸업 후, 프랑스의 IFFCAM에서 영상을 공부했다. 2008년부터 14편의 다큐멘터리로 상을 받았다.

Mathieu LE LAY
Le Lay studied at IFFCAM, the French wildlife film school, after he graduated in wildlife conservation at the University of Sanford. Since 2008, he has been directing award-winning documentary films.

다큐 유어셀프 Docu Yourself. Chapter 8. Higi

Spain | 2015 | 14min | color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 E | ©



SC | 10.2 | 14:00
AC | 10.4 | 16:00

어렸을 때부터 클라이밍, 산악오토바이 등 모든 종류의 활동적인 스포츠를 즐겼던 이히. 2년 전 클라이밍을 하다 사고로 양쪽 다리가 마비된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이히는 여전히 이히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클라이밍은 물론 전혀 해보지 않았던 카야킹에까지 도전한다. 이전보다는 많이 느려진 템포이지만 본래의 모습과 일상을 찾기 위한 색다른 모험을 본인이 직접 촬영했다.

Higi has enjoyed many active sports such as climbing and trail bike. Unfortunately, his legs were paralyzed from a climbing accident 2 years ago. Despite the tragedy, Higi is still Higi. He challenges new things like kayaking as well as climbing. He filmed himself trying to go back to what he used to be although he is much slower than before.



이차소 디아즈

시청각 학위와 예술기술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14년 동안 영상 제작자, 문화 이벤트 디자이너 겸 기획자로 일해 왔으며,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시청각화하기 위한 포맷과 플랫폼을 개발하기도 했다.

Itxaso DIAZ

Diaz has a degree in Audiovisual and PhD in Art and Technology. Works, for 14 years, as video creator, filmmaker, designer and organizer of participatory projects and video production cycles and cultural events.

다크라이트 Darklight

USA | 2015 | 7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ND | ©



SC | 10.2 | 14:00
AC | 10.4 | 16:00

완벽한 어둠이 내린 새벽녘. 미국 오리건과 유타의 산악, 화산 지대에서 MTB 다운힐 바이크가 펼치는 퍼포먼스는 흡사 한편의 기예를 보는 것만 같다. 광활한 대지, 깊은 숲 속, 아찔한 능선을 오가면서 빛과 색과 원과 선이 만들어내는 세계로의 초대. 스페셜라이즈드 프리 라이딩 간판스타인 매트 헌터와 매티 마일즈, 코나 그레비티의 그래픽 아가시가 출연했다.

The dawn has fallen with impenetrable darkness. Like an acrobatic performance, MTB downhill riding shows at mountains and volcanos within the Oregon and Utah region of America. This is an invitation to the vast earth, deep forests, and the feeling of giddiness. Featuring Specialized Free-riding star Matt Hunter, Matty Miles, and Graham Agassiz of Kona Gravity.



마이클 브라운

솔트레이크시티 출생. 몬태나 주립 대학교에서 예술사진과 영화제작을 복수전공하였으며, 현재 디자인 미학, 제작 일정, 시각 선율 등을 큐레이팅하고 있다.

Mike BROWN

A native of SLC, Majored in fine art photography and film production at MSU. Brown curates design aesthetics and production schedules on dry land, and visual melodies.

바람의 선율 Hangers and Violin Strings in Pakistan

Switzerland | 2015 | 27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



GC | 10.2 | 15:00

한 대의 작은 패러글라이더가 북인도 대륙의 광활한 창공을 가로지른다. 네팔에서 파키스탄 국경까지,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 국경까지. 그의 횡단에는 언제나 바이올린의 경쾌하고 밝은 선율이 함께한다. 2015 레지카뒤시네마 관객상, 어드벤처상, 2015 빌바오산악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

One small paraglider rips directly across the vast heavens of the Northern India continent. The journey is spread from Nepal to the national boundaries of Pakistan, and this time, to the national boundaries of Afghanistan. He is always crossing with the bright and pleasing melody of the violin. This film won Audience & Adventure awards at Les Icare du Cinema 2015. And Jury Prize, Bilbao Mendi Film Festival 2015



세바스티앙 데브리앙

영화 제작자, 사진가, 산악 가이드인 세바스티앙 데브리앙은 25편의 다큐멘터리를 감독했다. 그는 촬영, 음향효과, 편집을 두루 담당한다.

Sébastien DEVRIENT

Sébastien Devrient, filmmaker and photographer and mountain guide and has directed 25 documentaries. It is his passion for nature and adventure that led him to be a cameraman, soundman and editor.

컨츄리 바이커 Mountain Bikes and Bothy Nights

UK | 2015 | 8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NE | ©



UC | 10.2 | 19:30
SC | 10.3 | 14:00

내셔널 지오그래픽 모험가이자 작가인 엘라스터 험프리스는 어느 날 산악자전거를 타고 홀로 스코틀랜드 일대의 넓고 깊은 산야를 여행한다. 핸들바에 실은 짐이 단출한 이유는 그의 여로에 빈 농가 오두막이 있기 때문이다. 무인 간이숙소인 오두막에 머물면서 그는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고 다음날을 위해 충전한다. 오두막은 그가 두 바퀴로 광활한 자연을 가로질러 나갈 수 있는 동력인 것이다. 촬영과 편집 모두 그의 작품이다.

Both an adventurer and a writer of National Geographic, Alastair Humphreys travels around the field and mountains in Scotland alone on an MTB. While there is an empty hut on the route, it's pretty handy that his luggage can be on the handlebar. Staying in the uninhabited bothy, he releases a day's worth of fatigue and recharges himself for another day ahead. From there, with two wheels and great engine power, it enables him to cross the vast nature.



엘라스터 험프리스

모험가, 블로거, 작가, 연설가이다. 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올해의 모험가로 선정된 바 있다.

Alastair HUMPHREYS

Humphreys is an adventurer, blogger, author and motivational speaker. He was named as a National Geographic Adventurer of the Year for his pioneering work on the concept of microadventures.

트레일 엔젤

Trail Angel

USA | 2015 | 7min | color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 NE | ©



GC | 10.2 | 15:00

미국 메인주 중부에서 조지아주 북부까지 걸쳐 있는 3,300킬로미터의 애팔래치아 산책로. 그 길 어딘가엔 천사가 나타난다. 그 천사는 지치고 허기진 사람들에게 푸짐한 만찬을 베풀고, 가져갈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통에 넣어 매달아 놓는다. 숲에서 느낀 평안과 위안을 세상에 돌려주는 남자 포니테일 폴에 대한 이야기. 자연에게 받은 것을 나눔으로 승화시키는 미담이다.

Appalachian Trail lies along 3,300km from the central area of Maine State to the northern part of Georgia. There is an angel somewhere in the middle. He treats generous meals for tired and hungry people and leaves food in a hanging container for someone who might need it. This is a moving story of Ponytail Paul, who pays back to the world for what he gains from the forest as he believes the woods give him peace and relief.



라이언 허퍼난

사진가 겸 감독. 자연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보여 주는 것이 그의 정기이다.

Ryan HEFFERNAN

Ryan has spent a decade in the commercial and editorial worlds as both a photographer and director.



그레이슨 샤퍼

수상 경력이 있는 기자로, 6개 대륙을 돌며 토네이도, 눈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취재했다. 2014년에 NBC 다큐멘터리로 음향 및 영상 효과로 상을 받았다.

Grayson SCHAFFER

An award-winning journalist. The Dateline NBC documentary *Everest Into the Death Zone*, won a 2014 Edward R. Murrow Award for Use of Sound/Video.



자연과 사람 NATURE & PEOPLE

산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영화들을 소개하는 섹션. 올해 자연과 사람에서 상영되는 10편의 영화들을 통해 한국, 중국, 대만, 스코틀랜드, 미국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까지 지구 구석구석에서 산과 바다 그리고 자연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등산>은 아시아인들에게 산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보여주며, 일견 외롭고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자연 그리고 동물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모락 할머니의 총명한 삶의 매력이 한껏 느껴지는 <모락 할매>, 산 속에 위치한 대피소를 지키는 산사람들의 노력과 아름다운 현신이 그대로 전해지는 <크로거 산장>,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린란드의 현재 모습에서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실감하게 해주는 <그린란드>, 그리고 작년에 이어 DMZ를 비롯한 한국의 자연과 동물 그리고 환경문제를 유려하게 그려낸 한국 애니메이션 4편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이다.

This section introduces movies that illustrate the lives and culture of people who live with mountains and nature. The 10 movies to be screened in this section will show the mountains, the sea, and how people face nature in various corners of the world from Korea, China, Taiwan, Scotland, the U.S. to Iceland and Greenland. *Into the Mountain* shows what mountains mean to Asians, while *Cailleach* deals with the rich life of Morag, an elderly lady, who seems rather lonely and stubborn but nevertheless has lived life full of love with nature and animals. *Croger's Canteen* conveys the efforts and beautiful dedication of mountain people who protect the shelter in the mountain and *Shifting Ice + Changing Tides* makes us painfully aware of the seriousness of global warming in the current state of Greenland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people expect, while the 4 Korean animations about the DMZ, Korea's nature, animals and environmental issues are movies that can be enjoyed by everyone in the family like last year.

맨업 Man Up

Korea | 2015 | 8min | color | Animation | E | ©



AC | 10.2 | 10:00
AC | 10.4 | 10:00 | GV

진정한 남자의 자격은 무엇일까? 소년은 남자가 되기 위해 사냥을 나선다. 그리고 나무 밑에서 멧돼지와 한판 승부를 벌이다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는 갈등에 빠진다. 남자는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년의 독백은 사실 남자의 자격만은 아닐 것이다. 남자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What makes a real man? A boy goes on a hunt to become a man. When he is just about to win a duel with a boar under a tree, he is lost in thoughts. He whispers himself that a man should be responsible for his deeds and he needs to make wise decisions, but that's not all he needs to be a man. Before being a man, he is supposed to be a human being.



임지환
1988년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임지환 감독은 2015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다. <맨업>은 그의 첫 번째 단편 애니메이션이다.

LIM Zhichuan
Born in 1988 in Malaysia, he graduated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2015. *Man Up* is his first short animated film.

Good Man Good 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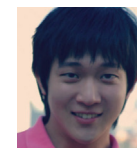
Korea | 2009 | 14min | color | Animation | ND | ©



AC | 10.2 | 10:00
AC | 10.4 | 10:00

공장에서 뿜어내는 연기로 인해 하늘이 보이지 않는 도시. 그 도시에서 햇빛을 보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공장장의 아내. 공장장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보다 결국 그녀와 함께 마지막 방법을 시도한다. 하늘에서 꽃잎이 무수히 흩날리던 날, 도시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바람이 일지 않았을까? 여전히 매연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작은 꽃잎은 너무나 아름답다.

There is a city where you cannot see the sky due to thick smoke out of the factory chimneys. Unable to see the sunlight, plant manager's wife is losing her life. The plant manager tries every means to show her sunlight and eventually he takes the final method. On a day when tons of petals are flying all over the sky, he thinks perhaps wind blows in the hearts of the citizens. Although the world is full of fumes, little petals are still so beautiful.



김동희
김동희 감독은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같은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2009년에 만든 작품 <Good Man>은 전 세계 다양한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KIM Donghee
Graduated Department of Cartoon Animation in Sejong University. One of his works, *Good Man* was invited to numerous prestigi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까마귀 Noir

Korea | 2015 | 4min | color | Animation | ND | ©



AC | 10.2 | 10:00
AC | 10.4 | 10:00

예로부터 흉조라 불려지는 까마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어디선가 이유 없이 날아오는 돌팔매에 상처받은 새다. 그러나 까마귀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깨닫기 위해 추는 춤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어우러지는 까마귀의 세계를 목격과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한 편의 시적인 작품이다.

A crow has been known as a bird of bad luck since the old days. It has been pointed at and bullied by people for no reason. However, when it is alone where no one can see it, it dances as if it attempts to find out the beauty inside, which warms our heart. This is a poetic film where what we can see and what we cannot see are well blended using carved wood to portray the world of crows.



김소연
김소연은 1994년 애니메이션을 시작, 일러스트 및 애니메이션분야에서 활동하였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ABC, 디즈니, 소니픽처스를 포함한 여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과 일하면서 개인 작품도 꾸준히 제작 중이다.

KIM Soyeon
She started making animated films in 1994, and has been working in illustrate and animation industry. Resides in California, working with various animation studios including ABC, Disney, Sony Pictures. She continues to create her own works.

노강의 봄 Salween Spring

USA | 2015 | 9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미정 | ©



GC | 10.1 | 15:00
AC | 10.3 | 16:00

배경은 중국 윈난성 양쯔강 하류의 노강. 트라비스 윈은 15년 전 이곳에서 중국 최초 카야킹을 시도했고 그의 도전을 기점으로 이곳에서 즐기는 카야킹은 대륙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레포츠가 됐다. 그러나 댐 개발이 본격화되며 이 유쾌하고 평화로운 풍경은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는데...

A background with China's Yangtze River in Yunnan. 15 years ago, Travis Winn had and originated his first experience in attempting kayaking on this river, and kayaking soon became a leisure sport for men, women, children and anyone can enjoy, throughout the continent. However, as the campaigns for dam development became highly active, this refreshing and soothing scenery soon began to disappear as time passed...



윌 스토퍼-노리스
윌 스토퍼-노리스는 아이다호 북부에서 태어나 콜로라도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프리랜서 사진작가와 영화감독으로서 북서부를 중심으로 각종 탐험을 촬영하고 있다.

WILL STAUFFER-NORRIS
He was born in northern Idaho, and graduated from Colorado College. As a Northwest-based freelance photographer and filmmaker, he's taken his camera on numerous adventures.

다섯 번째 계절 The Newly Coming Seasons

Korea | 2009 | 12min | color | Animation | ND | ©



AC | 10.2 | 10:00
AC | 10.4 | 10:00

DMZ 지역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총성이 때로는 돌을 잇는 도로가 생기면서 이 지역은 또 다른 변화 앞에 놓여있기도 하다. DMZ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과 자연을 따스한 색감으로 생동감 있게 그려내어 아름다운 화면과 DMZ의 긴장감의 간극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작품이다.

The DMZ is an area where the nature is preserved intact because people don't reach there. However, sometimes when there are gunshots or other times when a new road passing through it is built due to the change in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area experiences changes. This film shows the painful differences between the beautiful scene full of colorful and vivid nature and animals and the tight tension in the DMZ.



민성아
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과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다. 전작 <뱀목자>(2007)와 <다섯 번째 계절>(2009)은 전 세계 다양한 영화제에 초청받아 상영되었다.

MIN Sungah
Studied animation and received M.F.A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r works *Bab Mook Ja*(2007) and *The Newly Coming Seasons*(2009) were invited to numer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등산 Into the Mount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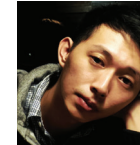
Taiwan | 2015 | 29min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 E | ©



GC | 10.1 | 15:00 | GV
AC | 10.3 | 16:00 | GV

한 남자가 산을 오른다. 등산객은 아닌 듯하다. 그는 한 소녀를 만나고, 발목을 다치고, 한 남자의 도움을 받는다. 그들은 산에서 망자의 흔적을 찾으려 하고, 삶을 마감하려 하고, 그 죽음을 막으려 한다.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한다.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산의 이야기.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을 인생에 비유한다면, 영화는 산을 통해 삶의 이유를 이야기한다.

A man climbs a mountain. He doesn't seem to be a climber. He meets a girl, is hurt in the ankle and receives help from another man. He tries to find the trace of a deceased man, finish a life and stop one from death. Then he talks about hope. This is a story about mountain from death's point of view. Life is compared to ascending and descending mountains, and the film talks about the reason of life.



추창 시양 안
1987년 대만의 타이중 출생. 대만 국립 예술대학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으며, <등산>으로 스크루드라이버 국제학생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CHUANG Shiang-An
Born in 1987 in Taichung, Taiwan. He is a student studying film directing in the Department of Filmmaking of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모락 할매 Cailleach

UK | 2014 | 14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E | ©



AC | 10.1 | 19:00
AC | 10.3 | 10:00

영국 북서부 아우터 헤브리디스 제도의 어느 섬. 그곳엔 태어난 집에서 86년 동안 살아온 할머니 모락이 있다. 양들을 키우며 홀로 살아가는 삶은 단순하면서도 자족적이다. 여기서 모락은 스스로를 돌보며 자연의 일부로 살아온 시절을 떠올리며 '좋은 삶'이었다고 말한다. 살아간다는 것의 평범한 이치에 대해 새삼 깨닫게 하는 다큐. 섬의 풍광은 거칠면서 매력적이다.

An old lady Morag was born at an island of Outer Hebrides in the Northwest of Britain and has lived there for 86 years. Raising lambs all by herself, she leads a simple and self-sufficient life. She takes care of herself and sometimes when she looks back her path of life, she thinks it has been a 'good life'. This film reminds us of the simple meaning of living. The scenery of the island is rough yet fascinating.



로지 리드 힐만

셰필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진작가이자 영화감독이다. 맨체스터 대학에서 영상인류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 영화는 그녀의 첫 작품이다.

Rosie REED HILMAN

A photographer and film maker based in Sheffield. Rosie has an MA in Visual Anthropology from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서퍼 The Coast

USA | 2014 | 7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 NE | ©



UC | 10.2 | 19:30
SC | 10.3 | 14:00

파도를 타는 한 서퍼의 짧은 이야기. 영화의 원제이기도 한 코스트는 바다와 육지가 부딪히는 경계인 동시에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공간이다. 파도를 타는 행위는 두 세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일이고 한 세계에서 다른 한 세계로 나아가는 일이다. 서퍼는 파도의 흐름을 타는 동시에 그 흐름을 거스른다.

A short story of a surfer who rides the waves. The Coast, also the film's title, is a space that connects two worlds like a bridge, and the border between the land and the water. The act of riding waves is capturing risky balance between the two worlds, going from one to the other. The surfer rides the wave's flow while going against it simultaneously.



스킵 암스트롱

워지 영화사의 대표. 영화 감독이자 카메라맨인 그는 다수의 영화제에서 수상 경력이 있으며 보잉, 포드, 토요타, 내셔널 지오그래픽, 롤루레몬, 노스페이스 등 유명한 회사와 함께 일해왔다.

Skip ARMSTRONG

The owner of Wazee Motion Pictures. He is an award-winning director and cinematographer who's worked with Boeing, National Geographic, Lululemon, The North Face and more.

그린란드 Shifting Ice + Changing Tides

USA | 2015 | 30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 NE | ©



AC | 10.1 | 10:00
AC | 10.3 | 13:00

무엇인가를 지키자고 주장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섯 명의 여성이 아이슬란드에서 출발해 그린란드로 떠난다. 그들의 3주를 담은 이 다큐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풍경에 대한 예찬이자 지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다. 경이로운 자연의 이미지와 스키의 역동적 스펙터클이 결합된 작품. 이보다 더 인상적인 설경을 만나긴 쉽지 않다.

The most effective way to argue on protecting something is to show the beauty of it. Six women embark on a journey from Iceland to Greenland. This is a documentary about their three weeks of journey admiring the landscape we must protect and giving a message that the whole earth is connected as one. This is a combination of marvelous images of the nature and dynamic spectacle of skiing. No other snowy scenery can be as impressive as in this film.



케이티 밀러

여행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이야기를 전하는 재주가 빼어나다. 여류 모험 사진작가이며, 이상기후를 포함한 환경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Kt MILLER

Kt is a Montana gal with a zest for adventure and knack for storytelling. *Shifting Ice + Changing Tides* is her first documentary film project.

크로거 산장 Kroger's Canteen

South Africa | 2015 | 8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NE | ©



AC | 10.2 | 16:00
AC | 10.4 | 13:00

미국 콜로라도 산맥에서 열리는 하드 락 100마일 대회는 실 거리 160킬로미터에 누적 상승고도 10,000미터를 자랑하는 세계 극한 마운틴 레이스 중 하나다. 크로거 산장은 코스 중 일부 구간인 칼날능선 부근에 위치한 에이드 스테이션으로, 선수들은 오아시스 같은 이곳에서 물과 식량을 보급하며 레이스를 이어간다. 크로거 산장을 꾸리기 위해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산으로 향하는 스태프들의 이야기.

In the mountain ranges of Colorado, USA, the 'Hard Rock 100mile Race' with an actual distance of 160km and an accumulated height of 10,000 meters is one of the ultimate mountain races in the world. 'Kroger's Canteen' is an aid station on a tiny ledge and an oasis-like place for the Hard Rock Race participants where they get provided with water and food. The race continues as the story of the staff that heads toward the mountain with heavy backpacks on their back in order to put together Kroger's Canteen.



딘 레슬리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영화감독. 그는 남극대륙부터 나미브 사막까지 일곱 개의 대륙에서 촬영을 하며 영화를 만들어 왔다.

Dean LESLIE

A South African filmmaker. He has filmed on all seven continents from Antarctica to Namib, and is a founder of independent film production.

울주비전 ULJU VISION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

해발 8,000미터 이상, 공기압이 해수면의 30퍼센트 밖에 안 되는 고산, 영하 50도가 넘는 세상의 끝인 극점, 1,000킬로미터가 넘는 피약별이 내리쬐는 모래사막, 3,000미터에 이르는 아찔한 거대 암벽.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던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오르고, 횡단하고, 등반한 사람들이 있다. 한계를 뛰어 넘으려는 개척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이들이 이미 닦아놓은 길이 있었기에 현재의 모험가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고, 이들을 담은 영화를 상영하는 축제인 산악영화제도 존재할 수 있다. 제1회 울주세계영화제는 그러한 의미를 기리고자 특별한인 울주비전의 주제를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로 잡았다. 1924년 세계 최고봉을 목표로 떠났던 3차 에베레스트 영국원정대의 모습을 기록한 무성영화 <에픽 오브 에베레스트>와, 그들이 그렇게 오르고자 했던 에베레스트를 인류 최초로 무산수 등반한 산악계의 살아 있는 전설 라인홀트 메스너를 <운명의 산: 낭가 파르밧>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Beyond the Limit

Over 8,000m above sea level, high mountain where the air pressure is just 30% of that at sea level, polar area as cold as below 50 degrees Celsius, scorching dessert longer than 1,000km and huge rock wall taller than 3,000m used to be regarded as unreachable places, but they have all been conquered. Thanks to relentless challenges of pioneers who wanted to go beyond the limit, today's adventurers can make new challenges and mountain film festivals to show them in films could exist. With the intention to pay a tribute to such a meaning, we set the theme of the 1s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Beyond the Limit'. *The Epic of Everest*, a silent film about the 3rd British Everest expedition, and *Nanga Parbat*, story about Reinhold Messner, the living legend mountaineer who was the first to climb Mount Everest without supplementary oxygen, are waiting to meet their audiences.

에픽 오브 에베레스트 The Epic of Everest

UK | 1924 | 86min | b&w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E | ©



8,848미터의 에베레스트 정상을 최초로 오른 사람은 1953년 뉴질랜드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네팔의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로 알려져 있으나, 1924년 등반 중 실종된 말로리의 정상 등반 여부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왜 에베레스트를 오르나?'라는 질문에 '산이 거기 있어서'라는 대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영국의 산악인 조지 말로리. 1924년 말로리가 포함된 에베레스트 영국원정대의 공식 기록영화로, BFI가 2013년 디지털로 복원하고 새롭게 작곡한 음악을 입혀 재탄생시킨 무성영화이다. 당시 촬영장비의 무게와 한계 때문에 그랬겠지만,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에베레스트는 눈과 구름에 휘감긴 채 시종일관 저 멀리 원경으로만 보여진다. 하지만 세상의 지붕이자 세상 모든 신의 어머니로 불리는 90년 전의 '초모룽마' 즉 에베레스트는 그 어떤 영상 속에서 보여졌던 것 보다 압도적이다.

The first people to summit the Everest are known as a New Zealand climber Edmund Hillary and a Nepali sherpa Tenzing Norgay in 1953. However, it is yet a big question if Malory had ever reached the top or not when he was climbing the mountain in 1924. He is well known for the answer "Because it is there" to the question "Why do you climb the Everest?". This is an official archive film of British expedition of the Everest in 1924, restored by BFI in 2013, with digital technology and newly composed music. Maybe because filming tools were too heavy and the circumstances were limited at that time, the Everest in the film is very far and hidden under snow and clouds all through running time. On the other hand, 'Chomolungma', which is the old name of the Everest, meaning the roof of the world and mother of all the gods, overwhelms in any other footage.

J.B.L 노엘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니며 등산에 대한 흥미를 키웠다. 노엘은 말로리와 어바인의 목숨을 앗아간 1924년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합류했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회생을 기리기 위해 <에픽 오브 에베레스트>를 만들었다.

J.B.L NOEL

Noel was sent to school in Switzerland, where he developed a keen interest in mountaineering. In 1924, Noel joined the expedition to Everest, where Mallory and Irvine were sacrificed. Despite the loss of the climbers, Noel made *The Epic of Everest* both as a record and a memorial to them.

GC | 10.2 | 12:30

Music

Simon FISHER-TURNER

Cast

Andrew IRVINE,

George MALLORY



운명의 산: 낭가 파르밧 Nanga Parbat

Germany | 2010 | 104min | color | Fiction | NE | ㉔



낭가 파르밧은 산스크리트어로 '벌거벗은 산'을 뜻한다. 1953년 초등 성공 전 이미 30명에 달하는 산악인들이 목숨을 잃은 험한 산이다. 산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등반을 시작한 라인홀트와 동생 건터에게 히말라야는 언젠가는 꼭 이루어야 할 꿈이다. 반면 전후 독일 재건의 상징적 모델이 된 헤르만 볼의 낭가 파르밧 첫 등정 이후, 다시 한번 영광의 재현을 꿈꾸는 헤를리히코퍼 박사는 7차 독일 원정대를 꾸린다. 라인홀트와 건터도 원정대에 포함되지만, 원정대 내부의 경쟁과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라인홀트와 원정대장 헤를리히코퍼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간다. 드디어 정상에 오른 라인홀트와 건터. 하지만 하산 중 건터가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되고, 동생을 찾아 헤매던 라인홀트도 생명의 위기에 맞닥뜨린다. 등반이 국민 통합과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상황은 물론 평생을 지켜온 라인홀트 메스너의 산에 대한 태도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Nanga Parbat is a Sanskrit expression for 'Bare Mountain'. Until it was summited for the first time in 1953, it had already taken about 30 climbers' lives. Two Reinhold and Günther Messner brothers, who were inspired by father, the Himalayas are a goal in life. Meanwhile, after the first success in climbing Nanga Parbat of Hermann Buhl, the symbolic model of postwar reconstruction of German, Doctor Herrligkoffer manages the 7th German expedition. Messner Brothers are included in the expedition, but as Reinhold and the captain Herrligkoffer compete against each other, the internal conflicts worsen. The brothers manage to reach the top, but Günther disappears on the way back down and Reinhold also faces deadly crisis while searching for his brother. This film shows the situation of the age when climbing was used as a tool to integrate people and raise the national status as well Reinhold Messner's life-long attitude toward mountains.

조셉 빌스마이어

1993년 개봉 시 독일과 전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2차 세계대전 영화로, 지금도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영화 <스탈린그라드>의 감독. 이 영화에서는 산악의 극한상황에서 형제애와 등반팀들의 갈등구조를 스릴 넘치는 이야기로 재구성하였다.

Joseph VILSMAIER

His film, *Stalingrad*(1993) which depicts World War II from German army's view, still keeps its fame among military maniacs. In this film, he shows a brotherhood and the conflicts among the mountain climbers when they face extreme situation during climbing.



GC | 10.3 | 15:00

Producer

Jörg A.L. SCHALLEHN,
Ralf ZIMMERMANN

Cinematography

Helmfried KOBER,
Joseph VILSMAIER

Editor

Sandy SAFFEELS,
Uli SCHÖN

Music

Gustavo SANTAOLALLA

Cast

Florian STETTER, Andreas
TOBIAS, Karl MARKOVICS,
Steffen SCHROEDER



울주서밋 2016 ULJU SUMMIT 2016

국내의 산악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대표적 프로젝트. 울주서밋 2016에 선정돼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은 총 세 편으로 극영화 1편과 다큐멘터리 2편이다. 데뷔작 <해피엔드>와 <사랑니>, <은교>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감성과 섬세한 연출력으로 인정받은 정지우 감독과 소설 『생강』, 『바늘』로 유명한 천운영 작가의 공동연출작인 <남극의 여름>, <후회하지 않아>, <야간비행> 등 독립영화계에서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는 이송희일 감독의 <미행>.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산악전문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임일진 감독의 <알피니스트>. <남극의 여름>의 배경은 머나먼 남극의 세종기지, <알피니스트>는 산악인들의 성지로 불리는 히말라야, 그리고 <미행>은 지리산을 비롯한 국내의 깊은 산이다. 극지에서부터 국내·외의 산까지 모두 다른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세 편 모두 카메라의 시선은 현재를 사는 한국인에게 깊게 머물러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과 교감이란 영화제의 취지와 꼭 들어맞는 한국영화들이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통해 제작되고 소개될 수 있어 자랑스럽다.

Ulju Summit is the representative project of Ulju Mountain Film Festival, established to foster production of mountain films in Korea. During the 1st edition of UMFF, 3 films (1 fiction and 2 documentaries) will be premiered. *The Summer of Antarctica* was co-directed by Jung Jiwoo, who proved his unique sensitivity and delicate direction in *Blossom Again* and *Eungyo* as well as the debut film *Happy End*, and Cheon Un-yeong, the author of *Ginger* and *Needles*. The director of *Following*, Leesong Hee-il, whose filmography includes *No Regrets* and *Night Flight*, is active in the indie film circle. *Alpinist* directed by Lim Iljin, currently the only mountain film director in Korea, is also going to be presented. The backgrounds of *The Summer of Antarctica*, *Alpinist* and *Following* are the Antarctic King Sejong Station, the Himalayas and Korea's deep mountains including Jirisan Mountain. Although all the three films have different spatial backgrounds, from the polar area to mountains in Korea and Nepal, the camera of each film fixedly aims at Koreans living today. We are proud of the fact that Korean films that fit the intention of the festival, influence and communion between the nature and human beings, are produced and introduced through UMFF.

남극의 여름 The Summer of Antarctica

Korea | 2016 | 45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 E | ©



남극 세종기지 월동대원으로 선발된 연구원 18명은 혹독한 생존훈련까지 마치고 남극으로 출발한다.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추위와 고립된 생활의 고독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들은 곧 남극의 식물, 동물, 동물들과 친구가 된다. 1년에 0.2밀리미터만 자라는 극지식물의 성장을 지켜보며 기뻐하는 식물학자, 소시지를 미끼로 채집했던 스쿠아와 반갑게 재회하는 조류학자, 길을 잃고 육지로 올라온 바다표범을 바다로 돌려보내는 연구원. 과학자들은 극지의 동-식물을 직접 보고 만지고 소통하면서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있는 지구를 느낀다. 남극이 존재해온 그 시간만큼 앞으로도 지구가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구가 지구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묵묵히 연구에 임하는 사람들. 유유히 흘러 커져이 쌓인 남극의 시간이 담겨있는 작품.

18 researchers selected as winter members of the Antarctic King Sejong Station complete severe survival training and fly to Antarctica. They first think there would be only harsh cold around negative 40 degrees Celsius and the solitude of isolated life, but as soon as they get there, they befriend with living things including plants and animals there. A botanist is happy to see the growth of arctic plants growing by 0.2mm a year. An ornithologist is delighted to meet again the skua he caught using sausages. A seal that was lost and came up to the land is sent back to the sea by a researcher. The scientists touch and communicate with the arctic creatures to feel the living earth in a way different than other people. They keep on researching the area wishing that the earth should be healthy as long as the time the Antarctica has existed and also that it would remain as it is. The film contains the time of the Antarctic area that has flowed and has been stacked up little by little.

정지우

독립 단편 <사료>(1994), <생강>(1996)으로 주목 받았다. 장편 데뷔작 <해피엔드>(1999)로 박스오피스와 평단의 고른 호응을 받았고, 2000년 칸영화제 비평가주간을 비롯, 다수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이후 <사랑니>(2005)로 국제평론가연맹상을, <은교>(2012)로 부일영화상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천운영

200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바늘』이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바늘』(2001), 『명랑』(2004), 『그녀의 눈을 사용법』(2008), 『엄마도 아시다시피』(2013)와 장편소설 『잘 가라, 서커스』(2005), 『생강』(2011)이 있다. 신동엽창작상(2003), 올해의 예술상 문학 부문 최우수상(2004) 등을 수상했다.

JUNG Jiwoo

He made his directorial debut with *Happy End*(1999) which is well received both in box-office and critics'. The film was invited to numer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ncluding Critic's Week at Cannes 2000. He won International Critics Association with *Sarangni*, *Blossom Again*(2005), and Buil Film Awards, Best Prize with *Eungyo*(2012).

CHEON Un-yeong

Her short story *Needle* won Sinchoon Munye, Donga newspaper was the start of her career. Her works include collection of short stories *Needle*(2001), *Myeongrang*(2004), *The Tear Manual of Her*(2008), *As You Know, Mom*(2013), and novel *Goodbye, Circus*(2005), *Ginger*(2011). She won Sindongyeop creative prize, Artist of the Year and many more.

AC | 10.1 | 16:00 | GV

Producer

KIM Daehyun, JUNG Jiwoo

Cinematography

KIM Hyeonbeom,
KIM Yeontae

Editor

KIM Hyeonbeom

Music

NRmaria

Sound

KIM Sukwon



미행 Following

Korea | 2016 | 40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 E | ㉔



경찰 수색 작업으로 출입이 전면 통제된 지리산. 정옥은 지리산 문화 탐방 관광객들과 함께 경찰의 시선을 벗어나 외진 길로 지리산에 들어간다. 결국 경찰에 발각되고 정옥은 몰래 일행을 벗어나 혼자 지리산 계곡으로 들어간다. 이런 정옥을 미행하는 재원. 정옥과 재원은 쫓고 쫓기며 점점 더 지리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Jirisan Mountain is completely blocked for search task of the police. Jeong-ok with tourists for culture visit tries to take a hidden path to enter there without letting the police know. They, however, are spotted and Jeong-ok somehow enters the mountain all by herself. She is followed by Jae-won. As one chases the other, they go deeper and deeper in the mountain.

AC | 10.1 | 16:00 | GV

Producer
KIM Ilkwon
Cinematography
YUN Jiun
Editor
LEESONG Hee-il
Sound
PHO Yongsoo
Cast
CHO Minsoo, SEO Junyoung

이승희일
단편 <언제나 일요일같이>(1998)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 편의 단편영화를 연출했고, 2006년 장편영화 <후회하지 않아>로 데뷔했다. 이후 <탈주>(2009), <백야>(2012), <아간비행>(2014)으로 이어지는 장편영화를 연출했으며, 베를린영화제 등 다수의 해외 영화제 초청 및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LEESONG Hee-il
Starting with his short film *Everyday like Sunday*(1998), Leesong Hee-il directed 9 short films. He made his directorial debut with *No Regret* in 2006. He made many feature-length films including *Escape*(2009), *White Night*(2012) and *Night Flight*(2014) won in many prestigi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알피니스트 Alpinist

Korea | 2016 | 84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 E | ㉔



산은 이제 거기 있는 지 오래됐다. 여전히 그 이유로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도 있겠지만, 개인적 명예와 성공을 위해 등반을 하는 산악인들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고산 초등이 완료된 현재, 많은 원정대들이 신 루트 개척, 기록 갱신, 무산소 등반 등 더 어려운 목표를 향해 치달는다. 카메라맨 임일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K2 스펀틱 골드피크, 가셔브롬, 초라체, 에베레스트까지 네 번의 상업적 히말라야 원정에 참여했다. 성공의 단꿈, 더 큰 성공을 위한 모험, 무리한 시도 그리고 이어지는 죽음이 톨니바퀴처럼 맞물려 반복된다. 영화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산악인들이 그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제껏 말해준 적 없는 한국의 상업적 원정 등반의 현실을 파헤친 다큐멘터리.

It has been a while since the mountain was there. Some climbers might still climb for this reason, yet others do it for personal honor and success. Now that most of the high mountains have been summited, there are many expeditions that attempt to find a new route, break existing records and climb without supplement oxygen. Lim Iljin, a camera man took part in four commercial expeditions for 5 years from 2009 to 2013; Spantik Golden Peak of K2, Gasherbrum, Cholache and the Everest. Sweet dream of success, adventure for a bigger success and unfeasible attempts interact like the cogwheel of death. The film takes the observer's point of view and asks climbers whether or not climbers caused the tragedies themselves. This is a documentary that exposes the yet untold reality of Korean commercial climbing expeditions.

임일진
1969년 서울 출생으로 198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입학과 함께 전문등반을 시작하였다. 종퇴 후 일본으로 건너가 클라이밍 영상 제작을 시작하였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산악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원정을 시작했다. 그의 첫 작품 <백>은 트렌토영화제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민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단편영화 미술부를 시작으로 방송, 광고, 뮤직비디오 등 장르와 매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영상 작업에 촬영, 편집, 프로듀서 등으로 참여해왔고 홍대 클럽의 파티·공연기획자로 활동하는 등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LIM Iljin
Born in 1969 in Seoul, he started professional climbing when he got int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o study German. He started making climbing film in Japan. In 2007 he begins expedition to make climbing documentary. His first film *Wall* won Trento Film Festival, Special Prize.

KIM Minchul
He started as an art department in a short film, in Amsterdam, Netherland. He participated in various productions from broadcasting, advertising and music video, regardless of the genre or medium, filming, editing and producing. He also worked as a party and performance planner in the Hongik University area.

GC | 10.1 | 12:30 | GV

Producer
KIM Minchul
Cinematography
LIM Iljin
Editor
JO Seul-yeah
Music
Andreas MIRANDA
Sound
Andreas MIRANDA, JUNG Sunghwan
Cast
KIM Hyung-il, JANG Jimyoung, SEO Sungho, LIM Iljin



우리들의 영화 WE MAKE UMFF

UMFF 영화교실의 교육 결과물과 영상공모전 울주플랫폼의 수상작들을 소개하는 섹션. '다함께 만드는 영화제'라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섹션으로 중고등학생을 비롯해 영화제작경험이 적은 신인 감독들이 신선한 시각으로 그려낸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청소년 영상제작교육 UMFF 영화교실을 통해 2015년 겨울 자유주제로 제작된 4편의 영화와 올해 웹툰을 응용하여 만든 작품 4편이 관객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 8편 모두 귀여운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중학생들의 작품이다. 이 밖에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치유하기 위해 떠난 가족 여행기를 사진과 내레이션을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한 <특별한 여행>, 빙벽등반과정을 담담한 시선으로 실감나게 담아낸 <토왕성폭포 빙벽등반>, 히말라야 람중 히말봉을 정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산악인 기형희의 등반 과정을 다룬 애니메이션 <여성 등반가>, 등산을 통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회사원의 모습을 그린 <일탈>과 같이 '자연과 사람'을 주제로 한 울주플랫폼의 수상 단편들도 만나볼 수 있다.

We Make UMFF introduces the fruits of the UMFF Film Class and the winners of the Ulju Platform Filmmaking Contest. The section reflects the core values of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s a 'Be Together!' and consists mainly of works created by new directors, with new perspectives but with not much film experience, and also middle school students. 4 films produced with a free theme in 2015 through the UMFF Film Class, a film production training program for teenagers, as well as 4 films adapted from this year's webtoons will be screened. All 8 films will give you a glimpse into the adorable imagin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Other films to be screened are award-winning shorts of the Ulju Platform with the theme of 'Nature and People', including *Special Trip*, a sentimental portrayal of a family trip meant to cure homesickness expressed through photographs taken during the journey and narration, *Ice Climbing in Towangsung Falls*, a calm, realistic observation of the process of ice climbing, *Female Climber* about Key Hyunghee, the first Korean woman to climb Lambjung Himal of the Himalayas, and *Breakaway from Stuffy Daily Life* about an office worker who relieves stress through climbing.

경쟁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

My Life is Full of Competition

Korea | 2015 | 6min | color | Fiction | ©



GC | 10.3 | 12:30 | GV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풍자한다. 각종 수상 경력, 해외 연수 등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우리나라 현재 교육을 비판한 작품.

Story of a student who tries to fulfill her dream with satire of current Korean education. Students are required to have many skills and experiences including winning awards and overseas experience in South Korea.

김범주, 정다안, 안지혜, 김민준, 이호주

KIM Beomju, JEONG Da-an, AHN Jiye, KIM Minjun, LEE Hyoju

물의 소중함

Preciousness of Water

Korea | 2015 | 6min | color | Fiction | ©



GC | 10.3 | 12:30 | GV

지금은 부족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물이지만 나중에 우리는 물 부족에 시달릴지도 모른다. 물 한 컵에 만원을 주고 사먹어야 하고 그로 인해 사회문제까지 일어나게 된다면 어떨까?

Plentiful water, but we are facing the fact that soon there won't be enough. How about we buy a cup of water for 10 USD and it causes serious problem?

김아람, 김지훈, 안지희, 신민규, 박지민

KIM Ah-ryang, KIM Jihun, AHN Jihee, SHIN Min-gyu, PARK Jimin

나홀로 지구에

Earth, Alone

Korea | 2015 | 6min | color | Fiction | ©



GC | 10.3 | 12:30 | GV

지구온난화로 인해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미래의 지구. 남은 생존자들은 식량과 다른 생존자를 찾기 위해 지구를 수색한다.

Global warming becomes extreme and it is difficult for human to survive in the earth. Survivors search the Earth for food and other surviv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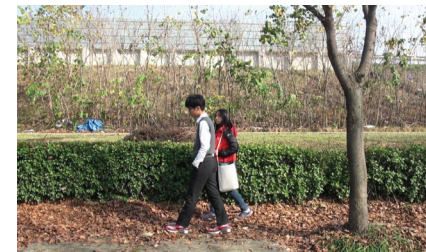
김형진, 권예지, 임동우, 허대겸, 이영은

KIM Hyungjin, KWON Yeji, IM Dongwoo, HUH Daekyeom, LEE Yeong-eun

엄마의 시간

Mother's Own Time

Korea | 2015 | 6min | color+b&w | Fiction | ©



GC | 10.3 | 12:30 | GV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엄마의 모습을 그린 작품. 엄마도 한 명의 여자이고 자식과 남편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엄마도 엄마 나름의 꿈이 있었지만 현재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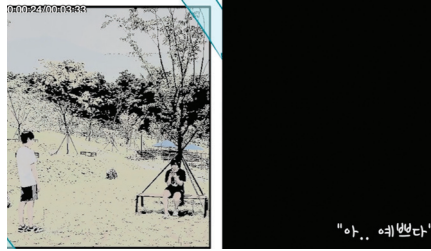
It is a story about a mother who sacrifices for her husband and children. Mother is a woman who needs love from her husband and children. Mother had a dream, but now she hides her dream and lives for her husband and children.

차유진, 신민석, 허태극, 황지민, 조성민

CHA Yujin, SHIN Minseok, HUH Taegeuk, HWANG Jimin, JO Seongmin

꽃밭에 슬
Anthophobia

Korea | 2016 | 4min | color | Fiction | 참고 웹툰 「꽃밭에 슬」(209) | ©



GC | 10.3 | 12:30 | GV

꽃을 무서워하는 소년이 한 소녀를 만나 공포증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 그 속에 나타나는 갈등.

It is a story about a boy who is afraid of flowers. A girl helps him to overcome his fear.

박정봉, 김이규, 김민경, 장지우
PARK Jeongbong, KIM E-gyu, KIM Mingyeong, JANG Jiwoo

달으로 간 새신들
Dumb and Dumber

Korea | 2016 | 6min | color | Fiction | 참고 웹툰 「문유」(조선) | ©



GC | 10.3 | 12:30 | GV

소행성이 달에 추락하게 되고 생존자1, 2는 서로를 찾다가 만나게 된다.

An asteroid crashed on the Moon. The two survivor, 1 and 2 look for each other and finally they rejoice.

신연수, 김대환, 박신후, 고세윤, 송정현
SIN Yeonsu, KIM Daehwan, PARK Sinhu, GO Seayun, SONG Jeonghyun

특별한 여행
Special Trip

Korea | 2015 | 5min | color | Documentary | 울주플랫폼 최우수 | ©



GC | 10.3 | 12:30 | GV

가족은 설날을 맞이하여 조금 특별한 가족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고향에 더 이상 갈 일이 없는 가족은 자연을 통해, 외로운 마음을 치유하려고 한다.

The family plans to go on a little special trip during Lunar New Year. As there is no reason to go to hometown anymore, the family tries to heal their lonely hearts enjoying nature.

우준희
계원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
3학년 재학생

WOO Junhee
Senior student in Kaywon
High School of Arts, studying
film and theater.

여성 등반기
Female Climber

Korea | 2016 | 2min | color | Animation | 울주플랫폼 우수 | ©



GC | 10.3 | 12:30 | GV

여류 산악인 기형희의 등반 과정을 담은 애니메이션.

Animated film about mountain climbing of a female climber, Key Hyunghee.

박예람
강원대 산업디자인학과 졸업하고
현재 문화진흥원에 디자이너로
재직 중이다. 대학 때 가입한
동굴연구회에서 천연의 동굴을
많이 탐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PARK Yeram
She was in cave research
club when she was studying
industrial design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xploring
many natural cave has led
her to take interests in
mountains.

외계미남 상형씨
Aliens Love Me

Korea | 2016 | 6min | color | Fiction | 참고 웹툰 「외계형 미녀은하씨(박창근) | ©



GC | 10.3 | 12:30 | G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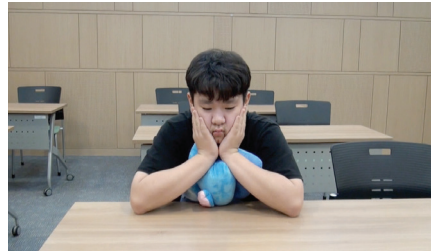
못생긴 주인공이 안경의 오류로 인해 자신의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

Protagonist, who has not-very-attractive appearance, finds true love with help of error of glasses.

임소라, 김태주, 강하은, 박소은, 안병관, 이준호
LIM Sora, KIM Taeju, GANG Ha-eun, PARK So-eun, AN Byeong-gwan, LEE Junho

평범한 동원이
I am Super Normal

Korea | 2016 | 5min | color | Fiction | 참고 웹툰 「평범한 8반」(영파카) | ©



GC | 10.3 | 12:30 | GV

남들과 조금 다른 특별한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되기까지의 스토리.

It is a story about a child, who is slightly different and special, becomes a normal child.

황태혁, 김근혜, 최재영, 김지훈, 박지민
HWANG Tae-heok, KIM Geunhye, CHOI Jae-young, KIM Jihun, PARK Jimin

일탈

Breakaway from Stuffy Daily Life
Korea | 2016 | 5min | color | Fiction | 울주플랫폼 우수 | ©



GC | 10.3 | 12:30 | GV

많은 업무에 지친 진아. 그녀는 그런 자신의 일상이 답답하다고 느낀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진아는 등산을 떠난다.

Jin-ah, exhausted by a lot of work, she feels suffocated from her mundane life. To get out of this, Jin-ah leaves for mountain climbing.

정희중
1995년 청주에서 태어났다.
느와르 영화 「스캐치와 <오늘,&br/>못나갈 것 같아를 연출했다.

JEONG Heejung
Born in 1995. Directed a
short noir film called Sketch,
and I Can't Go Out Tonight.

토왕성폭포 빙벽등반

Ice Climbing in Towangsung Falls
Korea | 2014 | 7min | color | Documentary | 울주플랫폼 우수 | ©



GC | 10.3 | 12:30 | GV

국내 최대 빙벽등반 대상지 토왕성폭포를 오르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다.

Story of climbing Towangsung Falls, which is the biggest ice climbing in the country.

남해원
현직 웹 디자이너. 영상을 취미로
하고 있다. 챌린저 클라이밍센터
소속으로 암벽등반을 촬영하고
있다.

NAM Haewon
Works as a web-designer.
As one of the members in
Challenger Climbing Center,
filming ice climbing.

새로운 도전
New Challenge

Korea | 2016 | 4min | color | Documentary | 울주플랫폼 장려 | ©



GC | 10.3 | 12:30 | GV

영남알프스 일원을 등산과 산악자전거를 즐기며 지내온 시간 속 스포츠 클라이밍을 접하며 또 다른 자연등반 세계로 도전하는 우리의 모습.

After enjoying Yeongnam Alps through hiking and mountain biking for a long time, I began sport climbing and it led me to a new world of real rock climbing.

김지혁
자연 속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며 등산, 산악자전거는 물론 현재 클라이밍에 도전중이다.

KIM Jihyuk
Enjoys outdoor activities including climbing, riding mountain bikes. Now challenging rock climbing.

원
Cycle

Korea | 2015 | 10min | color | Fiction | 울주플랫폼 장려 | ©



GC | 10.3 | 12:30 | GV

국립공원에서 공익근무요원 생활을 하는 김 공익. 김 공익은 어느 날 자신의 근무지인 산속에서 자살을 하려는 여자를 만난다.

Kim is a civil servant who works in a National Park. While working, he witnesses a woman who tries to commit suicide and he unintentionally rescues her.

전현교
남들보다 조금 늦게 영화 공부를 시작했다. 현재 영화를 탐구중인 학생이다.

JEON Hyeongyo
Determined to study film at late age than others. He is researching film as a student.

울산의 산
Mountain in Ulsan

Korea | 2016 | 3min | color | Documentary | 울주플랫폼 장려 | ©



GC | 10.3 | 12:30 | GV

울산 곳곳에 있는 산들을 카메라에 담아보았다.

Mountain in Ulsan captures various scenery and beautiful mountains in Ulsan.

김진국
울산에서 영화 및 각종 영상 작업을 하고 있다.

KIM Jinkook
He is a filmmaker and has been working based in Ulsan, making various visual images.



참여행사 FESTIVAL EVENTS

	10:3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공연	개막식												
체험	트리클라이밍 나무노리 The Tree Climbing 'Namunori'												
	힐링산악트레킹 Healing Mountain Tracking												
9.30 금 Fri	히말라야베이스캠프 Himalaya Base Camp												
	영남 알프스 VR체험 Yeongnam Alps VR Experience												
	라인홀트 메스너진 Reinhold Messner Exhibition												
	세계산악영화제 포스터전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Poster Exhibition												
	영남알프스 大腕(대호)전 Photography Exhibition 'Tiger & Leopard'												
	UMFF 미디어교실전 UMFF Media Class Exhibition												
	UMFF 책마루 UMFF Book Fair												
	UMFF 에코마켓(체험, 먹거리) UMFF Eco Market												
	영남알프스 산사랑 미술대회(미취학부) Yeongnam Alps Mountain Love Art Contest												
	공연	힐링 스테이지 Healing Stage			힐링 스테이지 Healing Stage			힐링 스테이지 Healing Stage			끝자락 UMFF Sunset Music		
체험	트리클라이밍 나무노리 The Tree Climbing 'Namunori'												
	힐링산악트레킹 Healing Mountain Tracking												
10.1 토 Sat	히말라야베이스캠프 Himalaya Base Camp												
	영남 알프스 VR체험 Yeongnam Alps VR Experience												
	라인홀트 메스너진 Reinhold Messner Exhibition												
	세계산악영화제 포스터전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Poster Exhibition												
	영남알프스 大腕(대호)전 Photography Exhibition 'Tiger & Leopard'												
	UMFF 미디어교실전 UMFF Media Class Exhibition												
	UMFF 책마루 UMFF Book Fair												
	UMFF 에코마켓(체험, 먹거리) UMFF Eco Market												
	UMFF 가족캠프 Huddling Family Camp												
	캠페인	환경정화캠페인 Campaign for Cleaning Up the Environment											

공연	힐링 스테이지 Healing Stage			힐링 스테이지 Healing Stage			힐링 스테이지 Healing Stage			끝자락 UMFF Sunset Music			
체험	트리클라이밍 나무노리 The Tree Climbing 'Namunori'												
	힐링산악트레킹 Healing Mountain Tracking												
10.2 일 Sun	히말라야베이스캠프 Himalaya Base Camp												
	영남 알프스 VR체험 Yeongnam Alps VR Experience												
	라인홀트 메스너진 Reinhold Messner Exhibition												
	세계산악영화제 포스터전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Poster Exhibition												
	영남알프스 大腕(대호)전 Photography Exhibition 'Tiger & Leopard'												
	UMFF 미디어교실전 UMFF Media Class Exhibition												
	UMFF 책마루 UMFF Book Fair												
	UMFF 에코마켓(체험, 먹거리) UMFF Eco Market												
	산사랑 미술대회(초중고등부) Yeongnam Alps Mountain Love Art Contest												
	경연	스케이팅보드 대회 Skateboarding Contest			스케이팅보드 대회 Skateboarding Contest			스케이팅보드 대회 Skateboarding Contest			스케이팅보드 대회 Skateboarding Contest		
캠페인	UMFF 가족캠프 Huddling Family Camp												
공연	힐링 스테이지 Healing Stage			힐링 스테이지 Healing Stage			힐링 스테이지 Healing Stage			끝자락 UMFF Sunset Music			
체험	트리클라이밍 나무노리 The Tree Climbing 'Namunori'												
	힐링산악트레킹 Healing Mountain Tracking												
10.3 월 Mon	히말라야베이스캠프 Himalaya Base Camp												
	영남 알프스 VR체험 Yeongnam Alps VR Experience												
	라인홀트 메스너진 Reinhold Messner Exhibition												
	세계산악영화제 포스터전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Poster Exhibition												
	영남알프스 大腕(대호)전 Photography Exhibition 'Tiger & Leopard'												
	UMFF 미디어교실전 UMFF Media Class Exhibition												
	UMFF 책마루 UMFF Book Fair												
	UMFF 에코마켓(체험, 먹거리) UMFF Eco Market												
	스케이팅보드 대회 Skateboarding Contest												
	캠페인	UMFF 가족캠프 Huddling Family Camp											

참여행사 FESTIVAL EVENTS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s

UMFF 책마루

산과 사람, 자연과 환경 등 산악문화와 관련된 도서를 전시 및 판매하고 현장에서 자유로운 독서를 할 수 있는 쉼터이자 전시공간

일시 9월 30일(금)-10월 4일(화)
10:30-21:00

장소 복합웰컴센터 전시존 B-1

협찬 반디앤루니스 롯데울산점, 한국산서회

UMFF Book Fair

Rest and exhibition area where people can freely read books on mountains and humans, nature and environment on display and for sale

Time Sep 30 (Fri) – Oct 4 (Tue)
10:30 – 21:00

Venue Exhibition Zone, B-1 in
Complex Welcome Center

Sponsor Bandi & Luni's Lotte Ulsan branch,
Korea Alpen Book Club

UMFF 미디어교실전

UMFF 미디어교실의 일환인 찾아가는 마을 미디어 교육 '마을, 카메라에 담다'와 장애 청소년 교육 '꿈꾸는 카메라'의 교육 결과물 전시. 배내골 이천마을 주민들이 직접 담은 배내골 풍광과 함께 아이들이 보는 세상, 아이들의 꿈을 만나볼 수 있다.

일시 9월 30일(금)-10월 4일(화) 10:30-18:30

장소 복합웰컴센터 전시존 B-1

주제 배내골 이바구, 꿈꾸는 우리들

UMFF Media Class Exhibition

Displaying works by participants from UMFF media classes such as visiting-village media class, 'Village, Photographed by Camera' and class for youth with disability, 'Dreaming Camera' Viewers can appreciate landscapes of Baenaegol, filmed by residents of Icheon Village in Baenaegol, the world observed from children's perspective and children's dreams.

Time Sep 30 (Fri) – Oct 4 (Tue) 10:30 – 18:30

Venue Exhibition Zone, B-1 in
Complex Welcome Center

Theme Baenaegol Story, Our Dreams

울주플랫폼 토크 클래스

영상공모전 울주플랫폼의 수상작 감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토크 클래스. 기성감독과 신인감독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기성감독의 코멘터리와 함께 평소 신인감독들이 궁금했던 점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일시 10월 3일(월) 15:00-17:00

장소 복합웰컴센터 일원

내용 기성감독의 수상작 코멘터리 및 영상제작, 영화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로 자유로운 대담

Ulju Platform Talk Class

Talk Classes for prize-winning directors in the filmmaking contest, Ulju Platform. Sharing corner where established and new directors get together. While the former offer commentaries, new directors ask questions freely and share information as well.

Time Oct 3 (Mon) 15:00-17:00

Venue Throughout the Complex Welcome Center

Theme Commentaries by established directors on prize-winning films. Free talk about filming and various subjects on overall film industry

UMFF 참여행사

트리 클라이밍 '나무노리'

숲 속에서 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을 느끼며 삶의 휴식을 제공하는 이색 산악문화 체험

일시 9월 30일(금)-10월 3일(월) 10:30-18:30

장소 간월재 등산로 입구 내 거북바위 주변

대상 일반관람객(6세이상)

신청 공식 홈페이지 사전접수 및 현장접수(선착순)

진행 웰빙영농조합법인

문의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업팀(김의종)

052-248-6451

놀터코스	트리클라이밍	로프를 이용한 나무 오르기
	짐라인/ 밧줄다리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동
쉼터코스	해먹	해먹 설치 및 힐링타임
	숲생태	확대경을 이용한 숲 살펴보기

Festival Events

The Tree Climbing 'Namunori'

Unique experience of mountain culture – various activities using trees for relaxation feeling nature in the forest.

Time Sep 30 (Fri) – Oct 3 (Mon)
10:30 – 18:30

Venue In the vicinity of Geobukbawi within the entrance to the trails of Ganwoljae

Participants General audience (aged six and over)

Registration Register in advance on the official website or at the venue (first-come first-served basis)

Management Well-being Farming Association

Contact UMFF operation team(KimUijong)
052-248-6451

Fun Course	Tree Climbing	Climbing trees using ropes
	Zipline/ Rope Bridge	Moving between trees
Relaxation course	Hammok	Sling a hammock and enjoy some healing time
	Forest Ecology	Examining forests using a magnifying glass



트리 클라이밍 '나무노리'



힐링산악트레킹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영남알프스를 전문 스토리텔러와 함께하는 산악 트레킹 체험

일시 9월 30일(금)~10월 3일(월)
10:30~21:30 (1일 1회/ 총 4회)
대상 일반관광객(중학생 이상)
신청 공식 홈페이지 사전 접수(선착순)
인원 1일 40명 (20명씩 2팀 운영)
진행 (사)영남알프스 천화
스토리텔러 배성동(작가), 박을규(산악인), 김혜진(기록사진가)
문의 울주세계산악악화제 사업팀(김의중)
052-248-6451

Healing Mountain Tracking

Mountain tracking with a professional story teller in Yeongnam Alps boasting beautiful scenery.

Time Sep 30 (Fri) – Oct 3 (Mon)
10:30 – 21:30
(one time a day /four times in all)
Participants General audience(middle schoolstudents and above)
Registration Register in advance on the official website(first-come first-served basis)
Number of people 40 per day (two teams of 20 people respectively)
Management Yeongnam Alps Chun hwa Inc.
Storyteller BAE Sungdong(author), PARK Eulgyu(mountaineer), KIM Hyejin(documentary photographer)
Contact UMFF operation team(KimUijong)
052-248-6451

일정	코스	난이도
9.30(금)	복합웰컴센터 → 홍류폭포 → 간월재 → 복합웰컴센터	하
10.1(토)	복합웰컴센터 → 간월재 → 왕방골 → 파래소폭포 신불산휴양림 하단 → 버스이동 → 복합웰컴센터	중
10.2(일)	복합웰컴센터 → 간월재 → 간월산 → 배내봉 배내고개 → 버스이동 → 복합웰컴센터	중
10.3(월)	복합웰컴센터 → 홍류폭포 → 간월재 → 복합웰컴센터	하

Schedule	Course	Difficulty
9.30 (Fri)	Complex Welcome Center → Hongryu Waterfall → Ganwoljae → Complex Welcome Center	Low
10.1 (Sat)	1. Complex Welcome Center → Ganwoljae → Wangbanggol → Pareaso Falls 2. Sinbulsan Mountain → Complex Welcome Center	Medium
10.2 (Sun)	1. Complex Welcome Center → Ganwoljae → Ganwolsan Mountain → Baenaebong 2. Baenaegogea → Bus → Complex Welcome Center	Medium
10.3 (Mon)	Complex Welcome Center → Hongryu Waterfall → Ganwoljae → Complex Welcome Center	Low

*Please apply after checking the difficulty level of courses as it differs day to day.

히말라야베이스캠프 체험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전문산악인들의 베이스캠프를 소개. 히말라야 등정기 소개, 다양한 등산장비의 사용법 교육, 네팔 현지음식 시식 등 이색 체험 프로그램

일시 9월 30일(금)~10월 4일(화) 10:30~18:30
장소 복합웰컴센터 체험존
대상 일반관광객
체험내용 다양한 등산장비 소개 및 사용법 교육, 네팔 현지음식 시식(달밭, 짜파티, 네팔차)
신청 현장접수
진행 (사)한국산악회 울산광역시지부

Himalaya Base Camp

Introduction of base camps of professional mountaineers scaling the Himalayas Programs of unique experience including introduction of mountain climbers' log on Himalaya, instructions on how to use various climbing equipment, tasting Nepalese dishes

Time Sep 30 (Fri) – Oct 4 (Tue)
10:30 – 18:30
Venue Experience Zone in Complex Welcome Center
Participants General audience
Activities Introduction of various climbing equipment and instructions on usage, tasting Nepalese cuisine (dalbhat, chapatti, Nepalese tea)
Registration Register at the venue
Management Corean Alpine Club Ulsan Branch

영남알프스 VR체험

익스트림 스포츠 전문가가 직접 촬영한 독특한 시선의 영남알프스를 VR(가상현실)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

일시 9월 30일(금)~10월 4일(화) 10:30~18:30
장소 복합웰컴센터 체험존
대상 일반관광객
신청 현장접수
영상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 하치경, 현대미디어ONT 촬영·편집

Yeongnam Alps VR Experience

VR experience of Yeongnam Alps shot from a distinctive perspective by extreme sports athletes.

Time Sep 30 (Fri) – Oct 4 (Tue)
10:30 – 18:30
Venue Experience Zone in Complex Welcome Center
Participants General audience
Registration Register at the venue
Image Shot and edited by Ha Chikyong, a member of the national paragliding team and Hyundaimedia ONT



힐링산악트레킹



히말라야베이스캠프 체험



영남알프스 VR체험

UMFF 참여행사

UMFF 끝자락

해질 무렵 야간 영화상영 전 UMFF시네마에서 펼쳐지는 매일매일 새로운 장르의 음악 선물

일시 10월 1일(토) - 10월 4일(화) 18:30 - 19:30
장소 UMFF시네마

일시	컨셉	출연
10.1(토)	크로스오버 데이	울산시립교향악단/ 바리톤 석상근, 소프라노 신재은
10.2(일)	인디 데이	바버렛츠/ 착한밴드 이든
10.3(월)	재즈 데이	Shalosh(이스라엘트리오)/ 치카티카 브라운사운드
10.4(화)	발라드 데이	박상민/ 이은아(허튼싱어)

UMFF 힐링스테이지

관람객에게 음악으로 심을 주는 인디 뮤지션들의 힐링 어쿠스틱 공연

일시 10월 1일(토) - 10월 4일(화) 11:00/16:00
장소 복합웰컴센터 마당

일시	11:00 - 12:00	16:00 - 17:00
10.1(토)	윈디데이	해피싱어 재환& 시노래 박경하
10.2(일)	오카리나 김천& 오카리나 이순	온더스트릿
10.3(월)	포크싱어 박정호& 해금 김근영	나니프리즈
10.4(화)	어썸	너루

Festival Events

UMFF Sunset Music

At sunset, music of different genre is presented everyday at UMFF Cinema before night film screening.

Time Oct 1 (Sat) - Oct 4 (Tue) 18:30 - 19:30
Venue UMFF Cinema

Schedule	Concept	Guest
10.1(Sat)	Crossover Day	Ulsan Philharmonic Orchestra/ Baritone Seok Sang-Geun, Soprano Shin Jae-eun
10.2(Sun)	Indie Day	The Barberettes/ The Goodband Eden
10.3(Mon)	Jazz Day	Shalosh(Israeli Trio)/ Chikatika Brown Sound
10.4(Tue)	Ballad Day	Park Sang Min/ Lee Euna

UMFF Healing Stage

Healing acoustic performances by Indie musicians, providing the audience with relaxation by music

Time Oct 1 (Sat) - Oct 4 (Tue) 11:00/16:00
Venue Yard of Complex Welcome Center

일시	11:00 - 12:00	16:00 - 17:00
10.1(Sat)	WindyDay	Chae Hwan & Bak Gyeongha
10.2(Sun)	Ocarist Gim Cheon & FOREST OF THE OCARINA	On The Street
10.3(Mon)	Folk singer Bak Jeongho & Haegeum (two-string vertical fiddle)	NaniFreeze
10.4(Tue)	Awesome	Neru

세계산악영화제 포스터전

세계산악영화협회(IAMF)에 소속된 21개의 영화제 및 박물관을 포함하여 세계각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산악영화제들을 소개하는 전시

일시 9월 30일(금) - 10월 4일(화) 10:30 - 18:30
장소 복합웰컴센터 전시존 B-2
후원 국제산악영화협회(IAMF)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Poster Exhibition

Exhibition introducing various mountain film festivals hosted around the world including 21 film festivals and museums affiliated with IAMF, International Alliance for Mountain Film

Time Sep 30 (Fri) - Oct 4 (Tue) 10:30 - 18:30
Venue Exhibition Zone, B-2 in Complex Welcome Center
Sponsor International Alliance for Mountain Film

영남알프스 大虎(대호)전

과거 영남알프스 일대를 호령했던 대호(호랑이, 표범)가 일제 강점기 이후 사라지게 된 배경을 사진과 문헌을 통해 보는 전시

일시 9월 30일(금) - 10월 4일(화) 10:30 - 18:30
장소 복합웰컴센터 전시존 B-1
진행 (사)영남알프스 천화

Photography Exhibition 'Tiger & Leopard'

Exhibition displaying pictures and documents that show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how gigantic tigers (tigers and leopards) which had roamed the whole area of Yeongnam Alps disappeared after the Japanese colonization

Time Sep 30 (Fri) - Oct 4 (Tue) 10:30 - 18:30
Venue Exhibition Zone, B-1 in Complex Welcome Center
Management Yeongnam Alps Chun hwa Inc.



UMFF 참여행사

스케이트보드대회 및 초청선수 시범공연

레드불 소속 국내외 최정상 선수들이 펼치는 스케이트보드 시범공연과 국내 아마추어 선수들의 스케이트보드 대회

일시	10월 2일(일) - 10월 3일(월) 12:00 - 15:00
장소	UMFF시네마
부분	런 대회, 알리 높이뛰기, 알리 멀리뛰기, 베스트 트릭 콘테스트
초청선수	토리 퍼드윌(미국), 자이언 라이트(미국), 최재승(대한민국)
신청	공식 홈페이지 사전접수
진행	레드불 코리아
문의	케이던스(조양수) 070-8884-2558

yeongnam 알프스 산사랑 미술대회

yeongnam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과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주제로 미술대회 개최

일시	9월 30일(금) 10:00 - 14:00(미취학부) 10월 2일(일) 10:00 - 15:00(초·중·고등부)
장소	복합웰컴센터
부분	미취학부(만3세부터), 초·중·고등부
재료	자유형식(그림물감, 크레파스, 색연필 등 자유)
신청	공식 홈페이지 사전접수
시상	총 184명(각 부문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특선, 입선, 지도자상)
진행	지앤갤러리
문의	지앤갤러리(김근숙) 052-975-1015

Festival Events

Skateboarding Contest and Exhibition Performance by Invited Athletes

Exhibition performance by world-class foreign and Korean athletes of Red Bull and skateboarding contest by Korean amateur athletes

Time	Oct 2 (Sun) - Oct 3 (Mon) 12:00 - 15:00
Venue	UMFF Cinema (outdoor screen)
Session	First Run, Final Run, Ollie Contest, Longest Ollie Contest, Best Tricks Contest
Invited athletes	Torey Pudwill (US), Zion Wright (US), Jason Choi (Korea)
Registration	Register in advance on the official website
Management Contact	Red Bull Korea Kadence(CHO Yangsoo) 070-8884-2558

Yeongnam Alps Mountain Love Art Contest

Art Contest on the theme of beautiful scenery of Yeongnam Alps and UMFF

Time	Sep 30 (Fri) 10:00 - 14:00 (preschool) Oct 2 (Sun) 10:00 - 15:0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Venue	Complex Welcome Center
Session	Preschoolers (age three and olde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aterial	free style (Pigment, Pastel Crayons, Colored Pencils etc.)
Registration	Register in advance on the official website
Awards	184 in total (Grand Prix, Golden Art Award, Silver Art award, Bronze Art Award, Special Selection Award, Award-Winning, leader Award)
Management Contact	G&Gallery G&Gallery(KIM Gunsook) 052-975-1015

UMFF 에코마켓

로컬푸드로 만든 친환경 먹거리와 수공예품을 소개·판매하는 오픈마켓

일시	9월 30일(금) - 10월 3일(월) 10:30 - 19:00
장소	복합웰컴센터 플라마켓존
진행	태화강 에코마켓

용기종기 가족캠핑

일상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재충전. 작천정 별빛야영장에서 가족단위 캠핑 마니아를 위한 캠프 프로그램

일시	10월 1일(토) - 10월 3일(월) (2박 3일)
장소	작천정 별빛야영장
대상	가족단위 캠핑 마니아
신청	캠핑요리, 노르딕 워킹 강습, 캠핑장 내 심야 야외 영화 상영
영상	공식홈페이지 사전접수(추첨)
진행	현대미디어ONT
문의	현대미디어(백승헌) 070-8109-2519

UMFF Eco Market

Open market introducing and selling eco-friendly food made of local ingredients and handicrafts

Time	Sep 30 (Fri) - Oct 3 (Mon) 10:30 - 19:00
Venue	Flea market Zone in Complex Welcome Center
Management	Taehwa River Eco market

Huddling Family Camp

Take some time off from daily life to recharge in nature. Camping programs in the Jakcheonjung Campingzone for families with a penchant for camping

Time	Oct 1 (Sat) - Oct 3 (Mon)
Venue	Jakcheonjung Campingzone
Participants	Families with a penchant for camping
Programs	Camping cuisine, Nordic Walking Class, Late-night Film screening in the camping zone
Registration	Register in advance on the official website (determined by lots)
Management Contact	Hyundaimedia ONT Hyundaimedia (BAEK Seunghun) 070-8109-2519



스케이트보드대회 및 초청선수 시범공연



UMFF 에코마켓



용기종기 가족캠핑

UMFF 참여행사

푸드코트 & 푸드트럭

이색적이고 이국적인 세계의 먹거리로 가득한 푸드존

일시 9월 30일(금)-10월 4일(화) 10:30-22:00

장소 복합웰컴센터 푸드존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투어

영화제 관람 및 지역 문화관광지 투어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일시 9월 30일(금)-10월 4일(화)

대상 일반관람객

신청 홈페이지 사전접수

진행 베스트여행사

문의 베스트여행사(문종해) 1566-7786

1박2일	반구대암각화,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웅기마을, 간절곶
당일	간월재 트레킹,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야간	태화강 전망대, 야간영화 상영

환경정화캠페인

올바른 산행문화 조성과 정착을 위해 영남알프스 일원을 4개의 코스로 나누어 환경정화 캠페인

일시 10월 1일(토) 8:00-15:00

대상 울산산악연합회 회원

진행 울산산악연합회

Festival Events

Food court & Food truck

Food zone full of unique and exotic food from all over the world

Time Sep 30 (Fri) - Oct 4 (Tue) 10:30 - 22:00

Venue Food Zone in Complex Welcome Center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our

Viewing UMFF & Touring cultural tourist sights

Time Sept 30 (Fri) - Oct 4 (Tue)

Participants General audience

Registration Register in advance on the official website

Management Best Tour

Contact Best Tour(Moon Jong Hae) 1566-7786

Two days	Bangudeaamgakhwa, UMFF, onggi maul, Ganjulgot
First day	Ganwoljae tracking, UMFF
Night	Taehwa River observatory, late-night movie screening

Campaign for Cleaning Up the Environment

Campaign to clean up the environment by dividing Yeongnam Alps area into four sections with a view of promoting and achieving a sound mountain climbing culture

Time Oct 1 (Sat) 08:00 - 15:00

Participants Members Alpine Club Ulsan

Management Alpine Club Ulsan

UMFF 2016 도움주신 분들

강경목, 백성열, 신원철, 윤선영	DHL
김근숙	지앤갤러리
김두일	울산산악연합회
김선중	태화강 에코마켓
김성일, 장용재	현대미디어 ONT
김태호	알프스온천모텔
김홍재	울산시립교향악단
박상현	베스트여행사
박성배, 김소영	웰빙숲 체험마을
박재범, 황영진	금양인터내셔널
배성동, 김혜진	(사)영남알프스 천화
서정목	안양알프스시장상인회
손남숙	솔베이지모텔
송용덕, 배병인	롯데호텔
신석기	간월산온천호텔
신창호, 김상신	SM 리조트
유주현	레드불코리아
이경희, 이선진	영화진흥위원회
이상호, 최영식	(사)한국산악회울산광역시지부
이정숙	몸부림 모텔
장연신	작천정펜션
정선자	알프스온천 번영회
정연지	GD투어
정재환	트레비어
최성복	스카이호텔콘도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투어



환경정화캠페인

상영본 제공처

Adventure of Fear, An
Cristina VILCHES ESTELLA
C/Jardines de Atenas nº1 2ºc c.p
50003 zaragoza, Spain
animationcristina@gmail.com

Africa Fusion
Fresh Rock Films
Robert BREYER
robertbreyer@gmail.com
www.africafusion.co.za

Alpinist
Minch&Films
102, 3, Jahamun-ro 33ga-gil,
Jongno-gu, Seoul, Korea
KIM Minchul
82 2 730 0747
himinchul@gmail.com

Always above Us
Sherpas Cinema
8-1006 Lynham Rd. Whistler, BC,
Canada, VON 1B1
Steve HENDERSON
1 604 962 1212
steve@sherpascinema.com
www.sherpascinema.com

Ascension
Autour de Minuit
21, rue Henry Monnier Paris Non
Applicable France 13200
33 1 42 81 17 28
info@autourdeminuit.com

Big Men
FILMUT.COM
Rambla Onze de Setembre, 13,
4t 1a, 17244 Cassà de la Selva,
Girona, Spain
Jordi CANYIGUERÀ
34 687 90 68 52
info@filmut.com
www.filmut.com

BoulderTing
LEE Sungjae
Xstrong.jae@gmail.com

**Breakaway from
Stuff Daily Life**
JEONG Hee-jung

82 10 3292 1839
383200@naver.com

Cailleach
Scottish Documentary Institute
Evolution House - 78 West Port,
Edinburgh, EH1 2LE, Scotland,
UK
Eve KORZEC
44 131 651 5772
eve@sotdoc.com

Chasing Niagara
Red Bull Media House GmbH
Oberst-Lepperdinger-Straße
11 - 15, 5071 Wals near
Salzburg, Austria
Lisa STOLZE
43 662 2240 0

**Chris Bonington
- Life and Climbs**
Mountain Network srl
via Decorati al valor civile,
57/a, 35142 Padova, Italy
Vinicio STEFANELLO
T. 39 049 8808423
F. 39 049 8670843
info@planetmountain.com
www.planetmountain.com

Coast, The
Wazee Motion Pictures
PO Box 2527 White Salmon,
Washington 98672, USA
Skip ARMSTRONG
1 208 401 4378
skipartmstrong@gmail.com
http://www.wazeemotion
pictures.com/

Cycle
JUN Hyeon-gyo
82 10 7303 6787
jyy022834@naver.com

Darklight
Sweetgrass Productions
PO Box 1222 Salida CO USA
81201 Claude DEMOSS
1 719 221 1731
gritandthistledistribution
@gmail.com

http://www.sweetgrass-
productions.com/

Denali
Felt Soul Media
Travis RUMMEL
1 970 596 6978
travis@felsoulmedia.com
www.felsoulmedia.com

Docu Yourself. Chapter 8. Higi
Itxaso DIAZ
00346 4427 7470
diazitxaso@gmail.com
www.itxasodiaz.com

Drawing the Tiger
Nonfiction Media
Amy BENSON
1.206.407.6470
benson@nonfictionmedia.com
www.drawingthetiger.com

E.B.C. 5300M
ECAL Ecole Cantonale d'Arts
de Lausanne
Champs-Ethevenots 101, 2416
Les Brenets, Switzerland
Léonard KOHLI
0041 76 597 28 79
leok@sunrise.ch

Echoes
Earthling Productions
8, rue de la Coulouvrenière,
1204 Genève, Suisse
Eloïse CHATELAIN
41 22 55 00 413
info@earthling-prod.net
http://earthling-prod.net

Eclipse
Switchback Entertainment Inc
2742 Cheakamus Way Whistler
BC Canada VON 1B2
Mike Douglas
1 604 935 2995
mike@switchback
entertainment.com
www.switchback
entertainment.co

Film Sources

Epic of Everest, The
British Film Institute
21 Stephen Street W1T
1LN London, UK
Rod RHULE
44 20 7255 1444
rod.rhule@bfi.org.uk
http://www.bfi.org.uk

Female Climber
PARK Yeram
82 10 3131 1623
dlfpsk12@naver.com

**First Ascent - Kunyang Chhish
East**
Storyteller-Labs
Via Della Croce 20, 32032 Feltre,
Italy
Matteo VETTORELLI
39 3463147132
adm@storyteller-labs.com
http://storyteller-labs.com

Following
CINEMA DAL
2F, 11-3, Sungkyunkwan-ro
5-gil, Jongno-gu, Seoul, Korea
KIM Ilkwon
82 2 337 2135
dal@cinemadal.com

Golden Gate
Louder than Eleven
PO BOX 344, Boulder, CO 80306
USA
Jon GLASSBERG
1 704 975 4046
jon@lt11.com
https://
jonglassberg.exposure.co/
golden-gate

Good Man
INDIESTORY
4F, Jahamunro 9gil 15, Jongno-
gu, Seoul, Korea
CHOI Hyoju
82 2 722 6051
indiestory@indiestory.com
www.indiestory.com

Great Alone, The
Reel As Dirt
Greg KOHS
kohs@reelasdirt.com
www.reelasdirt.com
Hangers and Violin Strings in
Pakistan
VERTIGES PROD
Marie-France COUTURE
41 78 725 39 82
marie-france@vertigesprod.ch
www.vertigesprod.ch
New Challenge

High & Mighty
Sender Films+Big UP
551 Marine Street, Boulder, CO
80302, USA
Greg Laut
1 303 593 0600
info@senderfilms.com
http://senderfilms.com

**Ice Climbing in Towangung
Falls**
NAM Haewon
82 10 7448 2848
heparee@empal.com

Important Places, The
GNARLY BAY PRODUCTIONS,
INC.
Dan RIORDAN
1 401.474.4012
gnarlybay@gmail.com
www.gnarlybay.com

Into the Light
Redbull Media House GmbH
Oberst - Lepperdinger Straße
11-15, 5071 Wals, Austria
Katharina RETTENBACHER
43 662 224 021 491
katharina.retttenbacher@at.red
bullmediahouse.com
Oberst-Lepperdinger-Straße
11- 5071 Wals, Salzburg, Austria

Into the Mountain
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
o.50, Ln. 75, Sec. 3, Kangnin
Taipei City N/A Taiwan 234
CHUANG Shiang-An

88 02 2633 2000
prg50108@mail.pts.org.tw
http://www.pts.org.tw/

I-View
341 Production
Via Trento 26, 24035 Curno BG,
Italy
Claudio ROSSONI
39 035 077 0043
info@341production.com
www.341production.com

Journey Home, The
Medusa Distribuzione
Strada Statale 1 Variante Aure
Roma Lazio Italia 00197
39 02 25141
info@medusa.it
http://www.medusa.it

Jurek
Krakow Film Foundation
Basztowa 15/8a, 31-143 Krakow,
Poland
Katarzyna Wilk
48 12 2946945
katarzyna@kff.com.pl
http://www.polishdocs.pl/

K2 and the Invisible Footmen
Caipirinha Productions
65 Broadway, Suite 807 New
York NY USA 10006
Gillian MAXWELL
1 212 379 6430
asst2log@culturesofresis-
tance.org
culturesofresistancefilms.com

Kaxkagorri
REC producciones
Joxe Ramon AGIRRE
34 615 781287
lurra2@hotmail.com
http://www.marronlurra.com/

Keep Exploring
Mathieu Le Lay Productions
33(0)684798460
mathieu.lelay@gmail.com
www.mathieulelay.com

상영본 제공처

Kroger's Canteen

The African Attachment
Unit 102, First Floor Salt Circle
19 Kent Road,
Woodstock Cape
Town 7925, South Africa
Greg FELL
27 83 713-4332
info@theafrica
nattachment.com
www.theafrica
nattachment.com

Last Great Climb, The

Hot Aches Productions
13 Roman Court, Pathhead,
Scotland, EH37 5AH, UK
Paul DIFFLEY
44 7799 890993
paul@hotaches.com
www.hotaches.com

Line Across the Sky, A

Sender Films+Big UP
551 Marine Street, Boulder,
CO 80302, USA
Greg Laut
303-593-0600
info@senderfilms.com
http://senderfilms.com

Man Up

AniSEED
3F, Seeun Bldg., Ehwa-dong
5-10, Jongno-gu, Seoul, Korea
KO Yujeong
82 2 313 1030
kaniseed@naver.com
http://www.kiafa.org

Meru

Park Circus Limited
1 Park Terrace, Glasgow G3 6BY,
UK
Phil Kennedy
44 (0) 141 332 2175
phil@parkcircus.com
www.parkcircus.com

Mountain Bikes and Bothy Nights

Alastair Humphreys
alastair@alastairhump-
reys.com

http://www.alastairhump-
reys.com/

Mountain in Ulsan

KIM Jinkook
82 10 2693 2090
jin106@nate.com

Nanga Parbat

Media Soft
Suit No. 1209, Eonju-ro 118,
Gangnam-gu, Seoul, Korea
Tony Kim
82 2 573 2957

New Challenge

KIM Jihyuk
82 10 3559 2478
magic2478@naver.com

Newly Coming Seasons, The

INDIESTORY
4F, Jahamunro 9gil 15,
Jongno-gu, Seoul, Korea
CHOI Hyoju
82 2 722 6051
indiestory@indiestory.com
www.indiestory.com

Noir

AniSEED
3F, Seeun Bldg., Ehwa-dong
5-10, Jongno-gu, Seoul,
Korea
KO Yujeong
82 2 313 1030
kaniseed@naver.com
http://www.kiafa.org

Operation Moffat

Light Shed Pictures
Jen RANDALL
44 07861231423
lightshedpictures
@gmail.com
http://www.lightshe
dpictures.com/

Panaroma

Namuss Films
Gerard PERIS
34 619 962 808
info@namussfilms.com
www.namussfilms.com

Place, The

Krakow Film Foundation
Basztowa 15/8a, 31-143
Krakow,
Poland
Katarzyna Wilk
48 12 2946945
katarzyna@kff.com.pl
http://www.polishdocs.pl/

Prohibido Escalar

Zaunka
C/ Oriana 23 7B Madrid Madrid
España 28840
Dani Castillo Viguri
619 85 03 06
dani.castillo.viguri@gmail.com
www.zaunka.com

Reach Your Limits

XCoPublising
bul. Cherni Vrah 90, Sofia,
Bulgaria
Dimitar DIMITROV
35 9894505179
info@xcosports.com
www.xcosports.com

Redemption:

The James Pearson Story

Hot Aches Productions
13 Roman Court, Pathhead,
Scotland, EH37 5AH, UK
Paul DIFFLEY
44 7799 890993
paul@hotaches.com
www.hotaches.com

Salween Spring

202 Mt. Baker Ct. W Ellensburg
WA USA 98926
Will Stauffer-Norris
willsn@gmail.com

Samuel in the Clouds

Deckert Distribution
Gottschedstraße 18
Leipzig Saxony Germany 04109
Ina ROSSOW
49 341 215 66 38
info@deckert
-distribution.com
http://deckert
-distribution.com

Film Sources

Shifting Ice + Changing Tides

Kt Miller Creative,
LLCPO Box 1186 Cooke City
MT United States 59020
Kt Miller
1 406 838 2267
ktmillerphoto@gmail.com
www.shiftingice.org

Showdown at Horseshoe Hell

Sender Films+Big UP
551 Marine Street, Boulder,
CO 80302, USA
Greg Laut
303 593 0600
info@senderfilms.com
http://senderfilms.com

Snowflake

DPS Cinematic
Dan BENSHOFF
1 860-378-9136
dan.benshoff@dpsskis.com
http://www.dpsskis.com/

Special Trip

WOO Junhee
82 10 8385 7486
junheewoo00@gmail.co

Spitting Distance

Redbull Media House GmbH
Katharina RETTENBACHER
3 662 224 021 491
katharina.rettentbacher@
at.redbullmediahouse.com
Oberst-Lepperdinger-Straße
11- 5071 Wals, Salzburg, Austri

Story of Annapurna

Anna's Cholatse
1866, Jongdal-ri, Gujwa-eup,
Jeju-si, Jeju-do, Korea
Anna
82 10 9079 1103
kingeyes74@hanmail.net
www.annascholatse.com

Summer of Antarctica, The INDELIN

Producer Zone A 101, A-8F, 330,
Seongam-ro, Mapo-gu, Seoul,
Korea

KIM Daehyun
indeline@gmail.com

Time of Two Boys, The

AniSEED
3F, Seeun Bldg., Ehwa-dong
5-10, Jongno-gu, Seoul, Korea
KO Yujeong
82 2 313 1030
kaniseed@naver.com
http://www.kiafa.org

Tom

Kottom Films
Elena GOATELLI
39 3451381575
kottomfilms@gmail.com
www.kottomfilms.co

Trail Angel

Talweg Creative
369 Montezuma Ave. #228
Santa Fe, NM 87501, USA
Gillian BRASSIL
1 505 428-9124
Gillian@talwegcreative.com
Talwegcreative.com

Ullung, Island

LEE Sungjae
Xstrong.jae@gmail.com

Wingmen

XTREME VIDEO
59 Redchurch street Shoreditch
London UK 11
Eduardo MOREAU
44 7749 102519
emoreau@x-tremevideo.com
www.x-tremevideo.com

작품색인

A-Z		ㅅ	
45	E.B.C. 5300M	84	새로운 도전
67	Good Man	70	서퍼
45	I-View	40	소중한 순간들
27	K2: 보이지 않는 걸음	31	스토리 오브 안나푸르나
ㄱ		ㅇ	
81	경쟁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	51	아프리카 퓨전
28	고독한 승리	79	알피니스트
37	골든게이트	32	어크로스 더 스카이
61	괴물 포보스씨	81	엄마의 시간
29	구름 위의 사무엘	73	에픽 오브 에베레스트
53	그리고 우리	83	여성 등반가
71	그린란드	46	오르다
68	까망이	82	외계미남 상형씨
82	꽃밭에 술	74	운명의 산: 낭가 파르밧
61	끝없는 발견	54	울렁, 도
		84	울산의 산
		84	원
81	나홀로 지구에	58	윙맨
49	남극의 드림팀	33	유렉
77	남극의 여름	41	이클립스
57	내 친구 나누크	83	일탈
68	노강의 봄		
37	눈송이		
		52	제임스 피어슨 이야기
ㄴ		ㅈ	
69	다섯 번째 계절		
62	다큐 유어셀프	59	체이싱 나이아가라
62	다크라이트		
82	달으로 간 Ic신들		
38	더 플레이스	41	카스카고리
38	두 소녀의 시간	63	컨츄리 바이커
39	드날리	42	쿠냥 초히시 동봉
53	등반금지	71	크로거 산장
69	등산	42	크리스 보닝턴의 삶과 등반
ㄷ		ㅊ	
67	맨 업	83	토왕성폭포 빙벽등반
25	메루	34	툼
30	메아리 마을	64	트레일 엔젤
70	모락 할매	83	특별한 여행
39	모팻과 나		
81	물의 소중함		
78	미행	43	파나로마
		82	평범한 동원이
ㄹ		ㅎ	
63	바람의 선물		
54	볼더팅	55	하이 & 마이티
40	빅맨	35	한계는 있다
50	빛을 따라서	36	호랑이 그리기
		43	홀스슈 목장의 무법자들
		60	화산속으로

Index of Films

A		I		S	
61	Adventure of Fear, An	82	I am Super Normal	68	Salween Spring
51	Africa Fusion	83	Ice Climbing in	29	Samuel in the Clouds
82	Aliens love me		Towangsung Falls	71	Shifting Ice +
79	Alpinist	40	Important Places, The		Changing Tides
53	Always above Us	50	Into the Light	43	Showdown at
82	Anthophobia	69	Into the Mountain		Horseshoe Hell
46	Ascension	45	I-View	37	Snowflake
				83	Special Trip
B		J		T	
40	Big Men	57	Journey Home, The	60	Spitting Distance
54	BoulderTing	33	Jurek	31	Story of Annapurna
83	Breakaway from			77	Summer of
	Stuffy Daily Life				Antarctica, The
C		K		U	
		27	K2 and the Invisible		
70	Cailleach	41	Footmen	38	Time of Two Boys, The
59	Chasing Niagara	61	Kaxkagorri	34	Tom
42	Chris Bonington -	71	Keep Exploring	64	Trail Angel
	Life and Climbs		Kroger's Canteen		
70	Coast, The			54	Ullung, Island
84	Cycle	49	Last Great Climb, The		
		32	Line Across the Sky, A	58	Wingmen
D		M		W	
62	Darklight				
39	Denali	67	Man Up		
62	Docu Yourself.	25	Meru		
	Chapter 8. Higi	81	Mother's Own Time		
36	Drawing the Tiger	63	Mountain Bikes and		
82	Dumb and Dumber		Bothy Nights		
		84	Mountain in Ulsan		
E		N		O	
45	E.B.C. 5300M			81	My Life is Full of
81	Earth, Alone				Competition
30	Echoes			N	
41	Eclipse	74	Nanga Parbat		
73	Epic of Everest, The	84	New Challenge		
		69	Newly Coming		
F		O		P	
83	Female Climber	68	Noir		
42	First Ascent -				
	Kunyang Chhish East	39	Operation Moffat		
78	Following				
G		P		R	
37	Golden Gate	43	Panaroma		
67	Good Man	38	Place, The		
28	Great Alone, The	81	Preciousness of Water		
		53	Prohibido Escalar		
H		R		R	
63	Hangers and Violin			35	Reach Your Limits
	Strings in Pakistan			52	Redemption: The
55	High & Mighty				James Pearson Story

발행인
박재동

Publisher
PARK Jaedong

책임편집
최선희

Chief Editor
Billy CHOI

편집
김혜원

Editor
KIM Hyewon

프로그램 노트
최선희
김형석
최유진
신영철
장보영
배경미

Program Notes
Billy CHOI
KIM Hyungseok
CHOI Yu-jin
SHIN Youngchul
JANG Boyoung
Christine PAE

콘텐츠
유정화
유선아
이서하
최희진
이나경
신지숙
김혜원

Contents
RYOO Jeonghwa
YU Seonah
LEE Seoha
Iveta CHOI
LEE Nagyong
Jisook Gemma SHIN
KIM Hyewon

번역
이지훈
이지행
이현정
김시내

Translation
Laz
LEE Jeeheng
ROC LEE
Cine KIM

디자인
Studio fnt

Design
Studio fnt

인쇄
새운인쇄

Print
Seun Printing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무국
Ulju Mountain Film Festival

4495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온천5길 103-8 영남알프스 산악문화센터 2층
103-8, Alpeuseuoncheon 5-gil, Ulju-gun, Ulsan, Korea 44952
T. 82 52 229 6450 | F. 82 52 248 6455 | www.umff.kr

*본 책자는 9월 6일자로 출판되었습니다. 이후의 변동사항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his catalogue was printed off on September 6. Please check our official website for any changes after September 6.



안데스 산맥의 페루아를 온전히 담아낸

TRAPICHE OAKCASK MALBEC

트라피체 오크캐스크 말벡

아르헨티나의 국가대표 와인 브랜드이자 말벡 열풍의 선두주자 '트라피체' 오크캐스크 말벡은 검은 후추, 블랙체리, 플럼의 향이 잘 어우러진 아르헨티나 대표 말벡와인으로 매우 뛰어난 텍스처와 부드러운 탄닌, 오랫동안 지속되는 깊은 여운을 자랑합니다.

판매처 국내 유명 백화점 | 호텔 | 주요 레스토랑 | 02-2109-9200 | www.keumyang.com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간염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직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영화한편 맥주한잔



산 좋고 물 좋은 언양이 만들어 낸,
신선한 수제맥주
트레비어

BANDI/LUNI'S

반디앤루니스

Trend of Intellectual Lifestyle

반디앤루니스는 1988년을 시작으로 28년간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 트렌드 리더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해 온 문화 기업입니다. 도서를 비롯한 다양한 문구와 음반, 맛있는 커피까지, 도심에서 즐기는 원스탑 컬러 쇼핑을 반디앤루니스에서 만나보세요!

영업점 안내

신세계강남점	02-530-0700	롯데울산점	052-257-5110
신세계센텀시티점	051-750-2900	신세계김해점	055-272-1465
롯데월드물점	02-411-1500	롯데물수원점	031-280-1700
사당역점	02-3487-4747	롯데스타시티점	02-2218-3050
신림역점	02-888-1330	목동점	02-2163-2251
현대일산점	031-822-3870	서강점	02-703-6640
반디앤루니스 온라인 서점(bnl.co.kr)		1577-4030	

반디앤루니스 옴니채널 서비스 북셀프 3.0

온라인 할인가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즉시 받는,
번거로웠던 반품/교환까지 이제, 가까운 매장에서 해결하세요.



모바일웹
m.bnl.co.kr



모바일 App
다운로드

반디앤루니스 모바일로 북셀프를 이용해 보세요.

ONT
아웃도어 & 여행 채널



www.onttv.co.kr

Fresh & Refresh



당신이 Refresh할 수 있도록
언제나 Fresh하게

오늘도 바쁘고 복잡한 일상을 사는 당신,
언제나 프레쉬한 상품과 서비스로
당신의 삶이 리프레쉬 되기를 바랍니다

Fresh & Refresh
CU
CU is for you



MOUNTAIN & MOUNTAIN

月刊 사랑과 M

정기구독 02-2082-8833

www.mountainkorea.com
www.facebook.com/mountainkorea

월간 MOUNTAIN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산'을 만나세요!



가장 생생한 등산정보
www.emountain.co.kr
facebook.com/enjoymountain

정기구독 문의 02-792-7010
emountain@emountain.co.kr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10-3 성인빌딩 4층



SINCE 1969

‘산, 사람, 삶’

산은 일상입니다.

산은 삶입니다.

산은 인생입니다.

산에서 부는 바람에서 일상 속 맑은 방울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산에 자라는 노송에서 삶의 곳곳한 의지를 배웁니다.

산의 바위에서 인생의 우직함을 배우고, 산의 꽃들에서 즐겁게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산을 기다리십니까?

산이 그리다면, 산의 넓은 품에 안기고 싶다면

〈월간산〉이 여러분의 산을 현실로 이루어 드립니다.

시즌에 맞는 정확한 산행정보와 등산상식, 캠핑과 MTB, 요트, 카약 등을 아우르는
알찬 아웃도어 정보는 46년 전통을 자랑하는 〈월간산〉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월간산〉은 산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구독문의 02-724-6764 san.chosun.com



SEVEN MOUNTAIN

RESORT



영남알프스 모든 길은 언양장으로 통한다

어린 시절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나섰던 오일장.

엄마는 식구들 반찬거리도 사고

오랜만에 상에 오를 고등어도 고르셨다.

시장에 오면 동네 아주머니도 만나고

인심 좋은 시장 아주머니의 덤도 얻어갔다.

그래도 어린 맘에 제일 좋았던

호떡, 풀빵, 옥수수, 고구마, 빵튀기 뭐 이런 먹거리들.

그 시절 최고의 간식거리

아직도 언양알프스시장에 가면 그대로 남아 있다.

영남알프스 산자락을 이고 지고 넘어오던

옛날 언양장꾼들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

오늘도 추억을 사러 시장으로 나선다

